교회 내 계층 간 갈등구조 속에서의 화해자의 역할

THE ROLE OF PEACEMAKERS WITHIN THE STRATIFIED STRUCTURE OF THE CHURCH

BY

YONGJIN YOO

A DEMONSTRATION PROJECT

Submitted to
New York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New York, U.S.A.

2010

ABSTRACT

THE ROLE OF PEACEMAKERS WITHIN THE STRATIFIED STRUCTURE OF THE CHURCH

BY

YONGJIN YOO

In the church, there exists class distinctions by the factors such as education, societal levels, the number of years of attendance and so on. This fracturing of the congregation is considered to be the result of secularism that has thoughtlessly flowed in the church. In conjunction with this, I commented on what the role of peacemakers are in view of pursuing harmony and reconciliation in order to accomplish a church that is one.

The pursuit of recovering health within the church entails a survey on the stratified conflict structures which exist in the church. An access to gain productive outcome is essential in addition to revealing the cause of the conflict. Conflict can happen in relation with others. The starting line of finding the resolution to the conflict is having the understanding about the conflict. The purpose of expressing antipathy is not 'criticism for criticism' but 'dialogue for reconciliation'. As we know, the example of conflicts between the Grecian Jews and the Hebraic Jews in chapter 6 of Acts, a crisis can be changed into an opportunity.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s play a dramatic affect on the formation of faith. The stratified structure between the church members stems from the basis of the cultural factor. For example, one group may stick to old customs and traditions. They are usually falling in elitism and have a strong exclusive attitude. On the contrary, there may be another group in the church who have open minds as a result of being exposed to diverse cultures. But they are inferior in members.

As a result, they are not absorbed in the church, and sometimes have the feeling of being victimized.

In the course of studying on the role of peacemakers, I found an examplary model. That is The House Church. The House Church is led by a layman who acts as a shepherd and carries out many of the responsibilities of a full time pastor. The House Church is composed of 6 to 12 members who meet together on a weekly basis at member's home. It is a faith community which engages in the Christian acts of worship, education, fellowship, witnessing and mission.

The purpose of the House Church is to recover vitality of the first century church's faith community. The House Church overcomes the limitations of a passive religious church life that only focuses on worship formation and Bible study based discipleship. The House Church is geared towards witnessing to unbelievers and in so doing, fulfilling the church's original purpose of "saving the lost and making disciples of Jesus Christ".

The House Church accomplishes this by helping unbelievers to accept Jesus as their LORD and Savior and by inviting unbelievers to be true disciples through servant hood. The layman gains understanding and becomes a partner with the head pastor by experiencing the pastor's tasks through the successes and the adversities of serving the House Church members. The House Church calls for and provides an environment to nurture members as they learn to practice scripturally based living and in so doing members become true Disciples of Christ.

A healthy peacemaker makes a healthy church. The pastors must determine the direction of their pastoral duties in an effective manner. And a specialized and more detailed leadership by the lay believers should be encouraged within the church.

ACKNOWLEDGEMENTS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시는 그 날까지 예수그리스도의 지상대명령을 몸소 실천해 나가는 하나님의 신적 기관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담임목회자로 섬겼던 지난 8년간의 기간을 되돌아보면 아쉬움과 아픔이 아직도 진하게 남아있는 시간들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회자로서 본인의 역량이 부족하여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지 못한 안타까움이요, 좀처럼 자극받고 변화 받지 않는 교회 구성원들에 대한 아픔이었습니다.

본 논문은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숙한 화해자 의식을 품은 목회자와 성도가 준비 되어야한다는 깨달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목회를 새롭게 시작해보고 싶은 마음으로 미국으로 오게 되었고, 부교역자로서의 충분한 경험을 쌓지 못한 것이 미숙한 목회의 주요 원인이라는 깨달음으로 부교역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부교역자의 과정을 통해 섬김의 도를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교역자로서는 논문이 다루고 있는 이론을 현장 속에 낱낱이 적용해 본다고 하는 점에서는 현실적인 제약을 많이 느꼈습니다. 아쉬움 속에서도 감사한 것은 부교역자로 섬기고 있는 뉴욕 목양장로교회를 통하여 가정교회의 모델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가정교회의 목장을 섬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목자와 목녀들을 바라볼 때마다 향후 교회들이 나아가야할 성경적인 교회 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동시에 목자와 목녀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 한 켠에 가슴 저림을 느끼게 됩니다. 쉽게 예수 믿는 넓은 길을 포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정교회라는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들의 고통이 전해오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목원으로 섬기고 있는 필리핀 목장의 정석옥 목자님과 유문숙 목녀님, 사랑하는 아내 오미혜 사모와 사랑하는 딸 지은이와 아들 지성이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항상 기도로 지원해 주시는 어머니 한미순 권사님, 물심양면으로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시는 장인 오원식 목사님, 장모 기정옥 사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늘 귀한 가르침을 주신 백창건 교수님과 NYTS 교수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2010년 뉴욕에서

유 용 진

목 차

서 론(Introduction)

본 논문은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자기 정체성을 망각하고 교회 구성원 간에 심각한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이민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건강한 교회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방편으로써 바람직한 화해자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화해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문제 해결자가 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용서와 화해는 어떻게 다른가? 상호작용이 지속되면 이는 더 이상 용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화해의 문제다. 화해란 신뢰가 손상된 관계에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1] 화해하려면 양쪽 모두 신뢰를 쌓아야 한다. 용서를 느끼면 화해하고 싶어질 수 있다. 용서와 화해가 하나로 이어진 것은 아니지만 분명 관련이 있다.

우리 사회의 소수자들은 '중심성' 또는 '힘의 중심'에서 멀어진 차별의 대상들이다. 화해자의 삶을 추구하며 중심에선 관점보다 주변에선 관점으로 살아가기는 말처럼 쉽지 않다. 예수가 권력과 힘의 중심에서 늘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시대 소수자들과의 공통된 삶의 자리에 머무시려는 의도적 노력이다. 중심에서 생각하는 방식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주변에서 생각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선택할 때 가능하다. 주변에서 중심으로, 중심에서 주변으로 향하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쉼 없이 아래로 향해야 한다.

오늘날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과연 재현 할 수 있을까? 어떤 의미에서 ‘초대교회’의 모습은 분명 현대적 교회를 이루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

[1]Everett I. Worthington, Jr. 윤종석, *용서와 화해* (서울: IVP, 2006), 212.

주고"(44-45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4:32)

'교회의 본질'로 자주 대표되는 '초대교회로의 회복'에 대한 표상 중 다른 하나는, 곧 바울의 '몸으로서의 교회론'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바울의 표현(엡 1:23; 골 1:24)이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현존의 장소가 곧 '교회'라는 것이며, 이는 바울의 선교사역의 중심이었던 '십자가와 부활'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뜻한다. 곧 '교회'란 '십자가'와 '부활', 곧 생명의 평화를 이루어내기 위해 고난의 길을 걸으며 죽임의 권세를 물리치는 그리스도의 몸 된 공동체가 될 때 존재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골 1:28)고 말한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개혁의 목적과 방향은 바울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과 일치하는가? 성서가 말하는 '교회개혁'의 중심은 '교회'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것이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26절) '교회'의 본질적 모습은 세상 속의 고통 받는 지체를 위해 고통을 나누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한 몸을 이루고 사는 것이다. 고난의 그리스도를 한 몸으로 받아들인 교회는 고난 받는 지체들을 한 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함께 고난 받고 함께 영광을 누리는 한몸 공동체로서의 교회, 이것이야말로 화해자로서 추구해야할 목적인 것이다.

송정명 목사(미주 평안교회)는 한국 이민교회들의 특징이 "교회에 절대 순종을 요구하며 뜨거운 신앙으로 모인 공동체"라고 짚으면서 한국교회들을 주로 영적인 목회로 이끌어 갈 수 있지만, 이민교회들은 목사가 목회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개인적, 사회적 도움도 주어야 하기 때문에 "한국보다 목회자에 대한 신뢰도와 존경도가 낮다"고 말한다.[2]

대체로 이민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규는 근원을 크게 다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3]

[2]라종일,차종환, 김호, *교회의 갈등 그리고 화해* (대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2002), 19.

첫째, 교회에 속하고 있으면서도 교회와 아무 상관없는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를 바라고 있는 경우이다.

둘째,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교회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있다. 이것은 주로 개인의 목적과 주로 관련되어 있다. 교회는 이런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지 개선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저의는 개인의 가치판단과 더불어 개인적인 욕구충족을 도모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 교회는 교회 자체의 뚜렷한 존립목적이 있다. 이것은 흔들 수 없는 것이다. 교회의 분규는 이 세 가지 목적, 즉 개인의 목적과 교회에 대한 개인의 기대하는 바와 교회자체의 목적이 서로 충돌될 때 생긴다. 이 세 가지 목적이 분명히 판명되어야 하며 충족되어야만 하는데 일치점에 도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화해에는 4가지 영역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 나와 나, 나와 세상(이웃), 세상(이웃)과 하나님 간의 화해인데, 이 중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이미 이루셨다. 나머지 3가지 영역에서의 화해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이 시대 속에서 소수자들을 향해 화해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소수자들을 위해 살아간 존재이기 때문이다. 예수는 결코 중심에 있지 아니하였고 중심에 선 존재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그 당시 중심에 서 있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 서기관, 로마인들은 예수를 거부했다. 뿐만 아니라 예수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조차 낯선 사람(stranger)이었다. 성경은 예수는 자신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으로 묘사한다. (히 13: 12-13) 이 길이야 말로 갈등을 극복하는 화해자가 추구해야 할 길이다.

---

[3]Ibid.,26.

Ⅰ. 연구의 배경

A. 지역 사회의 역사와 배경

1. 일반적인 배경

Long Island City는 Queens borough의 최서단에 위치해 있다. 지역적으로 보면 Astoria, East River, Brooklyn의 Greenpoint 등과 인접해 있다. 이곳은 원래 Newtown township 정부의 중심지였다.

Long Island City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이곳은 1870년에 조성된 도시였다. Astoria, Ravenswood, Hunterspoint, Sunnyside 등의 지역이 함께 어우러져 형성된 곳이다. 인근 Manhatten지역의 근접한 지리적 이점을 안고, 오래전부터 주택가를 형성했다. 전통적으로 Long Island City 지역은 많은 공장지역과 Bakery들이 밀집한 곳이다.

Woodside를 비롯한 Long Island City의 지역에는 다수의 한인교회가 밀집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이민 동향의 변화로 인해 과거와 비교하여 이 지역의 교회들이 활발한 선교활동을 펼치기에는 많은 제약들이 있다. 이전처럼 가족 중심의 이민유형은 이 지역에서는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다만 주변에 Manhatten이 인접해 있는 지역적 특성 상 유학생 위주의 인구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조차도 자녀들이 성장함에 따라 인근 Flushing, Long Island, New Jersey등으로 좋은 학군을 선호하여 이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역사적인 배경

목양장로교회는 미주 한인 장로회 교단(KPCA) 소속으로 현재 위임 목사인 송병기 목사와 12명의 교우들이 1983년 3월6일 51-11 Queens Blvd. Woodside, NY 11377 에서 모여 창립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되었다. 개척 당시 뉴욕과 뉴저지 지역을 포함하여 90여개의 한인교회가 있었다. 특히 Queens Blvd. 지역에는 한인교회가 한 교회도 없었다. 이런 지역적인 상황에서 한인교회가 필요했고 그 시기에 목양교회가 출범하게 된 것이다.

목양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송병기 목사는 서울 난지도에서 교회를 개척한 경험이 있다. 1970년대의 난지도 지역은 열악한 환경 그 자체였다. 총 면적 60만평에 60세대가 거주했다.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에는 교인이 세 명 분이었으나 6년 정도 사역할 무렵에는 난지도 주민 중 80% 이상이 교인이 되었다. 그 후 경신중, 고등학교 교목을 하다가 1982년 5월에 뉴욕으로 오게 된다. 약 10개월간 교회개척을 위한 준비기도와 직장생활을 하며 그 이듬해 3월 첫 주일 교회설립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다.

올해로 교회창립 27주년을 맞는 목양교회의 성장 단계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면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4]

첫째, 하나님 중심의 교회를 추구한다. 이민사회 속에서 대부분의 한인교회들이 파벌로 인한 분열로 시달리는 것을 목격하면서 교회는 인위적 방법이나 해위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워진다는 분명한 원칙을 고수한 것이다. 목양교회가 교회 설립 당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영구적인 표어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적인 교회'이다.

둘째, 전교인의 믿음의 열정을 강조한다. 교회를 동력화하는 것은 곧 믿음이라는 깨달음에서 출발한 것이다. 1983년 3월 6일 교회설립 첫 예배를 드린 후 주일마다 교안들의 수가 늘기 시작했다. 4월 10일에는 첫 제직을 임명하게 되었고, 6월에는 학생회와 청년회가 조직되었다. 같은 해 10월에는 여전도회가 발족했으며, 이듬

[4] 정석기, *세계 속의 한인교회(10)* (서울: 쿰란출판사, 2007), 168.

해인 1984년 2월에는 남선교회가 발족하게 되었다.

2009년 현재 목양교회는 가정교회를 추구하고 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셀 조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Vision 2020을 통해 2020년까지 153인의 교회지도자를 세워 세계를 복음화 시켜 나간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가정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숙한 평신도 지도자를 세울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바라볼 때 가정교회를 통하여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세상을 세워 나가는 움직임은 본고의 주제인 건강한 공동체를위한 화해자의 역할 연구와 일맥상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현 황

송병기 목사가 강조하는 그의 목회철학은 크게 8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5]

첫째,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평신도 사역자를 발굴하여 권한을 위임하는 지도력을 말한다. 이 지도력은 '군림하는' 지도력이 아닌 '리더를 세우는' 지도력이다. 제자를 삼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체계적인 양육과 훈련을 강조한다. 부모의 심정을 품고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자세를 요구한다.

둘째, 은사 중심적 사역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해야 할 사역을 정해 놓으셨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교회 지도자들의 역할은 교인들이 은사를 발견하여 그에 맞는 사역을 하도록 돕는 것이다. 각자에게 주어진 영적 은사를 따라 섬기는 삶을 살게 되면,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일하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교회는 다양한 일이 있고, 그 일마다 일군이 필요하다. 은사와 일치하는 사역을 할 때 열매도 맺고 기쁨과 보람도 느끼게 된다.

셋째, 열정적 영성

---

[5] *목양장로교회 요람* (2008), 3-6.

건강한 교회와 그렇지 못한 교회의 차이점은 바로 영적 열정의 정도이다. 열정적 영성이야말로 자동차의 가솔린처럼 교회 공동체 내부의 에너지원이라 할 수 있다. 열정과 영성은 기도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데 열정적 영성이 살아날 때 신앙 영역의 다른 분야에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넷째, 기능적 조직

영성주의자들은 기도만 강조하고 조직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방법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어떤 일정한 조직을 갖추면 성장하게 된다고 믿는 경향이 잇다. 그러나 교회의 형식과 조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느냐 못하느냐에 있다. 교회 조직 자체는 절대 궁극적 목적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조직은 단순히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다섯째, 영감 있는 예배

영감 있는 예배는 예배의 목표 대상이 신자 중심이냐 불신자 중심이냐, 영적인 언어로 예배하느냐 세상적인 언어로 예배하느냐, 의식에 따르는 예배를 드리느냐 좀 더 자유스러운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것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참석한 자들에게 영감을 주는 예배인가?‘하는 것이야 말로 건강한 교회와 그렇지 못한 교회를 뚜렷이 구분 짓는 특징이다.

여섯째, 전인적 소그룹

건강한 교회들은 구성원 개개인이 서로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실적인 부분에까지 도움을 받으며, 또한 강한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소그룹 체제를 발전시켜온 교회이다. 소그룹이란 단순히 모여 성경공부만 하는 모임이 아니라,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가깝게 교제하며 삶을 나누는 모임이다.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에게 도움을 주게 되고 소속감을 강화시킨다. 교인의 숫자가 아무리 많은 교회라 할지라도 성도들 각자가 소그룹에 소속되어 자신의 은사를 발휘하고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면 교회에 강한 애착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는 의도적으로 소그룹의 번식을 시도한다. 하나님의 소그룹을 나누어 또 다른 소그룹을 형성하도록 함으로써 소그룹이 끊임없이 번식하도록

한다. 건물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공동체 중심의 교회를 형성하는 것이다. 어떻게 한 사람도 소외시키지 않으며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갈 것인가의 문제를 위해 소그룹은 존재하는 것이다.

일곱째, 필요 중심적 전도

초대교회가 어떻게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은 오늘 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관심사항이다. 이것은 전도가 얼마나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실제로 전도를 하고 이것이 교회 성장에 얼마나 기여하는가를 말하는 것이다. 전도는 '밀어 붙이기식'의 인위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와는 정 반대되는 것으로써 불신자들의 의문에 답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줌으로써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다.

목양교회 안에는 전인적인 구역모임과 열린 모임이라는 두 종류의 모임이 있다. 구역 모임은 예수 생명의 가족 모임이며, 열린 모임은 전도 소그룹 모임이다. 열린 모임에는 기존 신자 분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도 거부감 없이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누구에게나 개방된 모임이다. 이 모임은 한 지역을 거점으로 점차적으로 주변 지역을 장악해 나가는 전도 방법이다. 이것은 주님의 전도 방법이었으며, 사도 바울의 전도 방법이기도 했다.

여덟째, 사랑의 관계

건강한 교회는 정체되거나 쇠퇴하는 교회에 비해 '사랑지수'가 눈에 띄게 높다. 성도들 상호간에 사랑하는 정도가 높다는 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 정도가 깊다는 의미다. 사랑이 많은 교회는 반드시 건강하게 성장한다. 반면 사랑이 부족하면 교회가 성장하기 어렵다. 문제는 이러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자기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밖에 없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붙잡힐 때 비로소 자아에 대한 위기를 극복하게 된다.

목양 교회는 2010년부터 교회 시스템을 가정교회로 바꾸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일단 20개의 목장으로 구성된 가정 교회를 계획하고 있다. 나아가 비전

2020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 내용은 2020년까지 153개의 목장을 가진 가정교회로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 비전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153명의 역량 있는 평신도 지도자를 배출해야 한다.

가정교회는 전혀 새로운 프로그램이 아니다. 이미 초대교회부터 존재했던 건강한 교회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다만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최영기 목사 시무)는 가정 교회의 모델을 새롭게 배급했다고 할 수 있다. 목양교회 역시 가정교회의 시스템을 정착화 시키기 위해 평신도 성경교육은 물론 외부적으로 열리는 가정교회 세미나에 교회 중직자와 평신도들이 높은 관심을 나타내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B. 문제제기 및 연구방향

1. 문제제기

기존 전통교회의 시스템을 내려놓고 가정교회를 시작하는 이유는 기존의 전통교회의 시스템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앙인을 양산해 내기보다는 단순히 종교적 문화 내지 종교적 분위기에 익숙한 종교인만을 산출해 내고 있다는 자각 때문이다. “왜 하필이면 가정교회인가?”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정교회가 성경적인 초대교회의 형태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할 수 있겠다. 물론 가정교회만이 성경적인 교회라고는 할 수 없다. 구지 성경적인 교회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데에는 가정교회의 정신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물론 기존의 전통교회 구조 속에서도 얼마든지 ‘영혼구원’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그러나 영혼 구원이 단순한 구호 내지 강조점이 아니라 실제적인 시스템 측면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실제적인 현장이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때 가정교회의 ‘목장’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보다 이상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목양교회는 가정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셀’체제로 전환했던 경험이 있다. 그

러나 시행한지 1년 만에 셀 체제를 포기하고 가정교회 체제로 전환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셀 체제가 어떤 프로그램 중심이라면 가정교회는 프로그램적인 측면보다는 그 정신 혹은 시스템이 교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깨달음에서다. 물론 목양교회가 가정교회 체제로 전환하고 눈에 보이는 성과를 얻어낸 것은 아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기존교회에서 가정교회로 정착하는 과정은 3년 내지 5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통계가 있다. 또한 셀 체제로 변환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 낸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가정교회만이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형태라고는 말할 수 없다. 동시에 아무리 그 정신과 시스템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접목시켜 나가는 과정 속에서 뛰어넘어야 할 실제적인 변수가 많이 존재할 것이다.

다만 이 논문에서는 기존교회가 보다 이상적인 형태의 성경적인 공동체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자는 바로 그것이 '화해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가정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화해자로서의 중보 사역에 비유할 수 있다. 목자와 목녀의 역할, 목원 간의 관계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화해자의 역할을 바르게 이해하고 실행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2. 연구 목적과 방향

기존교회에서 가정교회로 전환한 교회들의 경우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처럼 처음 가정교회의 목장을 운영하게 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 있다. 기존교회 체제 속에서의 구역조직과 가정교회의 목장조직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다. 구역조직이 성경공부 위주의 모임이라면 목장조직은 섬김과 나눔 위주의 모임이다. 가정교회의 목장 모임은 주로 금요일 저녁 시간을 이용하여 가정에서 모이게 된다. 보통 3시간 이상 이상의 긴 모임이 되는 이유는 함께 음식을 나누고 일상의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가정교회로 전환하며 기존 교회의 성도들이 가장 많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기도 하다. 동시에 이 부분

때문에 가정교회의 목장이 치유를 경험하는 현장이 되기도 한다. 가정교회의 목장 제도는 결코 형식적일 수 없으며, 서로가 서로에게 정직해지고 서로를 깊이 이해할 때에는 자생적인 치유가 발생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므로 가장교회의 목장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자와 목녀, 목원들이 서로를 향하여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하고 있는가가 하는 것이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섬김과 나눔이 없이는 지속될 수 없는 관계가 목자와 목녀, 목원들간의 관계이다. 이런 측면에서 가정교회의 목장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성경적,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기 보다는 섬김을 바탕으로 한 인간 이해가 먼저 요청된다. 이런 측면에서 갈등을 해소해 나가려는 성숙한 화해자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Ⅰ장에서는 목양장로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일반적인 배경과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현황들을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배경들은 목양장로교회의 상황을 좀 더 잘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특히 기존교회가 안고 있는 공통적인 한계들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문제의식을 갖도록 도와줄 것이다.

Ⅱ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방향을 제시하며, 문제의 현장 속에서 곧바로 대안을 발견하기 위한 성급한 처방을 제시하기 보다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과연 교회의 공동체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화해자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원론적인 접근을 펼쳐나갈 것이다. 화해자란 무엇인가에 대해 각각 신학적 분석, 성서적 분석, 정의적 분석, 사회학적 분석을 펼쳐 나갈 것이다.

Ⅲ장에서는 Ⅱ장에서 분석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목회현장 속에 그 이론들을 어떻게 접목시켜 나갈 것인지를 논하고자 한다. 특히 가정교회의 현장 속에서 화해자의 의식을 회복시켜 나가기 위해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논하고자 한다. 가정교회가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신적인 측면 혹은 시스템적인 측면이 더욱 강하기 때문에 의식의 전환이라고 하는 주제는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 사실 기존교회에서 가정교회로 전환하는 과정이 어려운 이유는 목회자가 먼저 성경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올바른 리더십을 구축해야 하고, 세워진 교회론을 목자와 목녀, 목원들과 함께 공유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보다 실제적인 측면에서 목회 현장 가운데서 화해자의 의식을 고취하려고 노력했던 부분들을 논하고자

한다.

Ⅳ장에서는 평가(Evaluation)를 통해 그 동안 목회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유용한 경험들과 문제점을 진단해 보고, 이 연구 논문의 의의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 평가(Evaluation)를 통하여 변혁을 시도한 목표 가운데 어떤 것이 더욱 확고해 졌는지, 연구반원들이 어떤 점이 더욱 분명하게 성취되었는지를 살펴 볼 것이다. 목회 유능성(Ministerial Competencies)을 통해 연구반원들이 바라본 목회현장에서 본인이 얼마나 능력수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평가하는 내용을 보여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결론(Conclusion)을 통해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얻어진 결론들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또한 앞으로 이런 프로젝트를 지속할 수 있을지, 향후 보다 바람직한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C. 교회공동체의 현실

1. 사례조사

기존의 전통교회에서 가정교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른 교회관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가정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핵심내용을 전수하고 이해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적으로 가정교회의 목장을 운영해 나가는 측면에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가 무엇이며 향후 가정교회를 통한 사역을 어떻게 전망하는지를 설문지를 통하여 질문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다.

1) 가정교회의 정의

가정교회는 분명 기존의 전통적인 보수적 성향의 교회에 비해 평신도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가정교회의 목자와 구성원들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화해자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할 수 있다. 과연 어떤 측면에서 가정교회가 화해자의 역할 수행에 적합한 교회이며, 그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은 무엇인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아래 내용은 가정교회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다.[6]

가정교회의 필요성은 올바른 삶이 어떤 것이라고 말해주는 목회자보다는, 올바른 삶의 모습을 직접 현장에서 보여줄 수 있는 평신도 사역자가 더 필요하다는 깨달음에서 출발한다. 평신도 사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목사와 평신도 사이에 절대적인 신뢰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이런 신뢰관계를 위해서는 목사가 평신도들에게 자신의 삶을 투명하게 내비쳐야 한다. 가정교회의 성경적 근거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엡 4:11-12)라는 말씀에 입각한다. '구역'이라는 용어보다 '가정교회'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도 하나, 하나가 다 독립된 교회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정교회의 조직방법을 살펴보면 가정교회는 '목장', 책임자는 '목자', 회원들은 '목원'이라고 각각 호칭한다. 우선 목자들을 임명한 후 교인들 스스로 소속하고 싶은 목장의 목자를 선택하게 한다. 구역 모임이 친교와 서로를 돕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가정교회에서는 예배, 성경공부, 제자훈련, 선교, 전도, 친교 등 교회가 하는 모든 역할을 다한다.

가정교회의 역할은 한 마디로 '내적 치유'라 할 수 있다. 가정교회는 1주일에 한 번 저녁시간 개인 집에서 모인다. 저녁을 들고 나서 예배를 드리는데 장소 제공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한 가정이 한가지씩의 음식을 준비한다. 예배순서는 찬송가를 20분쯤 부른 후, 목원 각자가 2,3분 동안 한 주간 동안 경험한 특기할 만한 사건 하나씩을 애기하는데 한 명도 빠짐없이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활 나눔이 끝나면 장년 주일학교 교재로 20분 동안 성경공부를 한다. 성경 공부 후 15분 정도의 다과시간을 갖고 조금 전에 공부 한 내용 성경 구절 중에서 요절 하나를 뽑아 어떻게 생

[6]최영기, *구역조직을 가정교회로 바꾸라* (서울: 나침반, 2007) -본 내용은 이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본인이 요약 정리한 것이다.

활 속에 적용할 것인가를 토의한다. 목원이 겪고 있는 어려움도 이 시간에 다루어지는데 약 1시간 15분이 소요된다. 이 시간이 목장 모임에서 가장 중요하다. 주목할 점은 목원들이 실제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시간 후 15분간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 마지막 15분 간 선교사와 선교지,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기도한다. 공식적인 모임 시간은 2시간 30분이 소요된다. 목장 모임은 밀씀에 대한지적 토론의 장이 아니며 마음과 마음이 만나 상처를 치료받고 구체적인 도움을 얻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이런 목적이 성취되는 모임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면 다 해결 된다'는 식을 피상적인 답을 주지 않아야 한다. 다른 이에게 조언할 때에는 질문이나 간증만을 사용해야 하며, 목장 모임에서 나온 애기는 절대 비밀에 부쳐야 한다.

가정교회는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초대교회의 성장은 성령의 힘을 제한하지 않는 교회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전통적인 교회 구조는 평신도를 무력화 시키고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를 제한한다. 가정교회는 이런 초대교회의 역동적인 구조를 접목시키는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2) 교회 사역의 주체: 평신도

신약 성경 안에는 전문 목회자와 평신도 목회자의 구분이 거의 없다. 사도 바울은 선택 받은 사도였지만 평신도처럼 천막을 기우는 일을 복음 사역과 병행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들은 평신도이면서 전문 사역자의 전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 설교, 전도 등을 감당했다. 실질적인 차원에서 평신도 사역이 보다 효과적인 경우가 많다. 전도도 평신도 사역자가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불신자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은 평신도들의 변화된 삶이다. 초신자의 신앙성숙을 돕는데도 평신도가 훨씬 효과적이다. 초신자들이 목회자들의 삶을 보고 흉내 내기는 실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그 동안 평신도 사역은 주로 선교단체들을 통하여 교회 밖에서 행해진 것이 사실이다. 가정 교회는 성경적인 토대 위에서 행해지던 교회 밖의 활동을 교회 안으로 가져오는 평신도 사역이다.

3) 평신도 사역의 최대 난적: 목회자와의 갈등

평신도 사역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담임목사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담임목사의 개성과 목회 방침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 평신도 사역자들에게는 제일 힘든 일이다. 평신도 사역의 성공여부는 담임목사와의관계에 달려있다. 평신도 사역자와 담임 목사 사이에 신뢰가 깨지면 그 평신도 사역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만다. 그러므로 평신도 사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평신도 사역자와 담임 목사 사이에 절대 신뢰가 있어야한다. 담임 목사와 화평을 누려야 한다. 담임 목사에게는 자신의 목회 꿈을 펴 보는 재미와 보람이 있지만 평신도에게는 그런 것이 없다. 그러므로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평신도 사역은 지속될 수가 없다. 더 큰 문제는 훌륭한 평신도 지도자들이 목사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유능한 평신도 사역자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소원이기 이전에 주의 소명을 점검해야 하며,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을 갖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

4) 평신도 훈련 과정

평신도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려면 평신도를 훈련시켜야 한다. 일꾼이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일꾼을 키워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평신도 사역자 훈련과정이 있다.

▶ 생명의 삶: 새신자총서(침례교 진흥원)-하루에 두 과씩 13주 과정=> 신앙생활에 관한 기초적인 것을 총괄적으로 훑어봄으로써 신앙생활의 뼈대를 형성

▶ 제자의 삶: 중요 주제 중심=> 삼위일체, 기도하는 법,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법…

▶ 경건의 삶: 영적성장과 훈련(리차드 포스터, 생명의 말씀사)=>13주 과정, 기도, 금식, 묵상 등의 영성훈련 반(6-8명)을 편성하여 토의, 간증, 기도를 통한 심

령 치유

이 외에 일대일 양육과목(13주 과정)들로 영적성장의 기본진리(침례교 진흥원)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침례교 진흥원)이 있다. 이 두 과목은 단둘이 만나 가르치고 배우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가정교회 안에서 실시한다. 평신도 훈련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다음 일곱 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담임목사에게 평신도 사역자를 키우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둘째, 담임목사가 평신도 훈련에 참여해야 한다. 그 이유는 평신도 훈련은 중요한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이다. 기초과목일수록 신학 교육을 받은 담임목사가 인도해야 하며 성경공부가 재미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훈련 기간이 짧아야 한다. 13주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은데 그 이유는 새신자 들에게 해낼 수 있다는 성취감을 심어주기 위해서이다.

넷째, 책임감을 강조해야 한다. 평신도 훈련 프로그램이 실패하는 이유는 성도들에게 너무 요구를 안 하기 때문이다. 목회자 자신이 책임감 잇게 임해야 하며, 진도표를 나눠주고, 등록비를 받고 과제물도 내주고 시험도 치르게 한다. 결석도 네 번 이상 빠지면 탈락시켜 다음 기회에 수강하게 한다.

다섯째, 토의식 성경공부를 해야 한다. 이 훈련과정은 전문가를 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를 훈련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강의식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 질문하고 토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여섯째, 홍보를 잘해야 한다. 가장 효과적인 것은 간증이며, 아직 수강하지 않은 자들에게 동기를 유발시켜준다.

일곱째, 탁아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5) 가정교회 정착을 위한 지침

가정교회는 정착하기까지 일정한 3단계를 거치게 된다.

첫째, 목원들간에 친숙해지는 단계이다. 그러나 이 단계에만 머물러 있으면 모임이 결국은 시들해진다.

둘째, 내적인 상태를 나누는 단계이다, 이 단계로 옮겨지기까지는 보통 6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 특히, 목자의 역할이 중요한데 목자 자신이 자신의 부끄러운 점과 약점을 노출시킴으로써 기도와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가 요청된다.

셋째, 전도와 선교의 단계이다. 이 단계로 넘어오지 않으면 다시 침체를 겪게 된다. 교회의 에너지를 항상 박을 향해 분출할 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다.

가정교회 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필요하다.

(1) 동기 부여의 중요성

평신도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기 부여이다. 동기 부여를 위해 목회자가 해야 할 것은 세 가지이다. 첫째로, 목회자 자신이 평신도 사역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둘째, 평신도 사역의 중요성을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해야 한다. 셋째, 목사 자신이 사역의 본을 보여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다. 목사가 아무리 애를 쓴다 할지라도 결국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가정교회 목자들을 임명할 때에도 "1주일에 닷새 이상 하루에 20분 이상씩 기도할 것"을 약속하는 기도 서약을 받는다. 특히 가정 교회와 연관하여 목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성도를 준비시켜 봉사 활동을 하게 하는 것", 즉 신도훈련(엡 4:11,12)과 "말씀전하고" "기도하는 것"(행 6:4)이다.

(2) 관계의 중요성

평신도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의 관계이다. 마 22:34-40절의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볼 수 있듯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이다. 종적으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횡적으로는 이웃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목회자의 목회성공 여부는 성도들과 얼마만큼의 신뢰

관계를 형성했느냐에 두어야 한다. 가정 교회의 특성상 관계성이 또한 중요하다. 구역은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을 모은 것이지만 가정교회는 지역에 관계없이 관계성을 토대로 묶은 것이기 때문이다. 가정 교회는 구역, 장년 주일학교, 순 모임, 기도회의 주 기능을 포괄적으로 다하면서 지역교회의 기능까지 완전히 해내는 교회라고 할 수 있다.

(3) 전도의 중요성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구령 사업이다. 그러나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미 믿는 성도들을 끌어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 가정교회의 전도 방법은 “관계에 기초한 전도”이다. 불신자와 접촉하여 친구가 되고 이들을 가정 교회에 초청하여 관계를 맺는 가운데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방법이다. 나아가 전도의 목표가 제자화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 참된 전도라고 할 수 없다.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새로 믿거나 안 믿는 분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정 교회의 사역목표는 “1년에 예수님 모르는 분 한 분 이상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생명의 삶’을 마치도록 하는 것”에 둔다. 선교하는 가정교회가 되기 위해 가정교회마다 선교사를 정하여 기도하도록 함으로써 선교 사역이 가정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한다.

가정교회의 시스템이 한 교회에 제대로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3년 내지 5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통계가 있다. 이 시간은 수많은 시행착오의 과정을 동반하는 기간이다. 기존의 전통적인 교회의 체제에서 새롭게 가정교회 체제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많은 교회들이 진통을 겪은 사례들을 익히 알고 있다. 그러나 가정교회만이 진정한 성경적 교회의 원형을 보유하고 있는 교회라는 확신을 가지고 가정교회를 통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목양교회의 현주소라고 할 수 있다.

2. 설문조사 방법 및 분석

가정교회 사역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존 전통교회에서 가정교회로의 전환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총 18개 목장의 목자와 목녀 36명을 표본으로 하였다. 총 20문항의 질문 중 19개 문항은 선택형으로, 1개 문항은 개인의견을 진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0개 문항의 질문을 주제별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구역조직과 목장조직에 대한 선호도 분석

항목 2번의 질문 "현재의 가정교회 체제와 과거의 구역 체제를 비교하면?"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82%가 목장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는 목장체제와 구역 모임의 차이를 모르겠다고 답했으며, 5.5%가 목장 모임보다 구역 모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 3번의 질문 "현재의 가정교회 모임과 과거의 구역 모임에 대한 목장 식구들의 반응은?" 에 대해서는 50%가 가정교회 모임을 훨씬 더 좋아하고 있다, 33%가 가정교회 모임을 대체로 좋아하고 있다, 11.1%가 별 다른 차이가 없는 것 같다, 5.5%가 구역모임을 그리워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80%가 넘는 목장구성원들이 기존의 구역제도 보다는 목장제도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인 반응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은 목장 모임이 구역 모임에 비해 남녀노소 없이 함께 모이고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교환할 수 있는 점에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현재 본인이 소속된 목장에 대한 만족도 분석

일단은 구역모임에 비해 목장 모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본인이 소속된 목장에 대한 만족도는 별개의 문제이다. 목자, 목녀와의 관계, 목장 구성원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원활한가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이다.

항목 5번은 “목자, 목녀로서 봉사하는 것이 지금 어떠한가?”에 대한 질문이었다. 27%가 아주 좋다, 33%가 보통으로 좋다, 16.6% 그저 그렇다, 11.1% 힘들다, 11.1% 아주 힘들다고 답하였다.

항목 6번은 “ 우리 목자 혹은 목녀(목동)는 목장 섬김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이었다. 이 항목은 특별히 목자와 목녀 간의 팀웍을 묻는 질문이었다. 대부분의 경우 목자와 목녀는 부부가 감당하는 것이 보통이다. 남편이 목자인 경우 그 아내를 목녀로, 아내가 목자일 경우에는 그 남편을 목동으로 지칭한다. 내면 깊은 곳의 이야기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목자나 목녀가 자신들의 개인사, 특히 부부문제에 대해 먼저 자신들을 열어 보여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 문제로 부부가 종종 다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한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종합해 보면, 긍정적인 반응이 49%, 그저그렇다가 27%, 부정적인 반응이 22%로 집계되었다. 특히 항목 7번 “나는 목자 혹은 목녀 사역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의 질문에 대해 72%가 계속하고 싶다, 16.6%가 쉬고 싶다, 11.1%가 그만두고 싶다고 답변하였다.

특히 목자와 목녀, 목원들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대체로 긍정적인 대답이 나왔다. 본인이 해당된 목장의 존속 여부를 묻는 항목 8번에 대해서는 계속하고 싶다가 72%, 항목 9번의 “다른 목장으로 이동하고 싶어 하는 목장 식구가 있는가?” 라는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없을 것 같거나 없는 것이 확실하다는 답변이 각각 27.7%, 22%로 집계 되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분석해 보면 갈등을 회피하기 보다는 갈등을 해소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더 활발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한 본 연구자의 분석은 기존의 구역제도 보다 가정교회의 목장제도가 분명 더 부담스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목장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헌신도가 나타나는 원인은 구역장에 비해 목자나 목녀에게 더 많은 책임감과 동시에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즉, 영적 성취도라는 측면에서 바라 볼 때 목장 제도가 더 많은 만족감을 안겨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라는 측면에서 바라 볼 때 성도들은 단순히 쉽고

편한 길을 추구한다는 선입견을 버리고 목회적인 측면에서 성도들이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신의 삶을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현장을 제공해 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측면에서 가정교회의 목장은 헌신의 동기를 부여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화해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좋은 현장이 될 수 있다.

3) 목장 나눔을 통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여부 확인

항목 12번의 질문 내용 "우리 목장에서는 나눔 시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과 항목 13번의 질문 "우리 목장의 나눔의 평균 시간은?" 의 답변을 분석해 보면 목장 나눔을 통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항목 12번에 대해서는 3%가 "아주 잘 되고 있다", 33.3%가 "아주 잘 되고 있다", "보통이다"가 27.7%, "잘 안 되는 편이다"가 11%, "아주 안 되고 있다"가 11%로 집계 되었다. 78% 이상의 수치가 보여주듯이 커뮤니케이션이 대체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장의 나눔 시간을 묻는 항목 13번의 질문에 대해서도 3시간 이상이 11.1%, 2시간 이상이 66.6%로 집계되어 목장 모임이 형식적인 모임이 아니라 삶에 영향을 미치는 비중 있는 모임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교회의 꽃은 '목장을 통한 나눔'이라는 말이 있다. 흔히 '삶을 나눈다'는 표현을 하는데 그 시작은 목장 나눔을 통해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목원의 입장으로 필리핀 목장 모임에 참석했다. 그 모임에는 본 연구자의 3학년인 아들과 8학년인 딸도 동참했다. 첫 목장 모임을 떠올려보면 분명 식사 시간 직전까지도 낯설음과 서먹함이 있었다. 그러나 목장 나눔 시간을 통하여 그 어색한 분위기는 곧 해소되었다. 목장 모임이 성경공부 위주의 모임이 아니라 삶의 나눔 위주의 모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대화의 주제가 삶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남녀노소의 벽을 쉽게 허물 수 있고, 심지어 불신자들도 거부감 없이 접근할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 기존 전통교회의 모임은 지극히 믿는 자 중심이었다. 불신자에게 무조건적인 믿음을 강요한다거나 교회라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까지 커다

란 인내심을 요구하는 면이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가정교회의 목장 모임은 불신자들의 입장에서 믿는 자들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을 허물고 열린 마음으로 신앙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목장 운영을 통하여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의 장을 마련하는 것만으로도 갈등을 해소하는 화해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4) 영혼 구원이라는 가정교회의 우선적 사명 점검

가정교회 목장 모임의 위기는 친목 모임의 상태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이다. 가정 교회 목장은 불신자를 우선으로 한다. VIP라는 명칭을 구지 사용하는 이유도 얼마나 영혼 구원을 우선시하는가를 잘 보여준다.

항목 16번의 질문은 주일 오전 예배 참석자와 목장 참석자의 비율을 묻는 것이다. 이상적으로는 가정교회에서는 목장 참석자의 비율이 주일 예배 참석자보다 많아야 한다. 가정교회 시스템에 의하면 새신자들이 목장 모임을 통해 먼저 참석하고 후에 주일예배를 통해 교회로 유입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가정교회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관계로 주일 예배의 70% 이상이 목장에 나온다는 답변이 44.4%로 제일 높은 수치를 보였다. 그러나 향후 전망을 묻는 항목 18번의 질문 “우리교회는 앞으로 가정교회를 통해 식구가 늘 것 같다”는 답변이 66.6%로, “그대로 일 것 같다”라고 답한 22.2%, “줄 것 같다”라고 답한 11.1%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를 차지했다.

위와 같은 설문조사 결과는 가정 교회 모임을 통해 실제적으로는 많은 부담감을 안고 있지만 자신들이 먼저 목장 모임의 장점을 충분히 체험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기존의 목원들이 화해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내면 분명히 많은 수의 새신자들이 새롭게 유입될 것이라는 확신에서 나온 결과로 판단된다.

5) 사람을 세우는 가정 교회의 재생산적 능력 점검

가정 교회의 목장 모임 가운데 하나가 '분가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일정 기간을 통해 목장 식구가 늘어나면 새로운 목자를 세워 분가를 준비한다. 해당 목장의 목원 중에서 분가할 새로운 목자를 세울 경우에는 '예비목자', 다른 목장의 목원 중에서 목자를 세울 경우에는 '대행목자'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항목 19번의 질문 "우리 목장에는 예비목자가 될 후보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주 잘 할 것 같은 후보가 있다"가 27.7%, "그런대로 잘 할 것 같은 후보가 있다"가 33.3%, "지금은 없지만 6개월 정도 지나면 생길 것 같다"가 16.6%로 집계되었다.

Ⅱ. 화해자의 역할에 대한 질문과 분석

A. 신학적 분석

1. 신학적 의미에서의 화해자 이해

이 시대 속에서 각 계층 간에 '화해'를 추구하는 움직임은 각 분야에 걸쳐 다양한 시도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화해를 추구한다는 것은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 신학적인 면에서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논하고자 한다.

Hans Kűng은 "왜 그리스도인 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실존을 향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사람이면, 참으로 사람이면 그만이지 어째서 그리스도인이라야 하는가? 그리스도인 실존은 인간 실존보다 큰가?" 그에게 있어 인간 실존의 가장 큰 위기는 '세속화'에 놓여 있다. 세속화로 인해 정치, 경제, 국가, 문화 등 온갖 중요한 인간 생활 영역이 인간의 직접 책임과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다. 결국은 인간 자체가 '세속화'된 것이다. [7]

세속화된 인간을 자유하게 하는 것이 곧 화해자의 시대적 사명이다. 비 그리스도인들도 사랑을, 정의를, 선행을, 사람다움을 옹호하고 있다. 이 점에 있어 그리스도인으로서 화해자를 추구한다고 하는 것의 차별성은 그리스도께서 화해자로서의 사명을 완수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화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핵심은 하나님 사랑이자 사람 사랑이다. 하나님과 사람을 동시에 사랑하는 것이다. 다만, 예수에 따르면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꼭 같다는 말은 아니다.

---

[7]Hans Kũng, *왜 그리스도인 인가* (서울: 분도출판사, 1995), 21.

하나님의 인격화에서나 사람의 신격화 에서나 희생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다. 하나님 사랑이 사람 사랑의 수단이나 명목이 되어서는 안 되듯이, 사람 사랑이 하나님 사랑의 수단이나 명목이 되어서는 안 된다. [8]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공통분모는 '이기심 탈피'와 '헌신 의지'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화해자의 길을 모색한다는 의미는 체질적인 동지, 비동지의 한계, 분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사실상의 보편주의를 실천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원수 사랑 그 자체가 사람의 원수 사랑의 바탕이 된다.[9]

2. 화해자적 사명을 수행해야 할 신학적 근거

화해자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인간관계를 조율하는 차원 이상의 것이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셨던 예수그리스도의 정신을 계승하여 이 시대 속에서 바르게 화해자의 길을 실천해야 하는 신학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화해가 사라진 상태에서 인간이 경험하는 것은 '소외'현상이다. 하나님과 인간의 소외는 아담에게서 시작되었다. calvin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라면, 하나님의 권위에 결코 항거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불신앙은 타락의 뿌리"(Ibid)라고 한다. [10]

그렇다면,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는 어떻게 가능한가?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 2권에서 기독론을 취급하면서 '구속' 혹은 '화해'를 언급한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의 소외를 극복하셨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화해자로서 그리스도께서는 인간 변호자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개입하셨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의 소외관계를 극한적으로 노출시킨 자리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구속사건이요 화해사건이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통하여 즐거운 교환(frohlicher

---

[8]Ibid., 175.

[9]Ibid., 177.

[10]이형기, *종교개혁신학사상* (서울: 장로회신학대학출판부,1993), 383.

Wechsel)이 일어났기 때문이다.[11]

Calvin은 속죄사건 내지 화해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건을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을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규정한다. 십자가는 구속의 선물로서 뿐만 아니라, 의무와 과제의 의미를 갖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한 선물인 동시에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이다.[12]

바로 이 점에서 그리스도인은 화해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할 당위성을 발견한다. 화해자로서 십자가를 지는 연단과 순종의 삶은 단순히 자율적인 인간의 노력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으며,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은혜의 손으로 이끌어 주심에 의한다.

Marva J.Dawn은 '화해'의 과정 속에서 인간의 역할을 보다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13] 먼저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로 화목을 이루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평안을 선포하셨음을 강조하고 있다. 화목케 하는 일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는 의미는 우리 자신을 필요한 존재로 여겨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인간적으로 화평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전혀 없다. 오히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을 세워나가시지만, 교회는 여전히 그 성전을 붕괴시키고 공동체를 나누고 있음을 직시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공동체 내에서 자기역할이해를 위한 적합한 신학을 세우는 일은 시급하다.

화해는 네 가지 사건으로 이루어진다. 결단, 대화, 해독, 헌신이 화해에 다다르게 하는 요소가 된다. 신학자 LeRon Shults와 심리학자 Steven Sandage의 말처럼, 서로 대면하겠다는 쌍방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 그 다음 대화가 필요하다. 대화를 통해 정서적인 조율이 일어나며, 이 조율은 공감, 동정, 긍휼, 사랑을 나눌 때 이루어진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서로 약점을 보이며 교류하게 되고, 양족 모두 자기 내면의 독소와 그것이 관계에 끼친 피해의 실상을 볼 수 있다. 자기 죄를 직면하고 자기 방

---

[11]Ibid., 411.

[12]Ibid.. 434.

어를 위한 거리와 심리적 장벽을 유지하려는 성향을 바로 잡는 가운데 자기 영혼과 관계를 해독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관계를 개선하고 친밀함과 수용을 되찾기 위한 노력도 더해진다. 치유가 꽤 일어나 충분히 안전한 기분이 들면 비로소 서로를 향한 헌신의 복원에 나설 수 있다.[14]

1) 화해와 일치를 이루어야 할 교회 공동체

교회의 실존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의하면, 교회는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나의 구원 사건과 하나의 복음에서 유래한 교회는 제자와 증인, 섬기는 자들로 구성된 하나의 공동체이어야 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 뿐 아니라, 인간들 사이의 적대 관계도 지양시켰다. 그리스도는 교회 통일의 토대다.[15]

화해자로서의 삶은 끊임없이 개혁하는 신앙을 통해 가능하다. 현대의 '교회일치운동'(ecumenical movement)의 성경적 근거는 아브라함에게까지 소급된다.[16]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인 은혜로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공식적인 '은혜언약'(covenant of grace)을 맺으신다.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창 17:4). 이렇게 해서 세계교회는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시작된 것이다.이 점은 화해자의 길을 추구한다는 것이 인간적인 단합노력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먼저 구비되어야할 것을 교훈하고 있다. 에서를 통해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려고 그를 구별하여 세우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런 의미에서 화해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재발견이라 할 수 있다. 오늘 날의 이민교회가 다양한 계층의 사람을 품고 하나로 일치된 성숙한 교회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해타산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는 성숙한 신앙을 회복할 때 가능하다.

---

[14]Everett I. Worthington, Jr. 윤종석, 219.

[15]Hans Küng, 정지련, *교회,* 387.

[16]Cornelius Van Tu, 이승구, *개혁신앙과 현대사상* (서울: 엠마오, 1988), 294.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연약과 의심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시고 보존하셨다. 또한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약속의 성취를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스마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이심을 계시하셨다. 에큐메니칼 교회는 아브라함의 장막에 있었던 것처럼 이젠 이삭의 장막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17] 이렇게 이스마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길 원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다시 에서보다는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다. 사람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에큐메니칼 교회를 세우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믿는 자만이 에큐메니칼 교회에 속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신 것이다.[18]

참된 교회로 남아 있기 위해서는 형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에 의해 주어진—교회의 근본 구조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형태의 변화 모두가 본질에 적합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교회의 형태에는 본질에 적합한 형태뿐 아니라, 본질에 어긋난 형태도 있을 수 있으며, 본질적인 실현뿐 아니라 본질에 모순되는 실현도 있을 수 있다. [19]

한스 큉은 교회의 분열을 정당화하는 구실은 크게 네 가지로 분석하고 있다.[20]

첫째, 분열된 보이는 교회에서 분열되지 않은 보이지 않는 교회로 도피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보이는 교회가 분열된 교회라면, 보이는 교회와 하나된 보이지 않는 교회 또한 분열된 교회가 아니겠는가를 반문하고 있다.

둘째, 교회의 분열을 하나님에 의한 정상적인 교회 발전으로 설명하고 교회의 화해를 기껏해야 종말론적 완성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셋째, 교회 분열에 의해 생성된 상호대립적인 교회들을 한 나무에 붙어 잇는 셋 또는 네 개의 가지들로 설명하는 것이다.

넷째, 현실의 어느 한 교회를 그리스도의 교회와 일치시키고 다른 교회들은 모두 교회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는 진정한 화해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내적 회개 없는

---

[17]Ibid.,.294.

[18]Ibid., 297.

[19]Ibid., 376.

[20]Ibid., 402-404.

교회 일치 운동은 존재할 수 없다. 통일은 간구하는 마음은 영의 쇄신과 자기 부정, 그리고 자유로운 사랑의 운동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진정한 자기 부정, 겸손, 인내의 봉사, 형제 사랑의 온정 등의 은혜를 간구해야 한다.[21]

교회의 통일은 하나라는 숫자의 신화론적인 마술이나 통일 그 자체의 매혹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교회의 통일은 자연적이거나 도덕적인 일치가 아니며, 사회학적인 획일성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교회의 통일은 오히려 영적인 것이다. 이 통일은 지체 간의 하나됨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통일은 교회 그 자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통일에 기초하고 있다.[22]

2) 칼 바르트의 화해론 이해

칼 바르트 신학의 핵심은 화해론이다. 화해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고 사람이 사람과 연합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합으로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의 존재까지 끌어올려 진다. 바르트에게서는 구원이란 바로 이러한 신일합일의 상태이다.

그의 화해론은 '객관적 화해론'으로 이해되는데, 이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의지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과 화해를 하였다는 것이다. 전통신학이 갖고 있던 '주관적 화해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화해를 하였지만, 개인의 믿은 순간 화해가 이루어지는 주관적 화해가 된다.

칼 바르트의 공동체 선택의 신학은 기독 공동체는 세상이 가장 필요로 하는 봉사를 세상을 위하여 수행하기 위해서-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세상에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세상에서 택하심을 받았음을 말한다. 기독 공동체는 본질적으로 증인들인 그리스도인들의 몸이다. 기독 공동체는 남에게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말씀을 듣는 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구원을 위해 선택된 자는 구원의 도를 자기를 위해 숨겨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불신자들과 나누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았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 공동체는 선교 공동체이다. 기독 공동체는 그

---

[21]Ibid., 407.

[22]Ibid., 390.

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하여 존재한다.

칼 바르트의 화해신학이 교회 공동체에 던져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칼 바르트의 '화해론'은 1953년에 제1권이, 1955년에 제2권이, 1959년 제3권이 출간됐다. 당시의 시대적 배경부터 살펴보면 1950년 유럽은 급격한 변동의 시대로 유럽의 산업과 경제가 제2차 세계대전의 상흔을 떨치고 일어나는 시기었다. 교회적으로는 50년대에 유럽사회 전반에 세속화의 물결이 급속하게 퍼져나가 교회 출석률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던 때이기도 하다. 세속주의의 쇄도, 냉전의 심화, 핵무장 등으로 대변되는 1950년대 혼란스러운 세계 상황 속에서 바르트는 고통당하는 피조세계의 모든 현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과 인류, 그리고 세계와의 화해 사건에 비춰 이해하고자 했다.

칼 바르트의 화해론의 내용과 형식을 분석해 보면 화해의 영원한 근거는 '하나님과의 계약'이다. 화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맺어진 계약의 성취이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약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셨고, 인간을 그 분의 계약 파트너로 삼고자 하셨다.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이 계약은 이후 계속되는 모든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결정하는 사건이었다.

칼바르트의 화해론은 창조론과 구속론 사이에 서서 그 둘을 독특한 양식으로 연결시켜준다. 바르트는 그의 창조론에서 다음과 같이 밝힌다.

> "창조는 은혜의 계약사가 전개될 무대이고, 바로 이 장소에서 화해와 구원의 사건이 일어난다"

창조, 화해, 구속이 긴밀한 관계에 있음을 암시한다. 이 화해의 교역은 세상의 불의한 사고방식과 구조들을 분석하고 비판하고 해체함으로써 실제적인 화해와 평화 수립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추구해나가고, 이러한 가능성들을 세상의 모든 영역들에서 발전시키고 성취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화해의 교역은 언제, 어떤 경우라도 이 화해의 우선권을 취하려는 노력을 교회의 최상의 정책으로 삼아야 한다. 교회공동체는 그리스도의 화해의 영 안에서 각종 대립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성도의 화해의 교역이 실현되는 곳에서 교회공동체는 공동체자체와 그 주변세계에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그 나라의 해방적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

3) 화해자의 사명수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

예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제물이 되신 것은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화해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밝히 제시하고 있다. 예수는 근본적으로 인간 생활 전체가 하나님을 향하는 태도를 요망한다. 궁극적으로는 두 주인이 아니라 한 주인만을 섬기는 엇갈림 없는 마음을 의미한다.[23]

이런 의미에서 화해자가 된다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세상을 향하여 무장을 해제한다는 식의 접근은 아니다. 하나님 자신이 복음과 용서로써 믿음에서 나오는 새 출발인 회개를 가능하게 하신다.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위하여 원하시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익을 원하신다. 인간의 진정한 위대함, 인간의 궁극적인 존엄성을 원하신다. 하나님의 뜻이란 곧 인간의 복지다.[24]

이런 차원에서 교회가 화해자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세상을 향한 새로운 접근일 수 없다. 오히려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본연의 인간을 향한 복지의 뜻이 흐려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자정 시키고 세상을 섬긴다는 의미가 강한 것이다.

세상을 향한 교회의 섬김의 방향성은 예수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가르침에서 출발한다. 즉 교회는 하나님과 사람을 동시에 섬겨야 하며, 당장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나아가 원수도 포함하여 화해자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현장 속에서 심각한 구조적, 계층적인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이민 교회의 현실을 감안할 때 화해자의 역할을 심각하게 재조명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1) 하나님과 사람을 동시에

예수의 가르침에 의하면 사랑이란 근본적으로 하나님 사랑이자 사람 사랑이다.

---

[23]Hans Küng, 166.

[24]Ibid., 168.

그러나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꼭 같다는 말은 아니다. 하나님의 절대 우위권이 보존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 사랑이 하나님 사랑의 수단이나 명목이 되어서는 안 된다.[25] 내가 사람을 사랑하자면 하나님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을 위해서 사랑해야 한다.

(2) 당장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예수의 가르침에 의하면 사랑이란 그저 사람 사랑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웃 사랑이다. 일반적으로 멀리 떨어진 사람에 대한 막연한 사랑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가까운 사람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 이런 측면에서 교회는 교회 바깥의 대상들을 향한 화해자의 역할은 물론 교회 내의 구성원들을 보다 면밀히 관찰하며 구체적으로 화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다. 초대 교회 내의 히브리파와 헬라파 간의 구제 문제를 둘러 싼 갈등이 구체적인 실례이다. 교회 내부의 갈등을 수습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교회 외부를 향한 화해의 움직임은 실제적인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공허한 시도가 되고 말 것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공통분모는 이기심 탈피와 헌신 의지다.[26] 내가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살지 않을 때 나는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열어 놓을 수 있고 하나님이 나 자신과 다름없이 인정하는 남에게 나를 한계 없이 열어 놓을 수 있다. 누가 나의 이웃인가? 예수는 개념을 정의 하거나 율법을 인용하지 않고 한 예화로 대답한다.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그것이다. 이 예화의 메시지는 당장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 이웃임을 밝히고 있다. 이 예화에서는 “누가 나의 이웃이냐”는 첫 물음이 마지막 되물음에서 “내가 누구에게 이웃이냐”는 방향으로 뚜렷이 전환되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웃의 정의가 아니라, 구체적인 곤경에 마주쳤을 때 인습적인 도덕률 이전에 바로 나에게 기대되는 사랑의 절실성이다. 화해자란 바로 이 사랑의 절실성을 안고 당장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하기 위해 다

---

[25]Ibid.,175.

[26]Hans Küng,Ibid., 177.

가가는 자를 의미한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각기 당면한 상황에 따른 능동적인 처신, 건설적인 발상, 단호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화해자가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3) 원수도

예수의 가르침에 따르면 사랑이란 이웃 사랑일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원수 사랑이다. 그리고 사람 사랑이 아니고 이웃 사랑도 아닌 원수 사랑이야말로 예수의 남다른 점이다.[27] 예수의 두드러지게 남다른 점은 체질화된 동지, 비동지의 한계와 분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예수의 관심사는 동포나 교우가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서나 만날 수 있는 이웃이다. 자기 혈족, 자기 민족, 자기 인종, 계급, 당파, 교회라는 자기가 속한 사회 집단의 구성원만 두호하고 다른 사람들은 배격하는 그런 개방성이 아니다. 어떤 경계선이든 모두 극복하는 제한 없는 개방성이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하나님의 뜻과 인간 복지, 하나님 섬김과 사람 섬김을 하나로 보고 철저한 용서와 봉사와 포기를 앞장세운 것이 예수께서 제시하신 화해자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4) 화해와 사랑의 정신

하나님 나라의 선포자요, 구현자로서의 예수의 삶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가로놓인 모든 장벽을 허물고 진정한 화해의 가교를 놓는 메시아적 화해자로서의 삶이요, 원수까지도 포함한 무제한적 사랑을 선포하고 실천하는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의 실현자로서의 삶이다.[28]

예수의 인간 사랑의 정신은 그의 하나님 사랑 위에 기초하고 있다. 다윗 왕국의 재건을 꿈꾸던 유대 민족주의자들의 시야 중앙에는 영광 가운데 도래하는 메시야의 왕국이 있었고, 아브라함의 후손됨을 자랑하던 경건한 유대인들의 시야 중앙에는

[27]Ibid., 179.

[28]성종현, *신학총론* (서울: 장로회신학대학 출판부, 1992), 261.

선민 이스라엘의 엘리트 사상이 놓여 있었다. 그러나 메시야 예수의 시야 중앙에는 바로 인간이 있었다. [29]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정신이 바로 용서로 앞서가는 사랑의 정신이요, 또한 화해로 앞서가는 끝없는 평화의 정신이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마 5:23-24, 44-45). 이 산상수훈의 메시아 예수가 그를 따르는 과거와 오늘의 모든 제자들에게 제시한 삶은 인간 사랑과 화해의 정신을 우리가 속한 세상 속에서 실천하는 삶이다.[30]

오늘 날 첨예화된 갈등과 대립의 현상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일치와 화해의 사역으로 부르고 있다. 일치와 화해의 작업은 반드시 거창한 프로그램과 구호나 깃발 아래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속에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능력이 담겨 있다고 말한다(롬 1:16).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치유와 용서의 열매가 맺게 되고 화해와 일치의 결과가 나타난다.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오늘도 그리스도의 화해의 사역은 계속되어 간다.

본회퍼는 "성경에 게시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세상의 삶 가운데에 진정으로 현존하시고, 현실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 안에서 이 세상을 위하여 교회로서 실존 하신다"고 하였다. 특히 본회퍼는 그의 저서 '제자의 길'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란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참여하면서 자기에게 계시된 이 그리스도를 따르게 된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제자는 교회의 삶 속에 들어가지 않고는 이 일을 할 수 없다. 신자란 그리스도 안에서, 즉 교회 안에서 하나님에의 순종에로 단호히 부름받아 진정으로 이 세상을 위하여 실존하려고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주장한다.[31]

---

[29]Ibid., 261.

[30]Ibid., 262.

[31]이형기, *본회퍼의 신학사상* (서울: 장로회신학대학 출판부, 1991), 184.

필립스에 의하면 제자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을 의미한다.[32]

“제자의 길이란 그리스도에의 귀의를 의미한다. 그리스도에 귀의한 신자들은 이 그리스도로부터 제자의 길을 가도록 요구받는다. 추상적 기독론, 교리체계, 은혜와 사죄에 대한 일반적인 종교적 지식에 있어서는 제자의 길은 쓸데없는 것이 되며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생각에 배치된다... 살아계신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는 제자의 길이 없는 기독교가 될 수밖에 없으며 제자의 길이 없는 기독교는 항상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이다 .”

본회퍼의 윤리는 은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제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다.[33]

“ 이제 우리는 왜 신약성경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같이 되라고 명령하는지 알 수 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모습에로 개변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될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이시다.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우리 안에 사신대로 살아야 하며(요일 2:6), 그가 행하신대로 사랑하여야 하고(엡 5:2, 요 13:34;15:12), 그가 용서하신 거처럼 용서해야 하며(골 3:13), 우리는 그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빌 2:5) 이렇게 하는 것이 그의 모범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의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형제를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주어야한다.(요일 3:16). 그리스도께서 우리처럼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될 수 있다.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미지에 초점을 맞춘 제자의 길을 분별없는 마음으로 걸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

본회퍼는 산상수훈 풀이에서 교회와 세상을 날카롭게 대립시킨다.[34] 그의 말을 통해 우리는 참된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과 나아가서 세상과의 대립이 강조되고 있음을 발견한다.

“애통하는 자는... 제자들과 무리들의 간격은 더욱 현격해진다. 여기에서 예수

---

[32]Ibid., 185.

[33]Ibid., 186.

[34]Ibid., 194.

님이 뜻하시는 애통이란 세상이 평화와 반영이라고 부르는 것과는 상반된다... 세상은 미래의 발전과 능력을 꿈꾸지만 제자들은 종말 심판, 최후 심판,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명상한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낯선 사람들이 되었고, 불청객이 되었고, 평화를 파괴하는 자들이었다. ... 이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분과의 사귐 속에서 슬픔을 걸머진 자요 이 세상에서 낯선 자로 머물렀다."

본회퍼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에 관련하여 말하기를 "이 의란 제자들의 의로운 판단과 행동을 의미한다. 제자들은 이것 때문에 무리들과 다르다. 이미 이들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하여 소유를 포기했고, 행운, 권한, 의, 명예, 힘을 포기하였다. 따라서 이 세상은 이런 제자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제자들은 바로 이 의 때문에 핍박을 받았다. [35]

성경은 제자들 내지는 참교회란 "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라고 말씀한다. 이때에 이 '빛과 소금'은 그리스도인(교회)이 수행해야 할 명령(imperative)이기 이전에 구원의 선물(indicative)이다. 이 '빛과 소금'에 관해 본회퍼는 말씀 설교 같은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전 실존이 참여해야 할 것을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제자들, 곧 교회는 가시적 공동체이다.[36]

화해를 추구하는 움직임, 즉, '일치에 대한 참된 열망'은 그간 에큐메니칼운동의 형태로 나타났다. Adolf Vissert Hooft는 용어 에큐메니칼(Ecumenical)을 세 가지 의미로 설명한다. 첫째, 교회의 전 세계적 선교를 함축하는 의미, 둘째, 둘 이상의 상이한 교회(서로 다른 신앙 고백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나 통일성을 뜻하는 의미, 셋째, 그리스도인의 통일성에 대한 의식이나 바램을 표현하는 감정이나 태도 등이다.[37] 성서적 Ecumenism 이나 현대주의 Ecumenism의 차이는 없다. 다만, '복음의 원칙에 부합한'이라는 전제를 분명히 하고 있을 뿐 있다. 그렇다면 추구해야 할 화해의 방향성은 '선교', '교회연합', '교회구성원간의 일치'에 놓여 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세속적인 시대정신과의 대결을 위해서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내

---

[35]Ibid., 195.

[36]Ibid., 195

[37]Cornelius Van Til, 이승구, 306.

용에 대한 근거 있는 확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교회는 시대정신에 야합해서는 안 된다. 또한 교회는 근본주의자들처럼 시대정신과의 대결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교회가 근본주의와 다원주의의 양자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신앙과 이성의 연대"에 있다. 신앙과 이성의 연대를 통해서, 세속주의와 다원주의에 저항하고 교회의 고유한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이 때, 신앙과 이성의 연대란, 신앙을 이성의 빛에서 검증하고, 신앙의 빛에서 이성의 한계를 규정하며, 이성으로 하여금 더 큰 진리의 빛 아래서 자신을 보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앙과 이성의 연대란, 결코 신앙을 이성과 혼동하는 것이 아니다. 신앙의 진리가 이성적으로 해명되어야 하며, 신앙의 진리의 빛 아래서 철학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이성의 한계를 드러내고자 한다.

세속적 문화세계가 이생의 삶의 성취만을 알고 있는 반면, 기독교의 진리는 하나님의 실재성과 함께, 하나님의 인간세상을 향한 요구를 선포하며, 저 세상에서의 새로운 삶을 선포한다. 인간에 대한 사랑과 헌신은 기독교의 진리 안에서는 하나님의 실재성 아래 놓여있다. 기독교의 부활에 대한 희망은 세속사회에 대해 충격적인 효력이 있을 것이다. 기독교의 진리의 주 관심은 이 세상의 삶을 위한 희망이 아니다. 교회가 자신이 소유한 복음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 교회는 사도들이 전해준 그리스도의 메시지의 내용에 확신을 가져야 할 것이다.

B. 성서적 분석 1

1. 성서적 의미에서의 화해자 이해

1)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

예수의 제자 공동체는 자신을 참 이스라엘로 이해했다. 예수의 제자 공동체는 다양한 역사적 경험과 시간을 통해 비로소 자신을 참된 이스라엘 뿐 아니라, 새 이스라엘로 이해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해의 토대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 경험 속에 근거한 신앙, 즉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결정적인 종말론적 구원의 사건이 일어났다고 고백하는 신앙이었다. 그들에게는 구약성서의 약속이 성취되었으며, 종말론적인 영이 주어졌고, 메시야의 도래에 근거한 희망, 즉 하나님의 지배가 곧 완성되리라는 희망이 주어졌다. 그들은 비록 외적으로는 옛 이스라엘과 전혀 구분되지 않았지만, 이미 새 이스라엘이 되어 있었다.[38]

이런 의미에서 초대 교회는 민족 전체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었지만, 나름대로 발전의 소지가 있는 독특한 형태들을 갖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세례, 공동의 기도 예배, 공동체의 종말론적 공동 만찬, 사도들의 독자적인 공동체 지도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물고 진정한 의미에서 화해의 복음을 실천하는 토대를 놓았다고 할 수 있다. 초대교회는 살아있는 사랑의 공동체였다. 이 공동체는 상호적인 봉사와 공동의 고난, 때로는 공동의 소유를 통해 화해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다.

유대의 혈연관계와 구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는 어떻게 다른

---

[38]Hans Kŭng 정지련, 145.

가? 문제가 된 것은 이방인들을 받아 드리는 형태, 즉 할례와 모세의 율법에 대한 의무가 전제되어야 하느냐의 여부였다. 화해 공동체로서의 초대교회는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스라엘 민족의 메시야로 고백함으로써 옛 하나님의 백성과 결합되어 있었다. 바로 이러한 고백이 믿지 않는 민족과 종말론적 공동체를 분리시키는 토대가 되었다.[39]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개념은 이스라엘인들의 핵심적인 신앙이다.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인들의 신앙은 다음의 한 문장에 압축되어 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며,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이다. 바로 이러한 신앙고백은 하나님이 모세를 파송한 의미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써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출 6:6-7). 이러한 신앙고백은 시내 산에서 이어진 계약의 의미이기도 하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출 19:5-6) 이러한 신앙고백에는 또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계약의 의미가 담겨 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레 26:9,11-12)

이 계약은 인간 사이의 계약과는 다른 삶의 공동체를 의미한다. 이 백성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일은 이 백성의 일이 된다. 이 백성의 승리와 행복은 하나님의 명성과 명예가 된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약 백성에게 생명과 승리를 선사하셨다. 이스라엘은 계약의 하나님께 영광과 복종을 드려야 할 의무가 있다.[40]

2) 성령의 피조물로서의 교회

---

[39]Ibid., 150.

[40]Ibid., 158.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원과 해방으로 체험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갈 5:1),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요 8:36) 신앙인에게 있어 이 자유는 환상이 아니라 현실이다.

누가 진정 자유로운 자인가? 외적인 모든 억압과 위협으로부터 자유롭다 할지라도 아직 자유로운 것이 아니다. 본질적으로 자유를 위협하는 것은 내면에서, 즉 그 자신에게서 나타난다. 그러나 실제적인 측면에서 인간에게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가 있는지를 질문할 필요가 잇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롬 7:18-24)

이런 의미에서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야말로 자유자이며 화해자다. 자신의 힘으로, 자기 자신에 의해,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하며 이웃을 위해 살려는 사람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다. 화해자의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이 자유함의 누림에서부터 시작되며 이 자유함을 세상과 함께 공유하려는 움직임으로 구체화된다고 할 수 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유의 능력을 상실한 부자유한 인간을 자유롭게 만드시며, 해방하신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의 종’을 ‘죄로부터 자유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실 수 있다.

하나님은 자유로운 새 인간, 예수 안에서 모든 인간들에게 참된 새 자유에 이르는 길을 약속하셨고, 열어주셨으며, 창조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된 인간은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니다”(고전 6:19). 그는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살며, 보이는 무상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 것에 의지한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 이것이 바로 화해자의 삶이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갈 5:13) . 새 자유는 이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의무를 의미한다. 새 자유는 새 ‘섬김’(롬 7:6),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김’(살전1:9), ‘그리스도를 섬김’(롬 14:18;16:18), ‘서로 섬김’(갈 5:13, 고전 9:13) 등을 의미한다.[41]

기독교인의 자유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자유다. 참된 자유는 결코 무분별한 자유가 아니다.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전 8:9). 기독교인은 다른 자를 섬긴다(고전 9:19, 갈 5:13). 그러나 자유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독립성 의무, 힘과 포기, 자립성과 봉사, 주인 됨과 종 됨 등이 역설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기독교인의 자유다.[42] 바로 이러한 자유의 핵심이 '사랑'이다. 사랑 안에서는 믿음이 역사하며(갈 5:6),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차이가 사라진다. 사랑 안에서는 주인이 종이 되며 종이 주인이 되고, 자유가 의무가 되며 의무가 자유가 된다. 화해자의 길은 바로 이 시랑의 바탕 위에서 준행할 수 있다. 화해자는 늘 사랑의 빚진 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갈 6:2). 하나님과 이웃에게 구속되어 잇는 사람은 참된 자유로 해방된 사람이다. 그가 바로 화해자이다.

자유는 하나님의 선물이다.[43] 자유의 근원과 근거는 인간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은혜의 자유 속에 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타자를 위한 삶을 살았으며, 하나님에 의해 해방되고 높임 받음으로써,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갈 5:1)

성령은 인간 위에 홀로 존재하는 초월적인 영이 아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관계와 은사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자신이다. 즉 자기 자신을 선사하지만 결코 인간의 마음대로 조작할 수 없는 힘, 생명을 창출하는 힘이다. 성령은 은혜의 힘으로서 인간의 내면, 아니 전 인간을 지배하며 그의 내면에 현존하고, 인간의 영에 역사한다는 점에서 하나님 자신이다.[44] 화해자의 삶을 실천하는 것은 성령의 역할을 이해하고 수행해 나가는 과정이다.

성령은 공동체와 개인, 즉 세례를 통해 공동체에 받아들여진 개인이 마지막 때에 받게 될 종말론적 은사다. 마가와 마태는 구약성서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비범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누가는 성령이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에게 지속적으로

---

[41]Ibid., 211.

[42]Ibid., 216.

[43]Ibid., 227.

[44]Ibid., 227.

주어지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45] 바울은 성령이 특정한 부가적 행위를 위한 특별한 은사만이 아니라, 신자의 실존 그 자체를 규정하는 것임을 명백하게 밝힌다. 성령 없이는 종말론적 새 실존도 없다는 것이 바울의 주장이다. [46] 바울의 성령 이해는 전적으로 구원 사건에 의존한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종말론적 전환을 의미한다. 교회와 개인에게 선사된 하나님의 영은 종말이 이미 시작되었고 성취되었지만, 아직 종결되거나 완성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징표이다.[47] 이런 차원에서 에클레시아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백성,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백성이다. 종말론적인 개념 속에서 화해자로서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은 성령과 교회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3)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예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모으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원하신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세상 속에서 경험하는 딜레마는 무엇인가? 사도바울이 이방인에게 나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모든 것이 화목 되었다는 선포를 하자마자 그는 오히려 반대에 부딪쳤다. 이에 대해 바울은 자신의 배타성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는다. 성경적 에큐메니즘은 은혜로만 말미암는 구원에 근거한 것이다. 은혜로만 얻는 구원을 선포하는 참된 교회라면, 그 교회는 인간의 공적으로도 (by work)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을 당연히 받아들을 수 없을 것이다. 비성경적 에큐메니즘은 '인간적 공로에 의한 구원'에 근거한다. 비성경적 개념의 에큐메니즘은 '은혜로만 말미암는 구원'을 포함시킬 정도로 관대하지 못하다.[48]

---

[45]Ibid., 229.

[46]Ibid., 230.

[47]Ibid., 233.

[48]Cornelius Van Tu, 302.

2. 화해자의 역할에 대한 성서적 근거

1) 화해의 성서적 의미

화해에 관한 명시적 가르침을 추출할 만한 본문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바탕으로 화해의 신학을 추론해야 한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관계 속에 살도록 되어 잇다. 이런 점에서 인간은 삼위일체 안에 끊임없이 교제하는 세 인격이신 하나님과 닮았다.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와 사랑이다. 로마서 11:22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엄위하심을 보라"고 말한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중요한 일을 하기 원하며 동시에 친밀함을 누리기 원한다. 이 이중적 성품이야말로 평생 대인 관계의 수많은 측면이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이유다.[49]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사도들이 이해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대 화해자요, 세상에 이미 오래 전부터 약속된(사 9:5-6;57:19;60:17-18;겔 34:25;37:26;슥 9:8-10;암:13-14) 메시야의 종말론적 '구원의 평화'를 이 땅에 구현한 하나님의 평화 그 자체이다(엡:4-18).[50]

성서적 진리에 입각하여 세상과의 화해를 추구한다는 것은 실제적인 면에서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사도바울이 이방인에게 나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모든 것이 화목 되었다는 선포를 하자마자 오히려 그는 반대에 부딪쳤다. 성서적 의미에서 '화목케 한다'는 정의는 과연 무엇이며, 화목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자.

놀랍게도 성경에는 화해에 대한 직접적 가르침이 거의 나와 있지 않다. 구약성경에는 단어조차 등장하지 않는다. 신약성경에도 그다지 나을 것이 없다. 화해에 관한 중심 본문은 인류와 하나님의 화해를 다룬다. 이것이 화해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 요지다. 화해에 대한 중심 본문이란 바로 고린도후서 5:17-21이다.[51] 이 본문은 하나님과 화해하고 나아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도와야 한다

---

[49] Everett I. Worthington, Jr., 218.

[50] 성종현, 27.

[51] Everett I. Worthington Jr., 215.

는 우리의 소명에 철저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신약성경의 주요 관심은 인간과 하나님의 화해다. 인간 상호간의 화해는 세 곳밖에 나오지 않는다. 에베소서 2:16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하심이라”에서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역사적으로 서로를 별개의 두 백성으로 알았으나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두 백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백성으로 연합하여 화목하게 되었다고 했다.[52]

복음의 진리는 세상에게는 ‘배타성’으로 비쳐질 때가 많이 있다. 교회가 세상과의 화해를 위하여 양보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한계를 규정하는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근본적으로 성경의 가르침은 화해의 주제에 있어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이들에게 하신 것이라”(행2:39). 그러나 동시에 복음을 통한 화해에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는 자들을 향하여는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롬9:7).

이런 차원에서 성서에 나타나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화해의 추구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살펴보고, 오늘날의 교회 상황과 비교해 보면서 그 원인과 해결책을 모색해 보자. 일례로 로마서에 등장하는 로마교회의 모습을 분석할 수 있다. 로마서 16장은 특히 로마의 기독교 공동체가 서로 다른 인종적, 지방적 배경을 지닌 매우 다양한 가정교회들로 구성된 복합적인 모임이었음을 보여준다. 이런 차원에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목전에서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다수 이방 기독교인들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과 한 교회 안에서 함께 하도록 도와주며, 동시에 기독교에 반대하는 대다수 유대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다.[53]

성서가 증거 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상실되고 빼앗겼던 인간의 인간됨을 되찾아 주는 인간 회복사요, 인권회복의 역사이다.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인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부활 그리스도

---

[52]Ibid., 216.

[53]김세윤, *바울서신 (강의록)*, 87.

인들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신-인공동체'회복 운동사의 궁극적 목표이다.[54]

화해자가 된다는 것은 복음의 배타성은 고수하되 결코 세상을 향하여 배타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측면에서 화해자가 모색할 길은 복음을 고수하면서도 동시에 어떻게 세상과 온전히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느냐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여기에 교회의 고민이 있다. James F. Engel 은 교회의 사명을 '복음전파'와 '온전한 매개체 역할'에 두고 있다.(The Church is both message and medium, exemplifying and proclaiming the kingdom of God.) [55] 세상의 복음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복음 자체에 대한 거부감일 수 도 있으나, 동시에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태도에 대한 반감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복음 전달의 매개체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에 요구되는 것이 화해자로서의 자기 역할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다.

2) 화해자의 역할에 대한 성서적 근거

초대교회에 최초로 나타난 봉사활동은 구제 사업이었고 이를 전담키위해서 집사(Diakone) 제도가 생기게 되었다. 사도들이 말씀 전파하는 일이 바빠서 봉사하는 일까지 제대로 돌볼 수 없게 되자 과부들에게 식량을 배급하는 봉사활동을 원활히 유지하기 위해서 일곱 집사들을 뽑게 된 것이다(행 6:3). 집사의 어원이 봉사자(Diakone)인 것은 우연이 아니다. 교회사적으로 볼 때 이 전통은 사도시대를 지나 로마제국에서의 지하교회나 콘스탄틴 대제 이후의 카톨릭 교회, 동방교회에서도 계속 이어져왔다. 감독의 위촉을 받아 남녀 집사들이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버림받은 자들을 구제하고 돌보는 일을 교회의 중요한 과제로 삼고 실천했다. 이와 같은 전통에 비추어 볼 때 오늘 날의 교회는 구제 기능이 많이 약화되었다. 화해자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대 교회의 구제를 통한 섬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

[54]성종현, 280.

[55]James F. Engel, Contemporary Christian Communications (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ers, 1990), 30.

집사들에 의한 개인 구제만으로서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다 돌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미 4세기, 5세기의 로마제국 교회들이 가난한 이들을 한 곳에 모아다 수용시설을 갖추고 돌보는 수용소(Hospital)제도를 도입했다. 처음에는 집 없는 외부인들을 자고 먹게 하는 수용시설로 출발했지만 차츰 여행객들의 수용시설 밖에도 고아들의 수용소, 환자들의 수용소, 노인들의 수용소들이 생겼으며 이것이 고아원, 병원, 양로원이 생기게 된 유래였다.

교회의 봉사사업은 이러한 전통 위에서 늘 가난하고 고통당하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구호해 주는 사업들로 발전했다. 병원, 고아원, 양로원 사업은 전형적인 봉사 사업이었지만, 이 밖에도 난민 구제사업, 피난민 구호사업, 유치원, 청소년센터, 장애자 복지시설, 감옥에 갇힌 자들을 돕는 기관, 미혼모나 독신여성들, 윤락녀를 돕는 사업 등으로 발전해 간다. 그 대상과 구호의 방법은 다양하게 발전하지만 고통당하며 결핍된 자들을 구호한다는 사회구호적인 봉사활동이었다는 점에서는 고대나 중세 현대교회의 봉사가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봉사의 개념이나 활동내용은 교회사적 전통 속에서도 항상 사회구호적인 차원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우선은 가난하고 병든 개인들을 돕고 돌보는 일이 급선무였지만, 차츰 가난과 질병과 고통의 사회적 원인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조를 개선하고, 변혁시켜야 한다는 생각과 주장들의 나타나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진보적인 생각은 서구에서도 19세기에 와서야 나타나게 되며 이러한 생각이 교회의 봉사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고, 사회구조를 개혁하는 봉사나 선교의 활동이 나타나는 것은 20세기에 들어와서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음(Social Gospel)운동이나, 종교사회주의(Religious Socialism)운동, 혹은 에큐메니칼 운동에서 나오는 책임사회(Responsible Society)운동이 교회의 봉사활동을 사회구조를 개선하는 선교적 봉사로 발전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화해자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마땅하게 여겨지는 자신의 권리를 복음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대상’ 혹은 ‘약한 자’ 앞에서 그들이 동질감을 느끼도록 행동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 구체적인 실례를 보여주고

있다.[56] 사도 바울이 보여 준 화해자로서의 모습은 그가 처했던 상황을 생각해 볼 때 더욱 의미하는 바가 크다. 고린도와 같은 곳은 복음 전파에 결코 유리한 토양이 아니었다.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고린도는 '많은 신'과 '많은 주'를 섬겼다(고전 8:5). 이런 상황에서 그가 "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고전 2:2)는 표현은 오늘 날의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여전히 지녀야할 '메시지'에 대한 강한 자각을 일깨운다. 메시지의 선포하는 과정에서 바울이 복음의 수혜자들에게 보여준 태도는 개방적이고 유연한 반면, 복음의 전달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는 단호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으로 자유를 남용하지 말 것, 고린도인의 생활의 부도덕성, 제사 음식에 관한 것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자비를 위하여 자기의 자유를 솔선하여 제한하였으며 회심자들에게도 이 점에 관하여 자신을 본보기로 삼아 그렇게 해주기를 권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자발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그것을 기회로 하여 복음의 은혜와 성령의 자유에 대해 위협이 가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다.[57] 이처럼 건강한 교회공동체를 회복하려는 화해자의 노력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며 동시에 인간 중심이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로마서 14-15장의 자료는 강한 자와 약한 자의 문제를 언급하며 이방그리스도인들과 유대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옳은 복음'에 근거하여 서로 잘 화합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 현대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교회 안에서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구분은 교육정도, 사회적 지위, 재산 정도 등의 기준에 의해 이루어질 때가 많다. 그러나 성경적 의미에서 '강한 자'와 '약한 자'는 복음을 얼마나 온전히 이해했는가의 정도로 구분된다. 이런 의미에서 화해자는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안에서 자기역할을 발견한 자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롬 15:1).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짐을 짊어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

[56]고전 9:20-22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

[57]F.F.Bruce, 정원태, *바울신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7), 278.

한다(갈 6:2). 예수의 법에 대한 새로운 특징은 로마서 12:9-21에서 확실시 된다. 여기서는 산상설교와 밀접한 신실하고 실천적인 사랑에 대한 명령을 담고 있다. 신자들 상호 간의 사랑과 동정 및 존경이 기대되어야 한다. 심지어 그들의 원수들과 박해자들에 대한 사랑과 용서까지도 포함한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롬 12:17)는 말은 마태복음 5:44과 누가복음 6:27의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는 말과 동일한 정신을 호흡하고 있다.[58]

대인관계에서의 화해에 대한 중심 가르침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온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는 팔복을 말씀하시고, 이어 율법을 폐하지 말고 완성하라고 선포하셨다.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는 것에 대한 몇 가지 예시를 보이셨다. 그 분은 전통적 율법에 입각하여 살인하지 않는 것을 훨씬 넘어서서, 형제를 미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다. 이 가르침의 강조점은 자신이 피해를 입힌 사람이 있거든 주도적으로 나서서 화해하라는 것이다. 자신이 가해자일 경우 주도적으로 나서서 화해에 힘써야 함을 보여준다.[59]

고린도후서 2:5-11에서 바울은 범죄한 사람을 계속 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고 권한다. 바울은 그들이 누구를 용서하면 자신도 그러하다고 말한다. 바울이 말하는 바는 정서적 용서보다는 결단의 용서일 것이다. 정서적 용서는 '베푸는 것'이 아니라 정서의 변화를 통해 경험하는 것이다.[60]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는 두 사상이 대립하고 있었다. 세계 보편주의와 유대 특수주의의 대립이 그것이다. 이러한 신학적인 대립은 결과적으로 공동체들 사이의 대립과 갈등으로 발전하면서 초대교회 역사 전체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오늘 날의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갈등을 해결하고 화해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초대교회 내에 형성되었던 두 사상의 내용을 점검하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

[58]Ibid., 112.

[59]Everett I. Worthington, Jr. 윤종석, 217.

[60]Ibid., 217.

(1) 예루살렘 유대교적 기독교공동체(The Jewish-Christian Community in Jerusalem)

예루살렘 유대교적 기독교공동체의 초기 역사와 그 신학적인 입장을 자세히 재구성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다만 사도행전에 나타난 몇 가지 사건을 종합해서 그 흐름의 큰 줄기들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우선 사도행전 5-6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동체의 초창기에는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한 예수의 제자들이 지도권을 형성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15장을 보면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주의 형제"라고 불리는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그 회의를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이후에는 바울서신이나 그 밖의 교회전승이 이 야고보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적 기독교 공동체의 지도자로 부각시키고 있다. 이 사실로 우리는 주후 30년부터 50년 사이의 어느 때엔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지도권의 변화가 있었고 그 결과로 베드로 같은 예수의 제자들은 소아시아 등지로 흩어지고 예루살렘 기독교 공동체는 주의 동생 야고보가 단일지도체제를 형성한 것으로 추측된다.[61]

이 사이에 일어난 예루살렘 공동체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주는 사건이 바로 행 6장에 나오는 히브리파와 헬라파와의 갈등이다. 여기서 '히브리파'는 아람어를 말하는 유대인들을, 그리고 '헬라파'는 그리스어를 말하는 디아스포라출신 유대인들을 가리킨다. 사도행전은 이 두 파 사이의 직접적인 갈등의 원인을 과부를 구제하는 문제였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상의 이유일 수 있다. 문제의 근본적인 뿌리는 두 계파가 취하는 신학적인 입장의 차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아람어 문화권에 속하는 히브리파 사람들의 신학은 보다 전통적인 유대교 신학에 가까워서 율법준수나 이방인에 대한 문제에 있어 유대 특수주의적인 입장을 취했을 것이고, 그리스 문화권에 속하는 디아스포라 출신 헬라파 사람들의 신학은 자연히 세계 보편주의적인 경향을 취했을 것이다. [62]

---

[61]갈 1:18에 의하면 바울이 회심 후에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베드로를 제외한 모든 사도들이 이미 떠났고 주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중요한 인물로 부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62]박응천, *세계를 향한 복음-설교를 위한 사도행전 연구* (서울: 한국 성서학연구소, 1997), 28.

이 같은 추측을 가능케 하는 것이 행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다. 이 스데반의 설교는 그가 성전과 율법을 모독한다는 유대인들의 비난(행 6:13)에 대한 답변으로 주어진 것인데, 스데반 개인의 견해를 밝힌 것 이라기보다는 어떤 계파의 신학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설교라고 할 수 있다. 즉, 7:48-53에서 스데반은 이사야서의 글을 인용하면서 중심을 잃은 유대교의 성전제의(temple cult)에 대하여, 그리고 율법의 중심 사상을 망각하고 그 외적인 준수만을 고집하는 율법주의적인 유대인들에 대하여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바로 스데반의 이러한 비판이 그와 예루살렘 공동체에 대하여 큰 박해를 불러 일으켰고 그 결과 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전역에 흩어진 것으로 되어 있다.[63] 그런데 8장 이후를 보면 결국 예루살렘 기독교 공동체 사람들 중에서 박해를 받아 흩어진 사람들은 헬라파 사람들이고 히브리파 사람들은 박해도 받지 않고 흩어지지도 않았음을 알 수 있다.

(2) 구원 보편주의를 향한 준비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역사가 그 사상적인 흐름에 있어서 초기 유대 특수주의로부터 구원 보편주의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사도행전은 특별히 초대교회의 두 지도자의 회심 사건을 부각시킴으로써 초기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삼고 있다. 사도행전 9장의 바울의 회심, 10장의 베드로의 회심이 바로 그것이다. 바울의 회심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유대인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건이며, 베드로의 회심은 유대특수주의에 사로잡혀 있던 유대인-그리스도인 베드로가 구원 보편주의에 입각한 세계교회 그리스도인으로 변하는 사건이다. 이 두 사건이야말로 초기 기독교공동체의 신학적인 흐름을 결정지은 중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독립된 헬라파 기독교 공동체 및 바울 공동체의 생성과 확산을 통해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신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어떻게 세계를 향한 교회로 발전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화해자로서의 교회공동체라는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은 내부적으로는 탄탄한 결

---

[63] 행 8:1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속의 기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는 보다 포괄적인 포용성 있는 교회공동체를 형성하는 기회로 작용하는 것이다.

(3) 예루살렘 사도회의와 안디옥 사건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게 된 헬라파 사람들은 사마리아와 시리아, 소아시아 지방으로 흩어져 선교활동을 벌여 적지 않은 성공을 거두게 된다. 이들의 선교활동의 대상은 이방인들을 포함시킨 것이었는데, 이들은 원래부터 세계 보편주의를 지향하면서 율법문제와 이방인 문제에 대하여 개방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이에 반해 유대 특수주의를 지향하는 예루살렘의 유대교적 기독교공동체의 지도자들에게 헬라파 기독교인들의 선교는 율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을 것이다. 이것이 교회 안에 큰 논쟁을 야기 시켰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안디옥 교회의 대표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야고보의 주재 하에 회의를 갖게 된다.[64] 이 회의에서 논쟁과 타협 끝에 두 개의 다른 선교영역과 두 개의 다른 복음이 인정되었다.[65]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할례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차적으로 헬라파 기독교 공동체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유대 특수주의와 세계 보편주의가 대립하다가 처음으로 세계 보편주의가 교회 안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사건이라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태도는 복음의 내용은 시대와 환경을 초월하여 불변하는 것이지만, 복음의 전달방식은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민감하게 변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화해자의 삶을 추구한다는 것도 복음의 내용에 대한 타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 보다 유연하고 포괄적인 태도를 취해야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도회의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무할례의 복음'을 부정하고, '할례의 복음'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며 그리스도인들도 정결례를 비롯하여 율법이 규

---

[64] 행 15장, 갈 2:1-10.

[65] 갈 2:7에서 바울은 이것을,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할례의 복음'이 베드로에게, 이방인을 위하여는 '무할례의 복음'이 자신에게 위임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정한 모든 사항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들이 팽배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발생한 사건이 바로 안디옥사건이다. [66] 안디옥 사건은 초기 기독교의 역사전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의 하나이다. 이 사건은 예루살렘 사도회의의 경우와는 달리 헬라파 기독교 공동체가 지향하는 유대 특수주의가 충돌하여 아무런 타협점을 보지 못하고 양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예루살렘과 바울 간의 오랜 갈등의 시작을 의미하는 사건이 되었다. 안디옥 사건이 발생한 때는 아마도 예루살렘 사도회의 직후인 것으로 추정된다.[67]

갈라디아서 2:12에 의하면 베드로는 바울과 바나바와 더불어 다수의 이방인들을 포함한 안디옥교회의 교인들과 함께 식탁교제를 나누고 있었다. 그런데 그 때 '야고보로부터 온 어떤 이들'이 그 곳에 나타나자 베드로가 그 '할례파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식탁교제로부터 물러나 자리를 피했다고 한다. 여기서 품게 되는 의문은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식사를 같이 하면서 자신이 정말 율법을 어기고 있다고 생각했을까 하는 문제다.

먼저 '야고보로부터 온 사람들'이 도착하기 전에 안디옥교회의 유대인들, 특히 베드로, 바나바,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하여 세계 보편주의적 입장에 서서 양심의 거리낌 없이 교회 내의 이방인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을 것이다. 반면에 야고보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유대교적 기독교 공동체의 경우 상반된 입장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안디옥 사건은 예루살렘 사도회의 이후 처음으로 기독교회 안에서 유대 특수주의와 세계 보편주의가 충돌하는 사건이 되었다. 그런데 갈 2:13에 의하면 베드로는 그가 새롭게 인식하게 된 세계 보편주의적 원칙에 입각하여 행동하지 못하고 유대 특수주의에 굴복하여 식탁으로부터 물러났으며 심지어 바나바도 여기에 동조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 이유는 갈 2:12에 나타났듯이 '할례파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당시 야고보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유대교적 기독교 공동체의 영향력이 얼마나 막대했는지를 반영하는 것으로써 이 사건이후 바울이 겪어야 할 어려움을 암시해 준다. 화해자의 길을 추구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의

---

[66]갈 2:11-14.

[67]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는 이방인의 할례 문제가 현안으로 되어 있으나, 바울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안디옥 사건에는 이미 이 문제가 타결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안디옥 사건은 예루살렘 사도회의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축적으로 이루어지는 앎의 문제가 아니라 의연히 변화된 가치관대로 문제에 대처하는 삶의 문제인 것을 밝혀주고 있다.

(4) 바울공동체의 형성과 구원 보편주의의 확산

행 16장에 의하면 바울은 제2차 선교여행 중에 갈라디아교회를 세우고, 마케도니아에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다. 그 후에 고린도에 1년 반 정도 머물면서 목회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는 바울공동체가 형성된 것이다. 이 바울공동체는 바울의 구원보편주의적 신학의 영향으로 무할례의 복음을 기초로 하여 세워진 교회이다.

이 바울공동체는 유대 특수주의를 견지하고 있는 팔레스틴의 유대교적 기독교공동체와 대립하게 된다. A.D. 50년대 초반에 바울공동체가 겪은 갈라디아 사건과 고린도 사건은 바로 이런 신학적인 대립에 의해 야기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외부로부터 교회 안에 침입한 유대주의자들(Judaisers)이 한편으로는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또 한편으로는 무할례의 복음을 기초로 하고 있는 바울의 신학에 반대한 것이다. 즉, 바울공동체가 지향하고 있는 구원보편주의와 극단적인 유대교적 기독교공동체가 견지하고 있는 유대 특수주의 사이의 신학적인 갈등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처음에는 갈라디아교회와 고린도교회가 모두 유대주의자들에게 설득당하여 바울을 배척하고 바울이 전한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복음을 버리고 할레와 율법준수를 기반으로 하는 구원신학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어한 위기에 직면하여 바울은 서신들을 통하여 자신의 사도권을 보호하고 자기가 전한 복음을 재천명하였다. 이러한 바울의 노력이 갈라디아교회에 어떠한 결과를 미쳤는지는 잘 알 수 없다. 그러나 고린도후서가 다시 바울에게 돌아와 바울의 사도권과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것으로 추축된다. 이것은 바울공동체 안에서 구원 보편주의가 유대 특수주의의 신학적인 도전을 극복하고 승리하였음을 말해주는 단편적인 예가 될 수 있다.

사도행전은 바울의 구원 보편주의에 입각한 선교가 기독교공동체 내에서의 신

학적인 갈등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회 밖에서도 진정으로 세계를 향해 확산되어 가는 '세계를 향한 복음'의 발판을 마련하였음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화해자의 정체성은 복음주의적인 발판 위에서 사도행전적인 역사를 지속해 나가려고 하는 구원 보편주의와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3) 코이노니아와 화해자의 삶

(1) 성서에 나타난 코이노니아의 정의

'코이노니아' 라는 단어는 칠십인 역 구약성경에 단 일회만 등장한다. 레위기 6:2(히 5:21)에 '맡겨진 것'(that which is deposited)이라는 말의 의미상의 번역이다. 그리스, 로마 문화권 속에서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교제, 친교, 협조, 구제, 관계, 관대함, 도움, 참여, 나눔 등 다양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이 낱말의 뜻은 상호간의 관계, 즉 서로 주고받는 관계를 말한다. 법률적 관계에서는 계약, 공동소유나 소유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을 서로 주고받는 친교를 뜻하기도 한다. 따라서 코이노니아란 대체로 물건, 사람, 신들과의 관계성을 나타내는데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신약성경에서 코이노니아라는 참여,교제,사귐,동정,동무,연보,나눔,공급 등 의 의미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대체로 참여(15회), 교제(14회), 구제(6회)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그러므로 신약성서에서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성도들 간의 교제를 뜻하는 것으로 사용된다.

코이노니아란 교회론으로 집약되는 용어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이웃과 함께 나누며 교제하는 공동체적인 삶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구약에서도 계약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은 계약의 하나님과 교제하며 백성들은 상호간에 연대적 책임감을 감수할 것을 요청받고 있다.

(2) 시대별로 살펴 본 코이노나아적 공동체 유형

(가) 족장시대의 신앙공동체적 삶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과의 계약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형제우애를 나누며 만민에게 복을 끼치는 기능을 감당했다(창12:1-3). 가족단위의 형제들간에 간혹 갈등이 있었으나 야곱과 에서가 극적으로 화해했고(창32장), 요셉과 그 형제들은 요셉의 관용에 감탄하기도 하였다(창 50:20). 그러나 부족원들이 부족과의 유대관계가 끊어지면 생존의 보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빈자가 되고 소외자가 되었다. 성경에서 이런 혈연유대 관계가 끊어진 자들을 과부, 고아, 떠돌이로 구분했다. 성경 속에서는 이들은 항상 하나님의 관심사가 되었고 이웃의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자들로 구분되고 있다. 이 시대의 특징은 사유재산이 없었으므로 최소한 부족 내에는 재산의 불균형이나 불평등이 없었다. 빈익빈이나 부익부라는 갈등구조도 없었다. 혈연 공동 운명 공동체이므로 모두가 형제자매요 한 조상의 후손들로 여겨졌다.

(나) 가나안 정착시대의 신앙공동체적 삶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약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앙공동체로서의 출발을 하게 된다. 정치, 사회적으로는 애굽의 군주제와는 구별되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섬기는 신앙공동체로서 백성들 상호간에는 구별과 차별이 없는 공평과 정의에 바탕을 둔 공동체였다.[68]

가나안 정착단계에 신앙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을 고백할 때 내재하는 신앙적 힘과 동시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사회적 신앙적 구조나 가치체계를 견고히 하는데 공헌한 자들의 능력 때문이었다. 이전의 구조나 가치

[68]신 17:14-20.

체계란 땅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 이방인이나 채무자, 과부, 고아 등 소외된 자들을 보호하는 것,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 노예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69]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신앙적으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공동체였고 정치사회 경제적으로 정의와 평등한 사회였다. 가나안 정착 후에 각 지파 간에 공평하게 분배된 재산은 인간적인 노력과 공로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라 하나님에 의하여 주어진 것이었다. 따라서 레위기 25:23절에 의하면 땅의 소유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땅은 영구히 판매가 금지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손님으로 주인과 함께 거하고 있을 뿐이라고 언급되어 있다. 그러므로 족장시대에는 땅과 같은 일정한 고정재산이 없었으나 가나안 정착 이후에는 고정된 땅이 공평하게 분배되었고 그 다음에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그들의 노력과 지혜로 재산을 더욱 증식시키는데 힘을 기울였다. 다시 말해 지파간의 소유의 한계는 하나님에 의해 공평하게 정해졌다는 것이고 타인의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신 19:14)는 말은 하나님이 정해준 한계를 침범하지 말라는 뜻이다. 지계표를 옮긴다는 말은 이웃의 땅은 물론 하나님의 땅 소유권까지를 침범한다는 말이다.

(다) 왕정시대의 불신앙 공동체적 삶

사사기 후반부에도 부족 간의 평화는 유지되었다. 그러나 외부 민족의 침입을 부족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었으므로 부족들은 다른 나라의 경우와 같이 인간의 왕권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이런 요구는 결국 하나님 통치를 거부하고 인간 왕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불신앙의 행위로 전락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그들의 구원자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명령인 정의의 신앙공동체 구현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다윗이나 히스기야나 요시아왕 같은 몇몇 임금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고 왕국 전의 신앙공동체를 와해시켰고 정

---

[69]출 21:1-11; 신 15:12-18; 레 25장.

의와 공의가 없는 사회로 전락시키는 원인을 제공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경제적 불균형을 조장시키는데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다윗왕국 출현과 함께 공동소유 재산은 사유재산 형태로 탈바꿈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 당시에도 약속의 땅은 판매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땅의 분배균형은 유지되었다. 그러나 각 지파에 속하지 않은 땅, 즉 가나안 원주민이 사는 땅은 판매소유가 가능했다.

이 시대의 특징은 군주의 출현으로 권력에 의한 재산의 편중이 심화되어 빈익빈 부익부의 사회구조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또한 자급자족에서 도시화로 인해 물물교환의 시장경제가 나타나면서 부의 사유화 편중을 가속화 시켰다. 초기 이스라엘 생활이 유목이동 생활이었다면 왕정시대에는 도시 정착시대였고 과거에는 씨족윤리라면 이제는 국가윤리 체제로 전환되어 있는 자의 지배층과 없는 자의 피지배층으로 종속관계가 형성되었고 과거의 혈연연대 의식이 와해되어 동족을 타인으로 간주하는 비인간화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자본주의(Capitalism)의 전 단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빈부의 차이가 심하고 가난한 자들이 속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예언자들은 빈부격차가 극복되고 사회 경제정의가 실현되는 정의사회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빈익빈 부익부의 격차는 더욱 심화되어 왕정말기에 시드기아 왕은 재산의 원상회복을 위한 50년에 한 번씩 실시되는 희년(Jubilee year)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70] 그러나 이런 국가적 조치도 실패로 돌아가고 주전 586년에는 이스라엘 왕정이 막을 내리는 비운을 맞게 되었다.

(라) 포로 후기의 신앙 공동체적 삶

포로기의 이스라엘 신앙공동체는 이방인에게 빛을 발하는 사명을 띤 신앙공동체로써 간주되었다. 바로 이방세계에 공의를 세우며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었다.[71] 특히 수난의 종을 섬김의 모델로 삼아 하나님의 뜻을 수행함을 그들의 사명으로 자각했다.[72]

---

[70]렘 34:8 이하.

[71]사 42:4, 사 43:12.

이 시대는 피지배하에 모두가 재산을 잃은 상태이므로 삶은 무소유형태의 공동체적 삶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전 6세기부터 바벨론의 지배이후 계속되는 이민족의 통치를 경험하면서 유대공동체는 피지배인의 생활로 인한 고통이 지속되었다. 포로귀환 이후에도 무소유적인 삶의 형태는 계속적으로 이어졌다. 결과적으로 왕정시대의 부익부 빈익빈의 구조가 사라졌다. 모두가 빈자이므로 빈자일수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이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이 되었다. 반대로 지배자인 외국인들은 우상을 쫓고 불경건한 자들로 인식되었다(사 63:9 이하). 이렇게 경제적으로 착취하고 억압하는 이방인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원수를 갚아 주신다(삼하 31:39; 렘 50:4). 그러나 세월의 흐름 속에 안정과 부를 축적한 계급이 생겼으니 이들은 사제계급이다. 이들은 제정일치 사회구조 속에서 국가 전반생활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고 종교세를 받음으로 부를 향유할 수 있었다. 이 종교지도자들이 새로운 지배 계급으로 등장한 셈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같이 하나님의 계약 공동체가 계약의 율법준수 여부에 따라 신앙공동체로 존속했던 시대도 있었고 불신앙 공동체로 존속했던 시대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역사를 통하여 얻게 되는 분명한 교훈은 하나님의 계약 정신을 깨닫고 바르게 반응하는 공동체만이 존속했다는 사실이다. 화해자의 삶을 강조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범적인 공동체의 삶의 유형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시대적 요구에 바르게 반응하자는 요청으로 바라볼 수 있다.

---

[72] 사 53:1-11.

C. 성서적 분석 2

1. 구약의 제사에 나타난 화해자 사상

1) 구약에 나타난 5대 제사의 일반적 고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제사 제도를 자세히 알려주신 사건이 갖는 종교적 의미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화해 행위를 의미한다. 인간은 타락한 이래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도 알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방법으로 제사 제도를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화해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구약에 제시된 5대 제사의 정신을 날마다 새롭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한 예배의 차원을 뛰어 넘어 삶이 예배가 되게 하는 반영의 과정을 통하여 화해자의 삶은 구체적으로 구현될 수 있다.

제사 제도를 계시하신 사건은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하신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상징한다. 구원의 방법과 대상까지도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와 주권 아래서만 가능한 것이다. 화해자의 삶을 실현한다는 것도 이런 차원에서 바라볼 때 인간의 방법을 배제한 하나님의 방법에 근거한 것이 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구약에 나타나는 5대 제사를 화해자의 삶을 반영하는 틀로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1) 번제 (The Burnt Offering, 레 1:3-17)

'번제'란 말의 히브리어 원어 עֹלָה는 '올라간다'는 뜻으로 온전히 헌신함을

의미한다. 단 위에서 불사르는 행위는 멸절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 제물을 태워서 더욱 온전하게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다.[73] 번제는 드리는 자의 헌신을 나타내는 제사로써 누구나 드릴 수 있다. 즉 가난한 자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잇도록 하기 위하여 소, 양, 염소뿐만 아니라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도 예물이 될 수 있었다. 이것은 제물의 가치에 따라 열납되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자의 정성과 믿음이 제물에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74]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번제물로 드려야 할 존재라고 말하고 있다.(롬 12:1–2) 번제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드리는 제사이며 자기 헌신과 감사를 표현하고 화해를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드려졌다.[75]

사람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 제물을 가지고 회막 문에 섰을 때, 제사장은 안수하고 드리는 자의 모든 죄를 고백한다. 이때 안수란 제물 드리는 자와 제물과의 연합과 일체를 의미하는 죄의 전가를 의미한다(레 16:21). 속건제가 특수한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라면, 번제는 보다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죄의 용서를 의미한다.[76] 나아가 번제는 죄의 용서, 복종이나 감사의 행동으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전적인 헌신을 의미한다. 번제는 여호와께 완전한 복종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길을 걷겠다는 약속의 제사이며 예물에 의해 존경을 표시하는 것이다. 번제는 모든 제물을 하나님께 완전히 불살라 드리는 것으로서 온전한 헌신의 의미로 드려진다.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으나(빌2:6)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이 죽기까지 내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엡5:2).

번제에는 늘 드리는 번제인 ‘상번제’와 개인적으로 드리는‘일반 번제’가 있다.[77] 이스라엘이 집단적으로 제사장을 통하여 매일 아침 끊임없이 드려야 하는 제사와 때를 따라 개인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드리는 제사로 구분된다. 일반 이스라엘 자녀들

---

[73]Geerhardus Vos, *Biblical Theolog (* Eerdmans Publishing CO, 1980), 186.

[74]강병도, *QA시스템 성경연구 시리즈* (서울: 기독지혜사, 1986), 15.

[75]김희보, *구약 이스라엘사* (서울: 총신대출판사, 1981), 116.

[76]정규남, *구약개론*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85), 112.

[77]출 29:38-46, 레 1:1-17, 29:39 참조

과는 별도로 제사장은 아침과 저녁으로 늘 번제를 드려야 했다. 상번제의 제물은 오직 흠 없는 수양이어야 하며(민 28:3,4), 또 일년 된 어린 것이어야 한다(출 29:38). 양은 온유, 겸손뿐만 아니라 순결과 인내와 순종을 나타내는 동물로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제물로서는 가장 완전히 나타내는 것이었다.[78]

(2) 소제(The Cereal Offering, 레 2:1-16)

'소제'란 히브리어로 מִנְחָה인데'선물'이란 뜻이다.[79] 소제란 육신의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헌납하는 제사이다. 짐승의 희생을 수반하지 않고 주로 토지의 소산으로 구성되어 노동의 열매를 뜻하는 유일의 제사이다(레 2:1-16, 16:14-23).

소제는 소출의 '첫 이삭'(레 2:14)이나 고운 가루로 만든 무교병(레 2:1, 4)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이다. 소제에 누룩과 떡은 사용하지 말고 기름과 유향과 소금을 쳐서 화제로 드리라고 했는데, 이는 누룩과 떡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음을 상징하며 기름은 성령을, 향은 기도를, 소금은 하나님께 대한 신자의 순결성을 상징한다. 봉사와 희생 등의 의미로 드려지며 성도의 희생 제물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신 것을 암시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으나 또한 인간으로 오시어(요1:14),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빌2:7), 겸손한 모습으로 수고 하셨다.

소제는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다. 소제를 번제 후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번제를 통해 죄를 용서해 줄 때, 그 제사 드리는 자는 그 답례로 소제를 통해 그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 또한 소산물에 대한 감사를 표현할 뿐만 아니라, 율법에 복종하고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3) 화목제(The Peace Offering, 레 3:1-17)

'화목제'란 말의 히브리어 זֶבַח שְׁלָמִים은 '화평의 제사'란 의미이다. 이 말은 '감사제'(thanks-offering) 혹은 '구원제'(saving-offering)라고 불리운다.

[78]김희보, *구약신학논고*, 172-173.

[79]수 22:23,29, 삿 13:19,23, 왕상 8:64, 왕하 16:13,15 참조.

שְׁלָמִים은 '친하다','보답하다'등의 뜻을 갖고 있는 말에서 나왔다. 따라서 화목제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보답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제사로 볼 수 있다. 결국 화목제의 목적은 구원과 관계되어 있다. 즉,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이 제사를 드렸고 때로는 구원을 열망하는 기도의 자세로 드렸으며 불행한 일을 당할 때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하는 자세로 드렸다. 화목제에 대한 예언적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도와 하나님 사이의 평화를 나타내는 데 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화목을 위해 희생됨을 의미한다.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화목하고 기쁨을 얻게 하기 위해 희생하셨다.(롬3:25; 골:1;20).

화목제를 잡아 피를 뿌리기 전에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잡을 것이며"(레 3:2)라고 했는데, 특별히 제사장이 안수할 때는 그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의 죄를 고백하면서 안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피 뿌림이 있기 전에 먼저 회개함이 있어야 했다. 모든 죄를 회개할 때 그 피를 뿌려 사하고 그 후에 하나님과 깊은 은혜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화목제의 제물로 쓰였던 동물은 번제와 같이 흠이 없는 소, 양, 염소 등이다. 번제와는 달리 수컷과 암컷이 다 사용되었으나 새는 드려지지 않았다.

화목제를 드리는 자가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한 후에 잡아서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라고 했는데, 특히 피를 뿌린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레 3:2,13,8). 그 의미는 화목제가 비록 속죄제는 아닐지라도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를 대속하는 피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화목제의 정신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의롭다고 인정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된 모습을 감출 수 없다. 피를 뿌리는 제물인 소와 양과 염소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나타내는 그림자이다.[80] 이 제물의 피와 하나님과의 화평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화목제가 번제나 소제와 구별되는 점은 화목제는 감사드리는 자가 필요할 때 드리는 선택적인 제사이며 제물 일부를 먹을 수 있다는 점이다. 화목제는 제물 일부

[80]김희보, 175.

를 불사른 후 일부를 제사장이 먹고, 일부는 제사 드리는 자에게 먹도록 드려 보내진다. 이런 의미에서 화목제는 하나의 축제 형식의 제사였다. 화목제는 피를 뿌려 드리는 제사이며, 번제나 소제와 같이 불태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를 나타내는 제사이다.[81]

화목제는 절기와 또는 집단적인 경사가 있을 때(레 23:19, 삼상 11:15, 삼하 6:17), 그리고 화목제물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며,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들과 함께' 먹으며 기쁘게 드려졌다(신 12:6, 7, 11, 12, 18). 이것은 화목제가 하나님과의 화평은 물론 구원받은 성도들 사이의 화목을 위한 교제임을 가리킨다. 화목제의 특징은 그 제물을 나누어 먹는다는 데에 있다. 일부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시로 단에서 불살랐고, 일부는 제사장들에게 돌려졌으며 일부는 드리는 자와 그의 가족이 나누어 먹었다. 히브리어 명칭은 '화목'혹은 '복지'를 뜻하는데 화목제는 때때로 교통 혹은 교제의 의식으로도 간주되었다. 그 전체를 놓고 볼 때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과 그의 이웃들 사이의 바른 관계를 지속시키고 그것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소망의 표시로 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이 화목의 소망은 어떤 종류의 서원과 함께 드린 제물(레 22:21)이나 감사제(레22:29).혹은 자의로 드리는 예물(레22:21)로도 표시될 수가 있었다. 그 제물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개인의 감사를 뜻하거나 아니면 단순히 자발적인 헌신의 표시였다.

화목제를 드릴 때에는 세 가지 예물을 드리는 순서가 있다. 즉, ①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일(감사제), ②서원의 예물을 드리는 일(서원제), ③자원의 예물을 드리는 일(자원제)이다(레 7:15, 16). 이것들은 문자 그대로 감사와 즐거움과 서원을 제물로 표현하는 제사이다. 특히 이와 같은 화목제의 상징적 내용은 화해자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누리는 친밀한 관계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연결시켜 나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화해자의 길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차원이며, 빚진 자의 심정으로 세상을 향해 되갚는 과정이며, 타의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자발적인 선택의 과정인 것이다.

---

[81] 레 1:9, 2:2, 3:5,16 참조

(4) 속죄제(The Sin Offering, 레 4:1-5:13)

속죄제는 히브리어로 חַטָּתא인데'죄'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속죄제의 의미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법규의 과녁을 벗어난 죄의 결과로 부터 청결과 자유를 얻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이다.

속죄제는 부지중에 혹은 실수로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이다(레 4:13, 22, 27). 그러므로 속죄제는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와는 달리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드려야 할 제사이다. 속죄제는 속건제와는 달리 범죄 한 일을 배상할 수 없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린 제사이다.[82] 속죄제는 이스라엘이 범한 죄를 속함 받기 위해서 드려지는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상징적으로 암시해 준다.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을 앗아가는 죄에 대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죄를 속죄하시고 사망에서 인간들을 구원하셨다(롬4:24; 히9:14,22).

속죄 제물은 드려지는 제물의 크고 작음을 막론하고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흠 없는 수송아지(레 4:3), 흠 없는 숫염소(레 4:23), 흠 없는 암염소(레 4:28), 흠 없는 암양(레 4:32)이라고 했다. 이처럼 흠 없는 것이어야 함을 강조한 까닭은 이 제물들이 장차 허물과 죄가 없으신 영원한 제물이 되시는 메시야를 암시하기 때문이다(히 9:14).

속죄제의 제물은 몇 개의 차등이 존재하는 것이 특징이다. 제물의 차등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배려 때문이었을 것이다. 가난한 자들에게는 고운 가루 에바 십분의 일이 속죄 제물로 허락되었다. 이것은 피 없는 제물을 피 있게 하여 드리는 하나의 방편으로써 피 흘림을 통하여 속죄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가난함을 인하여 죄 함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동시에 충족시키고 있는 것이다.[83]

속죄제사 방법으로는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라" (레 4:11, 12)고 했다. 구약에서 진 밖이라고 함은 저주받은 자가 버려지는 곳으로서 장차 오실 메시아의 수난의 죽음을 상징한다.

---

[82]원용국, *성막과 십계명* (서울: 성광문화사, 1982), 88.

[83]사 52:3, 사 55:1 참조.

(레 10:4, 14:40, 45, 24:23 참조).

(5) 속건제(אָשָׁם, The Tresspass Offering, 레 5:14-26)

속건제를 가리키는 히브리어는 אָשָׁם이다. 이 말은 죄(sin)가 아니고 범죄(guilt), 범법(tresspass), 손해(damage)들을 의미한다. 이것들은 생활 질서를 파괴하는 반사회적, 반문화적, 반규범적 행위이다. 그러므로 속건제는 신앙의 양심과 행위와 생활 속에서 어긋난 모든 문제를 규제하고, 바로 치료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84] 속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마땅히 바로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타인에게 덕을 세워야 할 것이나, 그렇지 못하고 범죄 하였을 때 그 범죄를 사유하는 제사이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함과 의로움을 떠나 부정과 불결함을 입었을 때 그것에서 성결함을 가지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속건제가 속죄제와 다른 점은 집단적인 경우가 아니라 언제나 개인적인 것이었다.[85] 그리고 성별하여 성결케 하는 제사이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와 신앙 양심상 정당하게 범죄에 대한 보상으로 치르는 법이다.[86] 속건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을 삼고자 함에 있으며, 보편적으로 속건제는 인간이 인간에게 지은 죄를 사함 받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라 한다.[87] 속건제는 제2의 속죄제라고 할 수 있다. 속죄제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죄악 때문에 드리는 것이다.[88] 속건제는 성물이나 기타 물품에 대하여 죄에 대한 속죄와 갚음을 위해 드리는 제사인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범한 죄와 범과를 속하고 갚기 위해서 희생되셨다는 것을 암시한다.

5대 제사 중 소제 외에 모든 제사는 피 뿌림으로 드려진다. 이것은 피로 죄의

---

[84]원용국, 95.

[85]김희보, *구약 이스라엘사,* 119.

[86]원용국, 94.

[87]*표준성경주석, 레위기* (서울: 총회교육부, 1957), 184.

[88]박윤선, *레위기, 총회성경주석* (서울: 영음사, 1971), 69.

속죄를 위한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 성도들은 죄를 범할 때 마다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를 믿고 (엡1:7; 히9:14; 요일1:7), 자신의 범한 죄를 자백하여 하나님의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요일1:9). 그리고 번제와 소제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헌신과 봉사를 상징하며, 화목제는 성도의 감사의 기쁨과 서원, 자원의 헌신 등을 위해 드려지는 제사이다. 따라서 오늘날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아(고전11:1) 온전한 헌신과 봉사와 희생의 삶을 살아야 함을 교훈해 주고 있다. 화해자의 삶은 자신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과정이다.

2) 5대 제사 속에 나타난 신학적 원리

(1) 속죄의 원리

희생 제사의 두 가지 목적은 속죄(expiation)와 성별하여 드림(covering)이다. 구약의 제사는 그 어느 종류든지 속죄적 요소와 독립된 것이 없다.[89] '속죄'라 일컫는 것에 대한 율법의 용어는 가리움(consecration)이다. 이 말의 정확한 상징적 개념은 죄의 오점과 그 불결함이 그 위에 발라진 피로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제거된다는 것이다.

특히 번제의 경우 '각을 뜨라'(레 1:6)는 요구는 불에 잘 타도록 하기 위한 것과 온전한 헌신을 나타내기 위한 것 등의 의미가 있다.[90]속죄제의 요소들을 보면 먼저 죄인이 등장한다. 그는 하나님께 범죄하고 사람에게 악행한 자이다. 그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허용된 그 종류 중에서 흠 없는 것이어야 했다. 흠 없는 수송아지(레 4:3), 흠 없는 수염소(레 4:23), 흠 없는 암염소(레 4:28), 흠 없는 암양(레 4:3)을 선택하게 되었다. 이처럼 속죄의 제사에는 흠 없는 제물이 강조된다.

제사 의식의 중요한 단계는 동물이 성소에 끌려온 후에 드리는 자가 머리에 안

[89]Ibid., 156.

[90]강병도, Ibid., 18.

수하는 것이었다. 안수는 언제나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의 전이를 상장한다.[91] 죄를 전가 받은 동물을 죽이는 것은 죽음이 죄의 형벌임을 희생 제사를 통해 대속적으로 상징하는 것이다.[92] 소제를 제외한 모든 희생제사에서는 동물의 피로 인한 대속이 강조되었다.[93] 레위기 17장 11절은 또한 율법의 어디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대속 원칙의 가장 분명한 진술을 내포하고 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특별히 화목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십자가는 구속의 의미와 더불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화목을 비롯해 이방인이 한 몸이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화목제의 의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화목과 평화를 나타낸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같은 의미인 것이다. 오늘 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자들이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과의 화목에서 뿐만 아니라 성도 개개인 사이에서도 서로 화목하며 용서하고 사랑해야 할 것을 의미한다. 결국 진정한 화목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이웃에 대한 사랑에서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94]

(2) 봉헌의 원리(레 17:11)

구약제사의 두 번째 중요한 목적은 성별하여 드림(consecration)이다. "성별하여 드림"이란 히브리어로 מָלֵא인데, "손에 채운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제사장들의 봉헌에 이 말을 사용한다. 봉헌의 목표는 하나님을 위한 선교나 일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다.

레위기 8장에는 네 가지 제사가 있다. ①속죄제의 숫송아지와 ②수양 하나를

91창 48:13, 레 24:14, 민 8:10, 27:18, 신 34:9 참조.

92G. Vos, 164-165.

93사실은 어떤 소제도 선행하는 동물제사 없이는 드려질 수 없는 법칙이 있다. 피 없는 제사는 속죄 개념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속죄 개념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물론 속죄에 대하여 동물 제사만 을 배타적으로 사용함은 그 안에 있는 피에 기인하는 것이다(G. Vos, ibid., p.157).

94 살후 1:3;히 10:24;약 5:9;벧전 5:5.

번제로 ③또 다른 수양 하나는 위임식 제사에 ④그리고 무교병 한 광주리는 요제로 드렸다(레 8:14-29).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제사장들로 성별하여 당신을 섬기도록 부르셨다. 그러나 그들이 경솔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었다. 먼저 속죄의 제사로 그들의 죄를 해결하고, 그 자신이 번제물로서 하나님께 용납되어야만 했다. 그의 두 손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고, 그의 발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며, 그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다. 그래야 그들은 온전히 봉헌된 것이다.

(3) 봉사의 원리

'봉사'란 히브리어 עָבַד는 '대기하다'(waiting on)것으로 그를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께 대기한다는 것을 말한다.[95] 봉사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분이 주신 사명을 수행함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구약에서 하나님께 대한 봉사는 오직 봉헌된 사람에게만 그 자격과 특권이 주어졌다. 하나님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는 제사장의 증표로서 제사장복을 입히도록 명하셨다(레 8:6-13).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에봇을 그 대표적인 예복으로 입었다. 여기서 에봇과 우림과 둠밈 그리고 관유의 기름부음과 허리띠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즉, 성별된 자라도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힘입고 힘써 봉사한다는 원리가 제공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제사장들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봉사하였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인간에게 오셨고, 인간은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것이다. 제사장들의 신성함은 봉사를 위한 선행 조건에 있어서나 성결한 삶을 위한 자격이 있어서나 명백하였다. 화해자적인 삶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완수하는 과정이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봉사를 반영하는 과정이다.

---

[95] *신학사전*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81), 207-208.

3) 5대 제사 속에 나타난 신학적 의미

구약의 5대 제사는 신학적 의미를 가진다. 구약 제사법의 계시는 상징적인(the symbolical) 것과 모형론적(typical) 특징을 가지고 있다. 상징이 그려내고 있는 본질은 그 당시에 존재하거나, 그 당시 상황에 적용된다.

(1) 구속사적인 의미

구약의 제사는 그 어느 종류든지 속죄적 요소와 독립된 것이 없다. 구약의 성도들은 제물 없이 성전에 나갈 수 없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다. 그러나 구약의 제물들은 장차 오는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었다. 황소와 염소의 피는 능히 죄를 없애지 못하였으나 죄를 생각나게 했을 뿐이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예표할 뿐이었다. 그리스도는 모든 제사의 완성이시다. 그분은 구약제사에 계시된 속죄의 원리를 모두 충족시킨 구속주이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죄인사이에서 흠 없는 중보의 제물이 되셨고 친히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사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으심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96]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제물의 완성으로서 우리의 화평이시다(롬 5:1, 요일 2:1-2). 그분은 또한 소제의 완성자로서 친히 아버지를 순종하시는 노력으로 생명의 떡 곧 유월절의 누룩 없는 빵으로 오사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여 내주신 것이다(요일 4:32-34. 6:35, 마 26:26, 고전 11:24).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한 속건제물이 되셨다(사 53:10). 그러므로 우리가 피를 의지하여 우리 죄를 자백할 때마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이다(요일 1:7-9).

---

[96]히 10:11-14, 롬 8:1 참조.

(2) 헌신과 봉사적인 의미

성경 속에서 제사장 직분은 세상과 분리되어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 외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다. 오늘날 구원 얻은 모든 사람들은 모두 제사장들이다.[97]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막 15:38). 여기서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으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길은 새롭고 산길이다. 화해자의 길은 소극적인 타협이 아니라 적극적인 복음전파를 의미한다.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하여 분명하게 열린 구원의 길을 세상에 제시하고 자신의 삶을 헌신된 도구로서 내어 놓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셔서 봉사를 요구한 것이 아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영예요, 영광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기를 섬기도록 허락하셨다는 사실은 참 큰 은혜이다.

오늘날 교회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영적 제사장이다. 화해자는 곧 영적 제사장이다. 누구든지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한 사람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히 5:14)라고 밝히고 있다.

2. 주기도문에 나타난 화해자 사상

1) 주기도문의 구조를 통한 화해자 이해

---

[97]벧전 2:5, 9, 계 1:6, 5:10, 20:6, 갈 2:28, 요 6:45.

주기도문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 운동의 요약이다. 예수 당시에는 메시아가 곧 와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리라는 기대다 유대인들 사이에 팽배해 있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하나님께 새롭게 헌신하고 순종해야한다는 일종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 중 하나가 바리새인들의 운동이다. 이 바리새 운동은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의 제사장 민족으로 보려는 민족적 이상을 실현하려고 한 중산층 평신도 경건운동이라 할 수 있다.[98]

에센파 운동도 또 다른 예다. 이들은 쿰란 동굴에 은거하면서 구약을 연구하고, 서로 새롭게 회개하고 율법을 잘 지키기로 헌신했다. 세례요한 또한 회개에 대한 표징으로 세례의식을 강조하며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준비할 것을 촉구하며 부흥운동을 주도했다.

이런 맥락에서 바라볼 때 화해자의 삶을 추구하는 것은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종말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며 하나님과의 화해, 세상과의 화해를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의 일면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특별히 예수께서는 세례요한이 강조했던 심판에 대비한 극도의 절제적인 삶 또는 금욕적인 삶을 벗어나서 새로운 정신, 새로운 이상, 새로운 소망, 새로운 태도를 표방하며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야말로 화해자의 삶을 추구하는데 있어 계승되어야할 중요한 목표점이 되기 때문이다.

주기도문은 단순한 기도문의 성격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의 성격,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의 정체성을 가장 집약적으로 잘 제시하고 있다. 마태는 이 주기도문을 산상수훈 본문의 구조 한 가운데 즉 핵심에 위치시켜 놓았다.[99] 산상수훈은 크게 다섯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첫째가 마 5:3-16절인데, 소위 팔복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 팔복선언을 통해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심령이 가난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애통하며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밝히셨고, 마침내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여기서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빛, 곧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자라는 의미이다.[100] 즉, 교회

[98]김세윤, *주기도문강해* (서울: 두란노, 2002), 15.

[99]Ibid., 25.

[100]Ibid., 26.

공동체는 하나님의 계시와 구원의 전달자이다. 화해자의 삶의 추구는 바로 이 명령에 대한 깨달음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

둘째 단락은 5:17-48절인데, 소위 반대 어법(antipathical statement)을 통해 새로운 법이 제시된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새로운 원리가 주어지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살인에 관한 법과 간음에 관한 법이다. 이것은 예수의 새로운 법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모세의 법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행위를 유발시키는 동기의 내면적 최대한을 규제하고 요구하는 법임을 보여준다.[101] 이것을 좀 더 극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예수께서는 반대 어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행위의 외적 최소한'을 규제하는 법이 아니고, 그 '행위를 유발시키는 동기의 내면적 최대한'을 규제하고 요구하는 법임을 확연히 드러내는 것이다.[102] 이와 같은 구조를 이해할 때, 화해자의 삶을 추구한다는 것은 소극적인 의미에서 갈등을 표출시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갈등을 해소하고 하나 됨을 추구하는 것이 되어야함을 보여준다. 나아가 화해자의 삶은 자기 자신의 내면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을 바탕으로 하나님 나라의 추구하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발휘될 때 그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단락은 6:1-18절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이 부분은 종교적 삶의 실천들, 곧 경건행위에 대한 가르침이다. 금식, 기도, 자선행위 등과 같은 유대교의 대표적인 종교 행위를 언급한다. 바로 이곳에 주기도문이 있다.

넷째 단락은 6:19-7:11절까지인데, 여기에서 십계명의 제1계명에 대한 예수의 설교가 등장한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헌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상숭배를 배격한다. 특별히 배금주의(Mammonism)을 배격한다. 돈으로 자신의 안녕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우상 숭배를 청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상 숭배를 청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은 곧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자세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화해자의 삶을 추구한다는 것은 소유 중심의 삶을 탈피해서, 존재 중심, 의미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다. 화해자의 존재와 의미의 중심은 다가올 하나님 나라와 예수에 가르침에 집중되어 있다.

다섯 째 단락은 7:12-27절의 단락으로 결론적인 권면에 해당한다. 여기서는

---

[101]Ibid., 27.

[102]Ibid., 28.

열매 곧 행위의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한다. 예수께서 새롭게 제시하시는 법을 듣기만 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요, 이것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 있는 자라는 비유를 제시하신다. 화해자의 삶을 사는 것은 예수의 가르침에 대한 강력한 실천 의지의 반영이다. 이 세상의 삶을 전부로 여기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추구하는 자가 바로 화해자다.

2) 주기도문의 내용을 통한 화해자 이해

(1) 사람에 대한 존중은 하나님 경외에서 비롯된다.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주된 기도문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과 제자도의 삶에 원천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 초월로부터 오는 은혜만이 진정한 소망이며 구원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예수께서는 예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예수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도록 가르치신다. 화해자의 추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정체성의 확인에서부터 출발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라는 뜻이며, 그 분의 그 모든 부요함을 내가 상속받을 수 잇다는 것을 의미한다.[103] 세상을 향한 화해의 추구도 하나님의 자녀 된 자로서의 풍부의식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앎이 전제되는 관계이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를 당시 유대교 사상에 비교해 보면 새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아들이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아도 아버지는 끝까지 신실하다는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의'라 표현한다. 이 하나님의 의가 의롭지 못한 자녀들을 향하여는 용서라는 자비로 나타난다. 화해의 길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바탕으로 탕자

[103]Ibid., 72.

의 형의 입장에 놓이지 않도록 스스로를 살피는 회개의 추구라고 할 수 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사탄의 나라에서 불러내어 회개케 함으로써 의와 믿음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도록 부르러 오신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의 공동체를 창조하고 모으려는 것, 그것이 예수의 하나님 나라 선포이다. 화해자의 사명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 전혀 새로운 시도일 수 없으며 이미 예수께서 선포하신 삶의 목적을 재발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생명에 대한 경외함의 근본이다. 이 시대의 위기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음으로 인해 결국 생명에 대한 경외가 없어지고, 사람들이 서로를 함부로 대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이웃에 대한 존중은 결국 약자에 대한 존중과 생명에 대한 경외심으로 나타나야 한다. 미 6:8절은 하나님경외에서 비롯된 인간의 존중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인자야 하나님께서 네게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늘에 계시는'이라는 말과 '거룩하다'는 말이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경외심을 재차 강조하는 말이다.[104] 예수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은 우리가 가장 힘서야 할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화해자에게 있어 중심이 되어야 할 두 축이 있다면 하나님 경외와 인간에 대한 존중의 축이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라는 청원은 화해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방향성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그 때 동과 서에서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잔치를 베풀 것'이라고 말씀하신다.[105] 화해자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들이다.

(2) 하나님의 통치는 관계의 회복으로 나타난다.

---

[104]Ibid., 86.

[105]마 8:11-12.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은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우선 하나님 나라 선포는 아담의 타락을 전제로 한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오신 분으로서 아담의 잃어버린 통치권을 회복하신 분임을 선포한 것이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라는 청원은 인간 실존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 모든 인간의 문제는 아담의 실존처럼 부요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분리된 것에서부터 비롯된다. 예수의 하나님 나라 가르침에는 창조사상이 전제되어 잇고, 타락사상, 언약사상, 종말 사상이 전제되어 있다.[106]

창조주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셔서 땅 위의 자신의 대리자로 세우셨다. 이것이 사람을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는 말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이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은 하나님의 부요함으로부터 분리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인간 자신의 내적인 자원 안에 갇혀서 피조물의 제한성을 드러내게 된 것이다. 결핍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바라볼 때 세상을 향하여 화해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한 하나님의 부요를 아담적 실존 속에서 여전히 인생의 결핍 속에 놓여있는 자들을 향하여 나누어 주는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소외된 자들이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경험하고 예수께 접붙인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연결고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의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에 대한 좋은 예를 제공하고 있다. 맘몬의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삭개오에게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을 때, 삭개오는 이 복음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드렸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회복은 곧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로 나타나고 있다. 화해자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을 통해 이웃과도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다.

과거에는 삭개오가 이웃을 착취하였기에 이웃은 삭개오를 멸시하고 두려워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을 통해서 이웃과의 갈등을 해결하고 상호 증오와 상호 공포에서 해방된다. 즉, 하나님과 이웃과의 샬롬이 이루어진 것이다. 예수의 치유는 병고침과 축사만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 모아 그들에게 하나님의 죄

---

[106]Ibid.. 112.

용서를 선언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이것이 복음서 근저에 깔린 관계회복을 통한 화해의 내용이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부터 온다. 예수께서 말씀하는 영생은 내용적으로는 아담적 결핍으로부터 해방된 삶을 말한다. 즉 하나님의 신적 부요함으로 이루어지는 삶을 의미한다. 거기에는 결핍이 없다. 하나님께서 결핍을 해결하시는 구체적 방법이 바로 충만(Fleroma)이다. 하나님의 무한으로 이루어지는 삶이다.

하나님과의 화해, 이웃과의 화해를 이루게 된 상태는 아담적인 운명을 극복하고 창조주와 연합되는 것, 그래서 창조주의 초월 곧 신적 생명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Apotheosis). 즉, 인간이 참으로 하나님같이 됨을 의미하는데 예수께서는 그런 구원을 '하나님 나라'라는 말로 표현한 것이다.[107]

(3) 무엇을 의지하느냐의 문제가 하나님 나라 추구의 핵심이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혼인 잔치'에 비유하셨다. 구원을 잔치로 묘사한 것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익숙하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시편 23편, 이사야 25장에 등장한다. 구원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큰 잔치상을 배설하셔서 내 포도주 잔이 넘치는 것으로 묘사한다. 메시야 시대의 하나님 나라는 시온에서 베풀어질 큰 잔치로 제시하고 있다. '잔치'를 통한 '하나님 나라' 이해는 풍요로움과 배부름, 기쁨, 서로 나누고 권하는 사랑을 추구할 것을 촉구한다. 반면 '결핍'으로 특징지어지는 '사탄의 나라'는 욕구불만, 아픔과 슬픔, 끊임없는 반목과 갈등이 존재하는 곳이다. 화해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충만함에 참여하는 것으로써, 하나님적 삶에 참여하는 구체적인 실천을 통하여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단순히 '온다'고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곧 올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을 통해 지금 '실현되어 가고 있음'을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가르침으로 표현하신 것이다.[108] 이처럼 화해자의 길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수동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청산하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보다 적극적으

[107]Ibid.. 118.

[108]Ibid.. 122.

로 섬김과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우리에게 지금 오늘, 날마다 우리에게 그날 필요한 음식을 주시옵소서'라는 뜻이다. 매 순간 하나님께 의지하는 태도를 강조하신 것이다. 더욱 근본적으로는 아담과 대조시켜 말한 것이다. 아담의 타락한 내용은 자기 자신이 자신의 안녕과 행복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자신이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삶'을 확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확대시킬 뿐이다.[109]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청원 속에는 하나님 신뢰의 신앙고백이 들어 있다. 첫째, 기도하는 사람의 신앙고백이 들어 있다. 나의 생명의 연장은 내가 아닌 하나님의 손에 있음에 대한 고백이다. 둘째, "이제 나는 이 양식 청원에 담겨 있는 신앙 고백대로 살겠습니다"하는 서원이 들어 있다. 셋째, 우리에게 그런 양식을 달라는 청원이 들어있다. 아담을 통해 발견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모습은 자기의 일로 자기의 생명을 얻으려는 시도다. 양식청원은 이런 인간적 시도에 대한 포기 선언이다.

화해자의 나눔과 섬김의 삶의 근거는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보장은 고사하고 자기 파멸만을 앞당길 뿐이라는 위기의식에서부터 출발한다.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 비유처럼 소외당하는 이웃을 향한 구체적인 화해의 실천만이 자신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할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화해자적인 삶의 자세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임재를 추구하며 자신의 일과 이웃에 대한 자기주장을 통해 그 열매로 살겠다는 삶의 자세를 지양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초월에서부터 오는 은혜로 살겠다고 하는 고백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다.

(4)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

[109]Ibid.. 137.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이중계명을 실천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하나님 나라는 '은닉성'을 지닌다. 신앙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으로 감추어져 있다. 동시에 하나님 나라는 '필연성'을 지닌다.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므로 자라나게 되어있다. 인간들의 반대가 아무리 심하고, 사탄의 방해가 존재할지라도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예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열혈당식 신학, 열심당식 신학에 반대하고 있다.[110] 즉 억압과 착취의 구조를 타파하려는 시도로서의 무력혁명식의 접근을 반대하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바라볼 때 화해자의 길의 모색은 진보적인 성향의 사회참여와는 구분된다. 아무리 혁명의 기치를 내걸고 시도하는 운동이라 하더라도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자리바꿈만 일어날 뿐이다.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억압과 착취의 구조 자체에는 아무 변화가 없다면 진정한 구원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예수는 하나님 나라가 은닉성과 필연성을 특징으로 온다고 가르침으로써 또 하나 비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바리새식의 경건주의적 소극주의이다.[111] 이 운동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겨우 손 닦고 음식 가리는 정도의 극도의 소극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예수는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 나라 비유를 사랑의 이중 계명을 요약하여 가르치고 있다.[112]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중 계명과 함께 연결시켜 살펴보아야 할 것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말씀이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반대말은 우상 숭배로써 물질주의적 우상 숭배는 이웃 착취로 나타난다. 화해자의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로 매순간 어떻게 오는지에 민감해야 한다. 하나님의 통치는 매순간 가치판단과 윤리적 선택의 순간마다 사랑의 이중계명으로 지금 나에게 다가온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매일 갈림길에 놓이게 된다.

이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말은 맘모니즘의 우상숭배를 거부하

[110]Ibid., 160.

[111]Ibid.. 162.

[112]막 12:25-35.

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의 가르침은 돈을 통하여 안녕과 행복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경계한다. 그것은 이웃을 죽이기는 것이고 동시에 자신에게 죽음을 가져오는 길이라고 말씀한다.[113] 물질에 대한 염려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극복할 수 있다. 산상설교에서 예수는 3번 되풀이하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한다.[114]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신뢰해서 이웃 사랑의 삶을 살라는 것이다.

예수의 요구에 따라 하나님이 통치를 받으면 사탄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고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로서 오는 통치를 받아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 나라의 샬롬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이 길이 사회의 부를 적절하게 재분배하는 길이며, 정의와 자유와 평화를 확대하는 길이며, 자연 환경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길이며, 결과적으로 전 분야에 걸쳐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게 하는 길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는 구체적이다. 화해자의 삶을 확장시켜 나가는 길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한 사람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 앞에 민감하여 구체적인 순종의 행동을 구체화함으로써 겨자씨와 같이 주변부를 점차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해 주겠습니다"라는 청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기본적인 실천 강령이다. 유대인들은 죄를 '하나님에 대한 빚'으로 보았고 '이웃에 대한 빚'으로 보았다.[115] 죄 용서의 청원은 동시에 용서의 서약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점은 화해자에게 요청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빚진 자'라는 의식임을 보여준다. 나의 이웃에 대한 용서의 태도를 동반하지 않는 죄 용서 청원은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는데 "나는 용서를 받지 않겠다"는 식의 태도다. 그러므로 화해자의 길을 선택이 아니라 필연임을 보여준다.

---

[113]Ibid..165.

[114]마 6:24,34.

[115]누가 판의 죄용서 청원 두 번째 부분을 보면,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들 모두를 용서합니다" 라고 되어 있다. (김세윤. Ibid., 168.)

주기도문의 각 청원은 청원일 뿐 아니라 동시에 서약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서약은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결단을 의미한다. 화해자의 길은 결단의 길이다. 화해자의 길은 적극적인 제자도를 요청한다. 그 길은 곧 하나님께 대한 혼신을 다한 헌신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다. 화해자를 통하여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가 지금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다. 누룩 비유와 겨자 씨 비유처럼 사회가 변하고 공동체가 변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덕을 입게 된다.

D. 정의적 분석

1. 갈등 구조 속에서 공통체성 회복을 위한 화해자의 역할

A.W.Tozer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적 성공관이 아닌 기독교적 성공관을 지닐 것을 강조하면서 “오늘 날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신학이 실종된 것 같다. 이제 기독교는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전락한 것 같다”고 통탄하였다.[116] 이와 같은 현상을 교회 안에 적용해 볼 때, 교회 안에서 공동체성을 무너뜨리는 요소는 무엇이며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가를 논하고자 한다.

교회의 공동체성을 붕괴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가 ‘세속적 성공관’이다. 특히 부의 소유여부로 성공여부를 판가름 짓는 세속적 가치관에 비추어 볼 때, 교회 역시 이 부분에 있어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부를 소유하지 못한 자는 패배 의식에 빠지게 되고, 반면 부를 소유한 자들은 부의 축척과정에 대한 정당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성공한 자로 자처하며 도덕적 불감증에 빠져있다. 강력한 공동체를 구축했던 초대교회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분명 오늘 날의 교회는 공동체성을 붕괴시키는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다.

예수의 가르침에 따르면 제자도란 ‘혈연의 단절’과 ‘소유의 포기’를 의미한다.[117] 추종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 부자가 예수를 따르는데 실패한 것은 그가 기꺼이 자기 재산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으로 설명된다. 이 말씀은 부가 아니라 가난이 제자도의 중심임을 나타내 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어떠한가? 일반적으로 부는 삶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생활스타일이나 기회를 다양하게 한다. 부의 소유자체가 소유자에게 특권을 준다. 일반적으로 부는 성공과 힘의 상징이다. “소유는 단순히 인간의 내적인 마음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

[116]A.W.Tozer, 이용복 역, *이것이 성공이다* (서울: 규장, 2005), 29.

[117]서중석, *복음서의 예수와 공동체의 형태* (서울: 이레서원, 2007), 22-25.

권력 게임에 기초되어 있음을 나타낸다."[118] 무엇보다도 인간의 가치를 상징적으로 측정하는 부의 척도는 "재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에도 위기를 초래하기 쉽다."[119]

초대교회가 강한 공동체성을 형성하게 된 원인을 살펴보면, 자발적인 부의 분배가 그 기초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120] 특히 행 5장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기사는 하나님은 그 분의 백성의 집단적 순결과 진지한 전적 헌신의 중요성을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취급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121] 공동체 안에서 자발적인 부의 분배가 이루어질 때 기대되는 시너지효과가 있다. 즉, 개방적 공동작용(Open Synergy)이 그것이다.[122] 전체를 이루는 각 부분들은 함께 작용한다. 각 부분들은 서로 다른 것들을 강화시킨다. 바로 이런 상호 작용 때문에 부분들의 단순한 합으로써는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창조하게 된다. 여러 부분을 하나로 모으는 것과 부분들을 유기적 관계성 속에 통합하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이다. 공동작용은 한 모임 안에서 한 개인의 필요의 충족이 다른 사람의 필요의 충족이며 동시에 전유기체의 필요에 대한 충족이기도 한 상태를 가리킨다.

일례로, 행 6장에 등장하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의 마찰은 단순히 부의 분배와 관계된 갈등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분배의 문제로 인한 갈등이 해결되었을 때 교회는 공동체의 일치와 화해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이다.[123] 이 과정에서 중요한 계기로 작용한 것이 바로 지도자의 의식전환과 일곱 집사의 적절한 활용이다. 건강한 교회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본 연구자의 화해자의 역할 연구는 바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 분석에 의하면 오늘 날 교회가 사회적 신뢰성을 잃게 된 것은 기복적이1며

118L.T.Johnson, The Literary Funtion of Possessions In Luke-Acts, SBL Dissertation Series 39(Missoula, Montana:Scholars Press, 1977), 221.

119John G.Gager, *Kingdom and Community*(New Jersey:Prentice Hall, Inc., 1975), 24.

120행 2:44-45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121Craig S. Keener, 정옥배 외 역, *IVP 성경배경주석* (서울: IVP,1998), 387.

122Howard J. Clinebell, 오성춘 역, *목회와 지역사회*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4), 23.

123행 6:7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내세지향적인 신앙으로 인해 개인의 영혼 구원에 치중한 반면, 이 세상에서의 책임과 공동체적 의무가 약화된 때문이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신다고 고백하면서도 일반적으로는 사회적 모순과 구조 악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이다.[124] 그러나 교회가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 문제에 대한 반성과 성찰 없이 사회에 참여하려는 것은 오히려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교회가 오히려 자기 안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는데 집중하고 진정한 의미의 하나된 공동체의 모습을 형성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써 건강한 사회 참여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우리들은 교회에 대해 염려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종교생활, 즉 진정으로 진실하며, 살아낼 수 있으며, 생산적인 새로운 형태의 종교생활을 발전시키는 작업이 최선책이다.[125]

1) 교회 공동체 내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

오늘날의 사회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적자생존의 법칙이 지배하는 사회다. 힘의 원리가 지배하며 약자는 강자의 처분에 의해 그 운명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팔복은 하나님께서 아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판단하신다는 점을 분명히 말해준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마 5:3)라고 예수는 말했다. 어떤 주석은 이 구절은 "절망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풀었다. 왜냐하면 아무데도 향할 데가 없는 절망한 사람이라야 결국 예수께 향하게 되기 때문인데, 이 예수야말로 그가 찾던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이렇게 볼 때 예수는 정말로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고 슬퍼하는 자, 박해를 받는 자, 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오히려 유리하다고 본 것이다. 만약 절망한 사람이 바로 절망했음으로 해서 도리어 하나님을 향해 도움을 청한다면, 사실은 그 사람이야말로 복 받은 사람이다.[126]

하나님의 관심이 약자를 향하여 열려 있다면 교회 공동체의 관심 또한 그러해

---

[124]Don Cupitt, 박상선, 김준우 역, *예수정신에 따른 기독교 개혁* (서울: 한국기독교연구소, 2006), 12.

[125]Ibid., 30.

[126]Philip Yancey, 김동완, 이주엽,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 (서울: 요단출판사, 2000), 185.

야 한다. 세상적인 의미에서의 강자는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 아래서 도리어 소외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세상적인 의미에서의 약자는 그 힘이 없음으로 인하여 도리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Monika Hellwig는 가난한 자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응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127]

① 가난한 사람은 구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안다.

② 가난한 사람은 힘없는 사람한테도 의존하고 하나님께도 기대지만, 인간이 서로 기대고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도 잘 안다.

③ 가난한 사람은 가진 바 물질에 의지하기 보다는 사람에게 의지해야 하는 존재다.

④ 가난한 사람에게는 부자들이 흔히 빠지는, 턱없는 자만심이라든지 도무지 들어갈 틈이 없는 프라이버시 같은 것이 없다.

⑤ 가난한 사람이란 경쟁에서 기대할 게 별로 없고 도리어 협동하는데 서 기대할 것이 있는 사람이다.

⑥ 가난한 사람은 사치와 필요의 차이를 안다.

⑦ 가난한 사람에게는 끈질긴 인내심이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남에게 의지해서만 지내야 하는 처지에서 자연히 생긴다.

⑧ 가난한 사람이 갖는 두려움은 대개 부자들에 비해 훨씬 현실적이며 덜 과장되어 있다. 가난한 사람은 이미 고생과 부족함 가운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⑨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들으면 그것이 진전으로 기쁜 소식으로 들린다. 반면에 부자들에게 복음은 일종의 위협이나 야단치는 말로 들릴 수 있다.

⑩ 가난한 사람은 복음의 부르심에 확실히 포기하고 복잡할 것 없이 전부를 던지는 헌신을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어떤 일이라도 시도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무엇인가 변화를

---

[127]Ibid., 186.

갈망하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기에 더 적합한 위치에 있다는 말이 된다.

팔복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 실존의 신비를 깊이 있게 드러내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적인 개념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곳이다. 가난한 자, 주린 자, 애통하는 자, 억압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한다. 부유한 사람, 성공한 사람, 외모가 뛰어난 사람은 타고난 재능에 의지해서 인생을 잘 통과한다. 하지만 이런 재능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이 세상에서 성공을 거두기에 저질이 부족한 사람들이므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꿈꾸며 하나님의 의에 지배받기를 소원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요 10:10)고 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그 풍성한 생명을 우리가 기대하기 힘든 방식을 통해 얻는다. 남에게 자기 생명을 내어 줌으로써, 의를 위해 용기 있게 일어섬으로써,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섬김으로써, 의를 위해 용기 있게 일어섬으로써 그리고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함으로써 이 생명은 얻을 수 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발견한 사람이 그것을 얻기 위해 ‘기쁘게’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버린다고 했다(마 13:44).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무엇보다도 더 진정하고 항구적인 가치를 갖고 있으며,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다가올 세상에서도 분깃이 있음을 보장하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예수께서는 우리가 포기해야 하는 것보다는 도리어 우리가 얻을 것에 강조점을 두어 말하고 있다. 이런 깨달음 위에서 비로소 화해자로서의 삶은 올바르게 펼쳐질 수 있다.

(1) 소외와 화해

이 세상에는 주어진 혜택을 충분히 누리고 있는 자도 있는 반면에 그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자들도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환경이나 조건으로부터 소외당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에 의해 소외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교회 안의 상황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 과연 무엇이 인간이 인간을 소외시키게 된 주된 원인인가?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 소외된 것이 인간이 인간을 소외시키게 된 이유다. 칼빈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라면, 하나님의 권위에 결코 항거하지 않았을 것이다. 불신앙으로 인해 교만과 야망이 생겼고 이로 인하여 불순종이 일어났다"고 한다.[128] 원죄가 인간에게 미친 영향은 단순히 어떤 구성 요소들의 부패와 약화가 아니다. "원죄가 일으킨 손상은 인간 존재의 어느 한 부분에만 아니라 몸과 영혼 모두에 일어났다."[129]

이런 차원에서 소외당하는 자를 위해 일한다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몇 가지 외부적인 소외의 원인들을 제거해서 해결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소외당하는 자를 향한 깊은 이해와 함께 화해자의 역할에 대한 복합적인 이해가 필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칼빈의 관심은 아담의 원죄가 어떻게 유전되었는가 하는 데 있지 않고 모든 인간이 하나님 존전에서 죄인이요 심판 하에 있다고 하는 사실에 놓여 있다.[130]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정의적인 차원에서 화해자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한 건전한 위기의식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 나타난 것처럼 인간을 소외시킨 인간의 최후는 하나님에 의해 소외되는 것이라는 종말론적 위기의식의 각성이 요청된다.

(2)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화해자

루터의 동역자였던 Melanchton은 Erasmus와 더불어 율법의 제 3 사용을 강조하였다. 본래 루터는 율법의 제 1사용(신학적, 영적 그리고 고발적 기능) 및 율법의 제 2사용(인류공동체를 위한 기능 혹은 정치적 사용)만을 말했으나 칼빈은 "율법의 제 3사용'을 강조했다.[131]

칼빈은 율법의 제 3사용을 정의한다. "이것은 율법의 주된 기능으로서 이미

---

[128]이형기, *종교개혁 신학사상* (서울: 장로회신학대학 출판부, 1993), 383.

[129]Ibid., 383.

[130]Ibid., 385.

[131]Ibid., 394.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있는 믿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인데, 사실은 이 기능이 율법의 본래적 목적이다." 칼빈은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새 법을 기록하셨다고 한다.(렘 31:33, 히 10:16) 즉, 이미 생명력의 인도하심을 받아 생명력 있게 산다고 했다.

정의적인 차원에서 화해자의 길을 모색하는 것은 "율법의 제 3사용'을 삶속에 강력히 적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저주로 인한 고통에서 이미 벗어난 자들이다.(롬 7;6)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적극적인 차원에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뜻으로서의 율법이 주어진 것이다. 결국 이 길은 성화에 이르는 길이며 현실적으로 화해자가 추구해야 할 길이다.

칼빈은 기독교강요 제2권에서 기독론을 취급하면서 구속(redemption) 혹은 화해(reconciliation)를 취급한다.[132] 그 중심 내용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의 소외를 극복하셨다는 것이다. 기독교 강요 제 2권에서는 인간 밖에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사업을 다루고, 제 3권에서는 이 구속사업 혹은 화해사업의 적용 혹은 실현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성령론을 언급한다. 이와 같은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화해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데 중요하다. 율법의 제 3사용의 폭넓은 적용, 그리스도의 화해 사업을 현실성 있게 계승하는 것과 함께 성령의 역사는 곧 화해자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는 이해를 이끌어 낼 수 있다.

(3) 바람직한 공동체의 운영 원리

교회는 여러 성도들이 모여 위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리고 아래로는 다른 성도들과 더불어서 교제를 나누는 곳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질서의 유지를 위해 일정한 제도를 필요로 하게 된다. 어떤 제도가 가장 성경적인 제도이며, 화해자로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집중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프리머스 형제단, 퀘이커파, 키에르케고르, 우찌무라 간조와 같은 사람들은 사람에 의한 교회 운영 자체를 부정한다. 오순절 이전에는 교회의 조직이나 직원이 없

[132]Ibid.,. 400.

었고, 사람이 교회를 운영하게 되면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일이 생길 수 있음으로, 성령께서 직접 교회를 지도하셔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흔히 무교회주의자라고 부른다. 이들은 인간에 의해 교회가 운영되는 것을 강력히 거부한다.

그러나 교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직원이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성경에는 여러 직원의 명칭과 자격이 언급되어 있다.(고전 12:28, 엡 4:11,12) 교회는 필요에 따라 이 직원들을 선출했고,(행 6:1-7) 교회 구성원들은 그들에게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말씀한다.(딤전 5:17) 또 과부들을 분류하여 질서를 도모했고,(딤전 5:9) 어떤 교회는 연보를 모아 다른 교회에 전달을 하였으며,(고전 16:2) 소개 서신을 주어 사람을 다른 교회에 추천하기도 하였다.(롬 16:1) 뿐만 아니라 질서유지를 위한 규례와 법도를 제정하였고,(고전 11:16) 악한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는 권징이 명령되고 시행되었다.(고전 5:13) 장로의 회(딤전 4:14)나, 예루살렘의 총회도 있었다.(행 15장)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 안에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신다. 그러나 현실적인 면에서 사람들을 통한 교회 운영 방식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한계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며 대처해 나갈 것인가를 정의적인 측면에서 고민하는 것이 화해자가 추구해야할 한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다.

교회가 어떤 지도자나 특정 집단에 의해서 교회 공동체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운영됨으로써, 내부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다. 반대로 교인들의 의견들만 따른 나머지 교회본래의 정체성이나 균형감을 상실하고 특정 다수에 의해 움직이게 되거나 교회의 본래적 존재감에서 멀어져가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러므로 교회 운영에 있어 가장 큰 핵심적 요소는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자질과 교회를 운영하는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교회공동체 안에 실현될 수 있도록 화해자의 사명에 충실하게 임하는 자세가 요청된다.

첫째, 어떤 형태의 교회 운영 방식이 가장 성경적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교인들의 생각과 삶에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다.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 운영 방식은 모든 교인들이 매사에 직접 참여하여 운영하는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가르치거나 다스리는 자에게 마땅한 존경을 표하였으며, 그들의 지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그들은 집사를 선거하여 뽑았다. 집사는 구제와 봉사, 즉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도나 규례에 따라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와는 구분된 직무를 맡았다. 그러므로 교회의 운영은 교인들의 존경을 받는 대표로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교회가 화해공동체로 세워져 나가는 그 출발점은 성경이 제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세우는 것이다.

둘째, 합당한 자질을 갖춘 사람들로 교회를 운영하게 해야 한다. 교회공동체의 대표로 교회 운영을 책임져야 할 장로와 집사의 자격은 딤전 3:1-13, 딛 1:6-9에 잘 나타나 있다. 장로(감독)에게는 책망할 것이 없음, 한 아내의 남편, 절제, 근신, 아담함, 나그네를 잘 대접함, 가르치기를 잘 함, 술을 즐기지 않음, 구타하지 않음, 관용, 다투지 않음, 돈을 사랑하지 않음, 더러운 이를 탐하지 않음, 자기 집을 잘 다스림, 단정함으로 복종케 함, 제 고집대로 하지 않음, 급히 성내지 않음, 의로움, 거룩,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킴, 새로 입교하지 않음 등의 자질이 언급되고 있다. 집사에게는 단정함, 일구이언 하지 않음, 술에 인 박이지 않음, 더러운 이를 탐하지 않음, 깨끗한 양심, 믿음의 비밀을 가짐, 한 아내의 남편, 자신과 자기의 집을 잘 다스림 등의 자질이 요구된다.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성경이 제시하는 기준에 합한 사람인지를 먼저 시험해 본 후에 그들에게 교회의 운영을 맡겨야 한다.(딤전 3:10)

셋째, 교회공동체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교회 운영의 목표를 두어야 한다. 교회의 직원은 세속 권력자와는 달리 하나님과 사람에게 봉사를 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직원들에게는 직임의 차이만 있을 뿐, 우열의 차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엡 4:12)

넷째, 인간적 지식이나 편리주의를 경계하고 교회의 머리되신 그리스도의 뜻을 실천하는 데에 교회 운영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아무리 다수의 일치된 의견이라 하더라도 때때로 그 의견이 인간적인 발상이거나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일 수 있다.

따라서 교회의 운영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 우선적인 목표를 두어야 한다. 아무리 다수의 결정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체가 진리일 수는 없다. 물론 모든 교회공동체의 의견이 효과적으로 반영되는 민주적인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그러나 다수의 의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의 기준을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진리를 위해서는 타협을 하지 않는 용기도 필요하다. 동시에 권한을 남용하거나 무리한 방법을 사용하여 교회공동체 안에 소외되는 자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바람직한 공동체 유형의 실례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총장 은준관)가 주최한 ‘제7회 국제실천신학 심포지엄에 따르면 미국과 한국의 종교적 현황과 기독교가 처한 상황들에 대한 분석과 방향제시가 이루어졌다. 한국과 미국의 경우 공통적으로 대형교회들만 성장하고 있고 소형 교회들은 인적자원이나 물적 자원의 토대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형 교회들은 대형교회의 프로그램을 모방하기에 급급하며, 자기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단순히 대형교회가 되려는 욕망에 젖어 있어 더욱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분석해 볼 때, 목회적인 차원에서 회중정체성의 확립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단순히 대형교회를 지향하는 소형교회의 정체성으로는 결단코 자괴감과 낙심의 굴레에서 탈피할 없기 때문이다. 소형 교회 나름의 이야기(Story)를 형성하고 지역과 소통하는 중심에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회중의 정체성을 확립해야한다는 제언도 제기됐다. 즉 다른 교회들과는 차별화된 독특한 각각의 회중의 구성과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어떤 면에서 소형 교회는 지역사회와 공동운명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런 측면에서 교회가 화해자로서의 자기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심포지엄에서는 무엇보다 발제된 논문과 같은 신학적 배경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서 일선 목회자들의 사례발표가 있었다. 농촌지역에서 26년간 목회한 박

재용 목사(웅포교회)는 어린아이들에게 많은 투자를 하면 지역의 인재를 세운다는 마음으로 교육에 신경을 썼다. 세월이 지나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이젠 도시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주일마다 이 교회를 찾고 있다고 한다.

서울에서 교회당 없는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윤선주 목사(디딤돌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회중이 교회라는 생각으로 교회당 대신 카페를 열어서 공정무역 커피를 판매하고 있다. 이런 일을 통해서 교인들의 의식을 일깨우며 지역사회의 사랑방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의 꿈은 교회를 통한 지역사회 만들기이다.

은준관 총장은 “한국교회가 회중중심 목회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한다. 예수께서 무리를 바라보고 민망히 여기셨듯이 화해자로서의 교회는 회중의 필요를 인식하는 일에 더욱 민감해져야 한다. 교회를 위하여 회중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회중을 위하여 교회가 존재한다는 적극적인 섬김의 자세가 필요하다. 화해자 정신의 적극적인 구현이야말로 이 땅,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앞당기는 동기가 될 것이다.

2. 화해자적 역할 수행으로서의 사회봉사

오늘을 살고 있는 기독교 신앙인에게 있어서 ‘교회의 교회 됨’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은 신앙적이며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이다. 이러한 말은 종교개혁자들이나 그 이외에 경건운동가들에 의해 실천적으로 보게 된다. 경건이란 원래 국가에 ‘충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지만 좁은 의미에서 헌신(Devotion)이라는 말로 대치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화해자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사회를 향하여 어떤 섬김의 삶을 사느냐와 직결되어 있다.

기독교 사회봉사(Diakonia)라는 말은 그리스에서 온 말로 ‘남을 섬기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 날의 교회가 하나님의 정의를 사회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신앙적인 개혁도 중요하지만 렴 사회봉사의 차원에서 개혁의 물꼬를 트는 것이 바람직

하다.

1) 구약성서에서의 사회봉사

구약성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신앙과 예배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기 때문에 사회봉사를 하지 않는 매우 배타적인 민족으로 이해하기가 쉽다. 그런데 구약성서를 자세히 보면 "섬긴다"는 뜻을 갖는 "샤라트"(שָׁרַת)라는 단어가 동사로만 271번이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명사까지 포함하는 섬김을 의미하는 단어는 약 800여 번이나 된다. 섬김의 대상들은 타국인(레19:34)이나 객(레16:29)을 대표로하는 나그네 즉, 이방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재지변이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박해와 불행 속에 있는 사람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기까지 하였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타적인 것만은 아님을 보여 주는 증거들이 된다.

구약성서에서의 예배는 일상생활이 뒤따르는 예배이었다. 그들의 삶은 예배가 삶이요, 삶이 예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면 그 삶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정의로운 사회의 건설이다. 사회적인 약자들이 보호를 받으며 살 수 있는 평화의 삶을 이루려 하였다. 사회적인 약자들은 고아와 과부, 소외당한 노인들, 나그네, 외국인 등이다. 이것을 법적으로 제도화 한 것이 출 21:2-23:12이다. 이것을 계약의 책이라고도 한다.

2) 신약성서에서의 사회봉사

사회봉사는 신앙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사회적인 실천적 삶을 말한다. 가난한 사람, 불행에 처한 사람,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제자로서 도움을 주고 보살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실천적인 면에서는 개인이 이 일을 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신약성서에서 사회봉사는 신앙에서 나오는 도움의 행위인 식사와 숙식을 제공하는 것,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 구제를 하는 것(행 6:1-6) 복음전파의 사역이나

구제의 사역 그리고 물질을 모으는 사역 등이 모두 섬김과 봉사를 의미하는 디아코니아(diakonia)이다. 처음에는 12사도가 이 일을 전념하였으나 일곱 집사에게 위임하는 것을 보게 된다. 여기에 나오는 집사(Diakonen)라는 말은 원래 기독교 사회봉사자라는 말이다. 초대교회에서 집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들을 교회는 선택하여 사도들이 안수함으로서 이 일에 전념하게 하였다.

3) 화해자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는 것

교회의 사회봉사의 원형은 예수의 삶과 행하신 일에서 보여 진다. 아버지에게 순종하시는 것(요 4:34), 민족을 향하신 연민의 정(마 9:36)은 자신의 삶을 드림으로 완성하였다. 기독교 사회봉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징표가 된다(요 2:11). 그러므로 진실한 사랑의 실천은 그리스도에 연관되어야 한다. 심판에서 이것이 그리스도 중심적이었는가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요한복음 13장의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것은 식사에서 시중드는 것보다 더 자신을 낮추시는 섬김의 하나이다. 이렇게 볼 때 신약성경에서 예수는 자신을 섬기는 자(Diakonos)로 보여주셨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철저하게 '종'(dulos)으로 까지 표현 하시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종이라고 말씀 하신다. 자신은 인간을 섬기러 왔다고 말씀 하신다.

신약성경에서 섬김과 봉사에 관하여 예수 자신을 가리켜 하신 말씀은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눅 22:27)이다. 예수는 가르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행했으며 설교하시면서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조용한 시간을 가졌을 뿐 아니라 섬김을 위해 공적으로 일하셨다.

산상수훈인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교인의 덕목인 구제(6:2-4)와 기도(5-15)와 금식(16-18) 그리고 올바른 물질의 사용(19-21)은 모두 기독교 사회봉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말씀으로 보여 진다. 당시의 이스라엘 사회는 로마의 지배를 받는 상태에서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금식한 것을 가지고 구제를 하였으며 기도함으로써 금식과 구제 그리고 물질을 올바

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

이웃을 섬기는 이 운동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 된 자에게 자유 함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눅 4:18-19)이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는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의 공동체를 가졌으며 이들에게 구원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 됨을 과감하게 선포하셨다(눅 19:9-10).

예수는 이웃의 개념을 또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까지 확대 해석한다(눅 10:30-37). 율법사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새로운 개념일 것이다. 이것 역시 예수가 율법을 재해석하는 구조인 "무엇 무엇을 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마 5:21, 27, 33, 43)를 가지고 이웃의 개념을 재정립하여 준 것이다. 이것은 화해자의 삶의 원형이 된다.

초대교회 안에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 집에서 떡을 떼며 ...음식을 먹는"(행 2:43-46)것은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초대교회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현실화 된 것을 보여 주는 예이기도 하다. 집사를 세운 것도 과부들의 구제 문제와 연관된 것이었다(행 6:1-6). 이러한 전통을 교회가 계속 보존하여 가톨릭교회는 카리타스(Charitas)로 개신교는 디아코니아(Diakonia)로 발전되었다.

종교개혁 시대 이후의 사회봉사는 공로사상과 행위의 심판이 강조되지 않음으로 인해 도리어 약화되었다. 그러나 루터는 “기독교인은 신앙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살며 사랑을 통해 이웃 안에 산다."고 했다. 그는 독일 귀족들에게 사회봉사에서 교육을 강조하였다. 멜랑톤은 사랑은 신앙의 열매임을 강조한다(Amor fidei fructus). 멜랑톤과 동시대의 사람인 슈트라스부르크의 부처(Bucer)는 육신의 보살핌과 영의 보살핌이 병행되어야 함을 말한다. 스위스에서는 쯔빙글리가 쮜리히에서 가난한 자들의 법을 만들어 그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하였다. 칼빈은 제네바에서 봉사의 직을 목사와 교사, 장로 그리고 집사가 공식적으로 하게하였다.

현대적인 의미를 갖는 기독교 사회봉사는 독일의 신학을 가지고 논의를 할 수 있다. 독일에서 기독교사회 봉사라는 말이 신학에 도입된 것은 지금부터 20년 전인

1970년 대 라고 볼 수 있다. 독일의 신학은 우선 이것을 성경적으로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기독교 사회봉사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며 이웃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이 일은 개인적인 것보다는 교회가 필수적으로 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기독교 교회는 자신이 처한 곳에서 가난한자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봉사를 무명으로 행하고 있다. 미국이나 영국의 교회 전통으로 볼 때 기독교 사회봉사는 사회적 봉사, 자선의 행위, 교회의 사회봉사 혹은 교회의 사회사업이라고 말한다.

4) 정의적 차원에서 추구할 수 있는 화해자의 역할 모형들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화해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는 기독교 사회봉사자이다"라는 의식을 가져야한다. 그 의미는 전문적인 사회봉사자로서의 직업을 가지라는 것은 아니며 내가 처한 삶의 지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세상을 섬겨야 한다는 의미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마 5:13-16)이라고 할 수 있다. 교회공동체 안에서 내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화해자의 삶이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기도만 하는 것이나 설교 말씀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로써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다. 교회는 사회봉사의 설교나 강연 등을 통해 교인들로 하여금 화해자의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많은 직업가운데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직업들이 있다. 예를 들면 선교원 교사, 간호사, 간병인, 사회사업가, 의사 등이다. 이분들이 화해자로서의 의식을 갖고 자신들의 직업에 임할 수 있다면 보다 높은 차원에서의 사회봉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교회 안에 이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서로 모여 이 직업을 가지고 화해자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까를 의논하면서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다.

교회 속에 있는 제직들이 하는 봉사도 궁극적으로는 화해자의 역할이다. 목회의 일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화해자의 일이다. 화해자의 일을 한다는 것은 전혀 새로

운 일을 시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교회와 연관을 갖는 교회 연합적인 사회봉사도 보다 넓은 차원에서 화해자의 삶을 확장시켜 나가는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세계는 곳곳에 굶주림과 기아, 홍수 등의 자연재해로 어려움 속에 있다. 화해자로서 세계적인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책임지는 일이 필요하다. 한국교회는 많은 선교사들을 전 세계에 보내고 있다. 이러한 선교의 일이 사회봉사와 함께 이루어진다면 한국교회는 화해자로서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칠 것이다.

노인문제에 대한 대책 향후 마련도 화해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또 다른 영역이 될 수 있다. UN이 규정한 고령화 사회의 기준은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인구의 7% 이상 일 때의 고령화 사회, 넘어서서 14% 이상일 때의 고령사회와 20% 이상일 때의 초 고령사회이다. 이 비율에 우리나라 노령인구 증가의 속도를 대입해 우리나라가 노령화사회로 진입하는 속도를 산정해 본 결과, 한국은 2022년에는 14.3%를 기록해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30년에는 19.3%에 달해 초고령 사회의 진입을 예상하고 있다.

OECD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를 맞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것에 대한 문제점들로는 젊은 인구층이 줄어듦으로 인한 노동인구의 감소, 노동인구의 비노동 인구에 대한 과도한 부양책임, 출산 가능 인구의 감소에 따른 급격한 인구저하, 노인복지시설이나 휴식공간의 부족이 외부적인 문제점들이며 내부적으로는 가정에서 노인의 역할과 위치가 축소, 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노후생활, 핵가족화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한 노인부양의 어려움, 점점 젊어지고 있는 정년퇴직제한으로 인한 노인실업이 증가하는 것들이다. 노인은 하나님의 심정을 품고 관심을 집중해야 할 특별한 대상이다. 소외당하는 자들에게 민감한 것이 곧 화해자의 일이고, 화해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게 하는 일임을 명심해야 하겠다.

5) 화해자와 정의적 책임

급속한 산업 사회를 거치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상실감 속에서 심각한 소외의식과 불안감을 가지고 살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처한 문제의 원인조차 모르고 고통 받고 있는 현실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다양한 형태의 반응을 이끌어 낸다. 자신이 처한 상황의 비참함에 대한 반작용으로 심리적인 도피처를 찾거나 사회를 향한 맹목적인 비난을 퍼붓는 공격성을 보이기도 한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화해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사회적인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자의 입장에 서기 보다는 그리스도의 치유를 경험한 자로서 그 치유를 세상 속에서 펼쳐 나가는 삶을 사는 것이다. 21세기 한국교회의 모습을 이성희 목사는 이렇게 예측한다.

첫째, 미래교회는 개교회주의를 탈피할 것이다. 한국교회의 개교회주의는 성장이라는 교회의 대명제 때문에 한국교회의 한 특징이 되었고, 교단주의와 교파주의의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경쟁과 분리의 세계관은 교회로 하여금 개교회주의를 지향하게 하였다. 그러나 조만 간에 한국 사회의 변동과 미래형 특성인 일회성과 이동성의 발달은 제3의 물결의 증후군과 일치되어 개교회주의를 퇴조시키고 하나의 교회를 지향하게 될 것이다.

둘째, 미래 교회는 예배와 생활에 새로운 양식과 규범을 만들 것이다. 사회 변동의 제반 요인들은 교인들로 하여금 교회에 출석하기 힘든 원인을 제공하게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상승하게 될 것이고, 헌금으로 결석에 대한 대리 만족을 얻으려고 할 것이다. 더구나 케이블 텔레비전의 출범과 더불어 출석률은 더욱 저조하게 될 것이며, 의식적 교인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시대 조류를 맞아 평신도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고 싶은 심리가 형성되고, 새로운 예배 모범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셋째, 미래 교회는 평신도와 성직자의 기능평등사회가 될 것이다. 이전세대는 목회자 일 인의 역량에 따라서 교회가 특정 지워지고 교회 성장도 목회자 일 인에게 절대 의존적이었다. 그러나 미래 교회는 카리스마적 목회자의 출현보다 평신도 사역을 통한 교회 성장을 도모할 것이다.

넷째, 미래 교회는 '조직' 보다 '영성'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미래 교인들은 조직은 반대하지만 영성에 대해 점점 관심을 가질 것이다. 사회가 과학화되고 생활이 메마르게 되면 영성에 대한 관심이 자연히 증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래형 인간의 한 특징은 자신을 구금하는 모든 기존의 틀과 조직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에도 자신이 조직의 틀 속에 있는 것에 대한 저항감이 생기게 되고, 조직으로부터의 자유함을 갈구하게 되며, 반면에 과학 시대의 반발 심리로 영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특히 성직자가 영성적이 되기를 요구할 것이다.

다섯째, 미래 교회는 민주적 교회 정치가 될 것이다. 교회 행정과 정치에서 지배적 개념, 비민주적 제도들을 개혁하고자 합리적이며 민주적인 정치를 요구할 것이며, 특히 여성의 교회 정치 참여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여섯째, 미래 교회는 목회구조의 변화를 이룰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목회 구조는 전 시대의 성장 중심의 교회 구조인데 반해, 미래 사회의 적응력을 갖춘 성숙 중심의 교회 구조를 요구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평신도들도 자연스레 사회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 봉사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들을 감안할 때 화해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방면에 걸쳐 사회의 필요를 공급할 수 있는 교회의 철저한 준비가 요청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목회자와 평신도가 공동 사역하는 자세다.교회가 화해자로서의 리더십을 갖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다.

오늘 날 교회가 당면한 문제 중 하나가 세속화의 문제다. 시대를 초월해서 교회는 어떻게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느냐의 문제에 직면해왔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세속의 물결에 완전히 노출되고 있다. 현대교회는 이미 신자와 불신자사이에 삶의 구별이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다. 기독교의 세속화는 종교적 상대주의에 이르게 된다. 가치의 기준은 "네게 알맞은 것", "우리에게 옳은 것"을 선호하게 되고 절대적 가치에 관심보다 상대적 가치에 관심을 둔다. 화해자는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나아가되 교회 안의 진리를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더욱 우선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E. 사회학적 분석

1. 다원화 사회 속에서의 교회의 정체성

얼마 전 기독교윤리실천운동에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조사를 발표하였는데 대한민국 국민의 18.4%만이 한국교회를 신뢰한다고 하였다. 개신교인이 18.3%인 것을 감안한다면 이 수치는 개신교인의 비율을 겨우 넘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개신교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사람이 48.3%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과연 무엇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의 주요원인 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와있다. 반기독교 정서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 ① 기독교가 배타성과 공격성을 가지고 있다. ② 지나친 전도행위가 불쾌하고 폭력적이다. ③ 개신교는 반사회적이다. ④ 교회지도자들은 비합리적이다. ⑤ 기독교는 분열이 너무 많다. ⑥ 교회는 건축만을 추구하고 헌금을 강요한다. ⑦ 목사들이 너무 많다. ⑧ 목사들이 비윤리적이다.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실천적 삶이야말로 교회가 처한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길이다.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안적인 사회의 모습은 무엇일까? 예수께서는 “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잇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다.[133] ‘핍박을 겸하여 받고’라는 구절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리스도의 부름은 근본적으로 대안적인 사회에로의 부름이다. 이 사회는 그 존제 자체가 오늘 날의 기존 사회를 심각하게 도전하는 것이다. “교회는 사랑의 방어체제로 형성된 공동체로 구성되어야 한다.

---

[133] 막 10:28-31.

그러나 오늘 날의 대부분의 교회는 취미와 성향이 어울리는 안락한 친목단체들로 구성되어 있다."[134]

시대 속에서 화해자의 삶을 살자고 하는 제안 역시 기독교를 향한 사회적 비난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보다 본질적이고도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야만 한다는 위기의식에서 출발한다. 올바른 실천은 삶 속에서 맺는 복음의 열매, 빛의 열매를 통해 나타난다. 즉, 소외당한 자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정의롭고 공정하며, 거짓이나 감춤 없이 정직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이 부정직하고 불공평하며 고통 받는 자들에게 무관심하고 오히려 이기적이고 독선적이며 배타적인 집단으로 비추어지고 있다.

신앙인의 불신앙이 그 주요원인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 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딛 1:16)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고, 외형상으로는 종교적 행위에 충실하지만, 실제적인 면에서는 빛의 열매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표지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이 경험하는 총제적인 위기의 근본 원인인 것이다.

무엇보다도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화해자로서 기독교인들의 풀어야 할 숙제가 타종교와의 갈등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생각, 다른 태도,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러 사는 연습이 잘 되어 있지 않다. 일상적으로는 빈번히 비 기독교인들과 접촉하면서도 막상 타종교와의 문제가 표면적으로 노출 될 때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모른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종교 다원주의는 종교학자들이나 일부 신학자들의 연구와 토론에 제한되었으나 이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의식적인 대처를 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현대사회는 다원화 사회다. 이민교회의 경우나 한국교회의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다. 다원화 사회 속에서 종교는 선택의 문제다. 그러나 다원화 사회라는 급속한 변화의 틀 안에서도 기독교의 교훈만이 진리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있을 수 없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기독교 진리의 배타성의 특징을 빌미로 기도교인들 스스로가 타종

---

[134]Ronald. J. Sider, *Rich Christians in an Age of Hunger,*(Hodder & Stoughton), 163.

교, 나아가 그 범위를 넓혀 세상을 향한 자신들의 사회적인 접근의 미성숙함을 합리화하거나 미화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화해자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분명한 자기정체성을 갖되 편협성을 내어버리고 세상을 포용하고 이끌어 갈 수 있는 영향력을 극대화 하자는 것이다.

과연 어떤 태도가 바람직한 것인가? 종교다원주의를 수용해야 하는가? 일단 '다원주의'(pluralism)란 말을 살펴보자. 다원주의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둘 이상', '여럿'이 있다는 뜻을 담고 있다. 단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수가 있다는 일종의 '복수주의'(many-ism)이다. 모든 경우에 다원주의의 공통적인 것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수', '다수'가 있다는 것이다.

종교 다원주의가 왜 문제가 될 수 있는가? 만일 종교 다원주의 주장을 따른다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 6)라고 하신 말씀을 거부해야 한다. 만일 다원주의가 옳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준 여러 통로 가운데 하나의 통로일 뿐 유일한 통로가 아니라고 해야 할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은 무엇이고, 복음은 무엇인가? 과연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것을 양보하면서까지 타종교와의 공동의 평화를 추구한다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 드러난 타문화에 대해 배타적이고 억압적인 접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 오늘 날의 현실 속에서 기독교를 향한 비난과 질타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일을 포기하고, 자신의 관점과 신앙이 상대적임을 인정하고 타종교와의 대화와 공존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바로 이 부분이 사회적인 관점에서 화해자의 길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최대의 난관이다.

종교 다원주의의 동기 가운데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종교 간의 평화를 통해 세계의 평화를 이루자는 것일 것이다. 한스 큉은 "종교 간의 평화 없이 세계 평화는 없고, 세계 평화 없이는 지구 윤리가 가능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러나 과연 한 종교의 핵심을 이루는 믿음을 제거하고서 평화가 가능한가 하는 것이다. 종교는 위안을 주기도 하지만 갈등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종교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화해자의 삶을 살

아내는 가장 바람직한 접근은 무엇인가? 종교 다원적 상황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서로 인정하고 서로의 다름을 현실적으로 수용하자는 것이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한다는 것은 서로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는 서로가 차이가 있음을 동시에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1) 다원화 사회 속에서의 교회의 역할

“교회가 무엇인가?”하는 정체성의 질문 앞에서 교회는 단순한 ‘조직체’가 아니라 그 이상의 ‘유기체’ 혹은 ‘생명체’라는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이다.[135] 이런 측면에서 어떤 국가 정신이나 체제를 교회 안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그 성격상 다소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교회 역시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사람들의 집합체이고, 사람들의 모임 안에는 그 조직을 운영하는 체제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특히 한 시대를 풍미했던 로마 흥망의 교훈은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도 개혁을 촉구하는 방안으로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로마가 보여 준 흥망성쇠의 비결과 교훈을 중심으로 교회 내에서의, 나아가 지역 사회와의 연계성 속에서 성공적 목회의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본 받아야할 모델로서의 개혁정신

“개혁 없는 조직은 결국 망할 수 밖 에 없다”는 교훈에서 출발해야 한다. 결국 뛰어난 조직과 시스템이 로마의 성공을 가져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더 이상의 개혁 의지가 사라진 안주함 의 태도 속에서는 결과적으로 그 조직과 시스템도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역사적 교훈을 남겼다.

로마의 교훈을 교회 안에 적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아무리 좋은 조직과 시스템일지라도 단순히 모방하여 적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그보다는 먼저 교회가 진정한 개혁의지를 품고 그들의 개혁정신을 본받으려는 철저한

135루이스 벌코프, 권수경. 이상원 역, *벌코프 조직신학(하)* (서울: 크리스챤 다이제스트), 824.

자기 점검 노력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로마의 개혁의지는 위기의식을 통해 다져진 것이다. 위기 앞에서 자신의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앞세우고 귀족과 평민의 구별 없이 진정한 하나 됨의 일치를 이끌어내는 모습은 마치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의 연합을 연상시킨다. 초대교회는 외부적인 박해 앞에서도 남녀노소 신분여하에 관계없이 일치단결하여 생명을 건 헌신으로 승부하는 강력한 공동체였다.[136]

캘트족의 침입과 포에니 전쟁을 통과하면서 두드러진 로마인의 단결의 모습은 강력한 규율과 훈련으로 다져진 시민군대의 힘으로 나타난다. 기독교의 역사도 유사한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한다. 공교롭게도 기독교는 로마의 박해 속에서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하며 강인한 생명력을 피웠다.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 볼 때 크게 외부적인 박해와 내부적인 분열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마치 몽테스키외가 주장한 바와 같이 "국가가 작을 때에는 외세에 의해서 파괴되고 클 때는 내부적 결함에 의해서 멸망 한다"는 교훈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박해 앞에서 강인한 저항정신을 발휘했던 기독교는 초대교회의 단결력을 상실한 채,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이 시대 속에서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해 분열되는 아픔을 반복하고 있다.

포에니 전쟁 후 영토의 확대와 물질적 풍요가 공동체를 유약하게 만들고 분열시켰고, 귀족들은 시민간의 빈부격차 문제를 외면한 채 개혁의지를 상실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시민군대의 약화와 로마정신의 쇠퇴를 가져왔다. 오늘 날의 교회는 어떠한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의 자기정체성을 상실한 채 현세적인 축복만을 추구하는 이익집단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가? 가장 중요한 질문은 교회 공동체와 지도자들이 교회의 하나 됨이 붕괴되고 있는 현장 앞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새로운 개혁을 향한 실질적인 노력을 펼쳐 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실질적인 개혁의 의지 없이 단순히 이상적인 형태의 조직이나 시스템만을 도입함으로써 당면한 문제만을 해결하려는 급급한 시도에 그치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야 할 것이다.

(2) 로마 조직론의 실제적 적용

---

[136] 행 4:29-31, 12:1-17.

패러다임의 변화는 21세기 목회의 최우선적인 과제이다. 구시대의 패러다임이 '성장'이었다면 이 시대의 패러다임은 '사회에 대한 교회의 사명'을 높여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교회구조도 성직 패러다임에서 평신도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137] 이와 같은 흐름을 감안해 볼 때 로마인들의 조직론이 실제적인 측면에서 21세기 목회 패러다임과 흡사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가) 다양성과 통일성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성

다양한 인종을 '획일화'가 아니라 진정한 '통합'으로 묶어낼 수 있었던 힘은 바로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추구하는 그들의 조직체계였다. 오늘 날의 교회도 이런 점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 교회 안에서도 빈부 간, 교육정도 등에 따른 계층적, 구조적 갈등관계가 존재하고 있는 현실이다. 로마가 국가를 유지하는 힘의 중심을 한 개인에게 집중시키지 않고 분산하여 적절한 균형을 이루도록 시도했던 운영의 기술도 본받아야 할 점이다. 교회 각 분야에 인재를 골고루 배치하여 그들의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면, 계층간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줄이고 전반적으로는 조직체의 일치를 가져오는 최상의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나) 융합과 조화의 정치체계

왕정, 귀족정, 민주정의 원리가 혼합된 로마의 정치체제는 그 체제 자체의 우수성 이전에 환경에 맞게 계속적으로 변화해 온 그들의 운영능력에 의해 효과를 거두게 된다. 교회에 적용해 본다면, 목사와 당회와 공동의회가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 속에서 긴장감을 가지고 상호간에 선의의 자극을 통해 발전을 모색하는 구조라고 말할 수 있다. 나아가 로마의 본 정치체제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 참여를 통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할 때, 교회 내에서도 제도의 적절한 적용

---

[137]이성희, *미래목회 대예언* (서울: 규장, 1998), 15.

과 함께 성숙한 교인으로서의 자의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적인 면에서 도움을 제공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 원칙이 분명한 리더십 추구

로마의 지배계층의 Noblesse Oblige의 실천은 그들이 분명한 원칙을 지닌 리더였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오늘 날 사회와 교회 내에서의 리더십의 위기는 분명한 원칙의 상실에서 기인한 것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스티븐 코비는 리더십을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두려움을 통하여 지배하는 강압적 지도력(coercive power), 혜택이나 이익을 통해 지배하는 실리적 지도력(utility power), 마음에서 우러나는 스스로의 선택의 결과로써의 원칙중심의 지도력(principle-centered power)이 그것이다.[138] 로마인들의 리더십은 이 가운데 분명 원칙중심의 지도력에 서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로마의 흥황이 원칙이 분명한 리더십에서 기인했듯이, 반대로 패망의 원인도 원칙이 무너진 리더십에 상당수 기인했다. 교회의 운명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원칙이 분명한 건강한 리더가 존재할 때 건강한 교회는 존재할 수 있다. 로마가 외부세력을 향하여 개방성과 포용성의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었던 자신감 역시, 리더들이 원칙이 분명한 자들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이들의 태도에서 진정한 보수주의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듯이, 교회도 다양한 문화와 대상을 향해 어떻게 주도권을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가의 실마리를 제공해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라) 목적의식이 분명한 삶의 추구

로마의 파멸은 목적의식의 상실에서 시작되었다. 일례로 3차에 걸친 포에니 전쟁의 목적은 '생존'을 위한 것에서 '경제적인 부'를 축적할 기회를 얻기 위한 것으로 변질되었다. 마치 십자군의 원정의 목적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었던 과정

---

[138]스티븐 코비, 김경섭, 박창규 역, *원칙중심의 리더십* (서울: 김영사, 2001), 153.

과 동일하다. 목적의식의 상실은 곧 물질만을 추구하는 우민(愚民)시대의 개막을 예고한 것이었다. 이 교훈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성경의 가르침과 맥을 같이한다. 만사형통, 무병장수만을 추구하는 외침 속에서는 더 이상의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본연의 목적의식을 발견하기는 힘들다. 개혁을 외면한 귀족들과 더 이상의 존립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시민군대의 분열이 로마의 패망을 앞당겼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미래 교회의 운명은 구성원 개개인이 얼마나 목적의식이 분명한 삶을 추구하느냐에 달려있다. 계속적인 개혁의지의 적극적 실현과 함께, 싸움의 대상이 분명한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로서의 교회 정체성 회복이 시급하다.

(마) 지역사회, 타 문화권과의 연합의 방향성 모색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한다. 교회가 지역사회, 타문화권과 어떤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인가에 로마연합의 모델은 좋은 예를 제공하고 있다. 로마연합의 형태가 분명 정복자와 피정복자간의 불평등한 동맹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언어, 종교, 풍속 등의 공통분모를 적극 활용하여 연합의 근거를 마련하는 지혜를 발휘하였다.

교회와 지역사회, 타문화권의 연합의 방향성을 바로 이런 측면에서 발견해야 할 것이다. 교회는 본질상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다른 면에서 출발한다면 영원히 합일점에 도달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역 개발, 교육, 문화적 교류 등의 공통의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분야에 방향에 맞추어 연합을 시도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로마 동맹의 형태가 중심과 주변이 단절되어 동화되지 못했을 때에 동반에서 지배의 관계로 폐쇄화 되어가는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 나아가 타문화권과 연결되지 못한 상태에서의 교회의 독자적인 성장은 언제나 분열과 혼란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로마의 연합과정을 본받아 교회는 구체적으로 사회참여 그룹을 정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 훈련과 사회참여 위원회 등을 통해 사회참여 저해요인을 제거해 나가는 전문적인 접근을 펼쳐 나갈 필요가 있다.[139]

(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교육의 중요성

로마 성장의 기반은 도로망의 정비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모습은 그들이 근시안적으로 눈앞에 성공에 도취되지 않고, 멀리 내다보며 현 시점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미래를 준비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다. 실제적으로 그들이 건설한 도로는 군사적인 목적 이외에 경제적, 종교적, 문화적인 통로로 폭넓게 사용되며 인류 문화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교회의 미래상도 세상을 향하여 얼마나 효과적으로 길을 열어 제시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진정한 복음은 곧 길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시대는 통로가 막혀버린 절망의 현장 앞에서도 전혀 굴하지 않고 지붕을 뚫는 시도로 접근했던 중풍병자와 네 친구의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대이다. 바로 이와 같은 창조적 소수를 길러내는 교육을 교회가 감당해야 할 것이다. 로마의 쇠퇴과정은 로마를 이끌던 엘리트들이 점차적으로 창조에 대한 관심을 상실하게 되면서 시작되었다. 현실에 안주하기 보다는 절제의 미덕을 품고 앞을 향하여 끊임없이 길을 제시하는 시도를 교회가 로마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다.

(사) 실제적 교훈

로마가 보여준 개혁의 방법은 결코 급진적이지 않았다. 결코 서두루지 않으면서 동시에 성실하게, 반보 후퇴를 일보 전진의 기회로 삼는 여유의 미학을 보여주었다. 좋은 제도와 시스템이라고 하여 조직 내에서 검증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성급한 도입을 시도하기보다는 지속적인 개혁 의지를 품고 점차적인 개혁을 펼쳐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개혁의지만 분명하다면 변화는 반드시 이끌어낼 수 있다는 확신이 필요하다. 나아가 로마 패망의 교훈을 본받아 교회의 리더로서 목사는 보다 확고한 원칙에 입각하여 공동체와 지역사회, 타문화권을 연결지을 수 있는 전략적인 접근방법을 구사하여 시행착오를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과거의 성

---

[139]H.J. 클라인벨, 오성춘 역, *목회와 지역사회*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5). 216-242.

공에 집착하기 보다는 끊임없는 자기 변혁의 능력으로 위기를 극복했던 지혜를 배워 나가야 할 것이다.

2. 다원화 사회 속에서 화해자로서의 역할 이해

1) 다원화 사회 속에서의 교회 영향력 극대화 방안

교회 공동체가 사회 일반에 대해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차별성과 매력을 지녀야 한다. 차별성이 다른 점을 강조하는 정적 개념이라면, 매력은 그곳으로 이끄는 힘과 관련된 동적 개념이다. 초기 개신교는 차별성과 매력을 지니고 있었으며, 엄청난 영향력을 과시하며 세계사에 등장하였다. 베버(Weber)는 백여 년 전에 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Die protestantische Ethik und der Geist des Kapitalismus)>에서 새로운 사상 즉 직업소명설과 예정 교리를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가치관들은 세속적 직업에 강한 동기를 부여하고, 책임감 있는 노동자로서의 의식전환을 확산시킴으로써 근대 경제 시스템의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한국 교회의 경우 1980-9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개신교는 당시 선진적이라고 여겼던 서구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 수준이 높고 경제적으로 성공한 신흥 중산층과 상징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결과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을 정도로 앞서 나가는 일면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 시대 속에서 한국 개신교는 상업화되고 대자본화된 제도종교의 모습을 보이며, 고성장, 산업화 시대의 일시적 유행에 편승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 교회 공동체가 다원화 사회 속에서 점점 영향력이 결여된 집단으로 전락하는 이유는 차별성은 남아있을지 몰라도 일반인들을 이끌만한 변화된 삶의 모본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점점 매력을 상실한 모습으로 고착화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복음주의는 세속과의 구별을 강조한다. 이런 요구는 이원론적 경향을 띠게 되고,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은 도태되어 다원화 사회의 일상의 삶에 호소할 수 있는 영

향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존의 복음주의를 세상을 향하여 좀 더 친화적이고 동시에 변혁적인 방향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

다원화 사회 속에서 가장 시급한 문화적 수요들 중 하나는 가족 및 지역 친화 중심적인 여가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다. 교회는 우선적으로 교회 조직을 더욱 철저히 가족 단위로 구성하고, 지역 봉사 및 선교 활동 역시 더욱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다. 과거 고도성장 시대의 여가 활동은 상당 부분성인 남성 위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현재는 여성의 취업률 증가, 고령화, 주 5일 근무제의 확산, 다문화화 등에 기인한 가족 중심적 사고가 보편화되면서 활동의 주체에 대한 중심축이 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는 미래 속의 교회는 복음을 제시하는 영역을 뛰어 넘어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실제적인 삶의 영역 속에 구체적으로 다가설 수 있는 방안을 구비해야함을 의미한다.

이원규 교수(감신대·종교사회학)는 기독교 타임즈에 기고한 글에서 개신교가 비종교인들에게 호감도가 낮은 이유를 이렇게 분석했다. “사회봉사 및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데 너무 인색하다. 전도 활동이 지나쳐서 혐오감을 준다, 헌금을 너무 강조한다, 진리 추구보다 교세 확장에 집착한다, 너무 시끄럽고 요란하다, 물량주의에 물들어 있다. 도덕적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는 것 등이다.”

개신교의 약세 추세에 반해 천주교는 성장하고 있다. 천주교의 급성장에 대해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공보기획부 김지용 팀장은 “천주교가 신뢰할 만한 종교로 자리매김했고, 다른 종교에 개방적이며 사회봉사 활동이나 민주화 운동에 헌신했던 것이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했다”라고 분석했다. 우리 신학연구소 박영대 소장은 “천주교는 중앙집권적인 단일 조직이고, 인사이동을 계속해 부패가 곪아 터지기 어려운 조건이며 사회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라고 보았다.

2) 교회의 본질과 리더십에 대한 재고

화해공동체라는 정체성 위에서 집중해야 할 사항은 교회의 본질과 리더십의 본

질을 회복하는 것이다. 교회의 본질을 추구할 때 교회 사역의 방향과 내용이 결정되며, 그 바탕 위에서 교회의 구조와 조직이 올바르게 형성될 수 있다. 화해자의 삶을 이끌어 내는 결단은 개인적이며 동시에 공동체적 차원을 지닌다. 교회공동체에 요청되는 것은 지속적으로 화해자의 영성을 개발하는 것이다. 즉 복음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복음이 제시하는 삶에 맞추어 살아가려는 결단이 필요하다. 이 결단은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자각과 죄에 대한 저항력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결단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성,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초대교회 운동, 중세의 수도원 운동, 경건주의 운동, 청교도 운동, 18세기 존 웨슬리의 부흥운동, 19세기 복음주의 부흥운동 등은 기존의 사회 문화적 상황을 변혁시킬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운동들의 공통점이 바로 성경적 의미의 회심에서 출발하여 당시의 지배문화와 적당히 타협하는 것을 거부하며 의식 있는 대처를 하며 각 분야에서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화해자의 삶을 추구하는 것은 세상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한 단순한 타협안이 아니며 성경이 제시하는 교회정체성을 회복하여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의식을 일깨우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가 처한 위기상황과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이미 성경과 기독교 역사가 제시하고 있다. 오늘날 교회공동체 내부에서 조차 교회의 자정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커져만 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의 미래상에 대한 희망을 결코 버려서는 안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 분은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통하여 인류의 절망을 치유하시는 구원자가 되심을 밝히 보여주셨다. 화해자의 삶에 대한 추구는 기독교의 윤리적 탁월함과 복음에 대한 자신감에 기초한다. 그것은 단순히 빈곤, 환경오염, AIDS, 낙태, 사형, 전쟁, 불공정 무역, 인권문제, 인종갈등 등과 같은 전 세계적인 문제들에 대한 관심의 표현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생명체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성경적 의미에서 '긍휼'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의 행위를 의미한다. 즉 주변의 가난한 자들이나 억압받는 자들과 구체적인 행위를 통한 동일시를 이루는 것이며, 이러한 행위의 원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다. 성

육신은 화해자가 추구하는 최종적이고도 궁극적인 모델이다. 화해자로서 이 사회 속에 기여하는 기준의 정도는 얼마나 주어진 문화와 환경 속에서 성육신화 되어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제시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세계관이었다(마 20:20-34). 화해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시대적 요청에 민감하여 시대를 대변하는 자라는 자기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지배문화에 속하거나 타협하지 않는 '소수'로 늘 존재하지만 '다수세계'(majority world)를 변화시키는 신적 기관으로서의 하나님 나라 공동체이다.

무엇보다 교회가 화해 공동체로서 지역 사회 속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원활한 소통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교회가 사회 문화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개념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화해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만 통용되는 행동 양식이 되어서는 안 되며, 비 그리스도인들과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기독교의 본질을 포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간의 보편적인 공동선에 대한 관점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교회 패러다임의 변화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다원화 사회 속에서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품어야 할 근본적인 태도는 복음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교회공동체가 노출하고 있는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세상을 주도하기에 확고부동한 진리라는 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 교회 내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 전체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청지기적 소명의식을 회복해야 한다. 화해자가 추구하는 것은 삶의 변화를 이루어 세상에서 부름 받은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화해자의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되어 세상에 전달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삭개오의 자기 개혁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화해자의 삶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교회 공동체가 화해자의 삶을 추구하는 갱신의 행위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결단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제시하는 제자도의 본질이며 산상수

훈의 교훈이다.

3) 리더십 유형으로써의 화해자 이해

최근 들어 더욱 증폭되고 있는 리더십에 대한 커다란 관심은 역설적으로는 '리더십의 부재 현상'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반영된 결과라고도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높아진 리더십에 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진정한 리더십인가'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일 조차 쉽게 여겨지지 않는다.

리더십은 '영향력', '카리스마', '사람을 다루는 기술' 혹은 '일을 이루는 추진력' 등으로 정의되고 있다.[140]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탁월한 리더가 되려면 이렇게 하라'는 인스턴트식의 리더십 논리들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현상을 감안할 때 세상적인 리더십 이론을 기독교의 틀 안에 그대로 접목시키는 것은 상당히 위험스러운 접근일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성경이 제시하는 '화평케 하는 자'의 모델(마 5:9)을 리더십의 한 유형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 모델은 '관계'를 조율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리더십의 유형을 제공하고 있다. 나아가 이 시대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리더의 이미지는 단순한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제공자'의 이미지를 넘어 '솔선수범하는 희생양'의 이미지를 요구하고 있다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리더십을 논하고자 한다. 먼저 성경 속에서 '화평케 하는 자'의 교훈이 어떤 맥락에서 등장하고 있는 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흔히 이 본문이 등장하고 있는 마 5장-7장은 '산상수훈' 혹은 '산상수훈'이라 하여 성서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중의 가르침'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본문이다. 주목할 점은 이 본문이 '팔복'이라 하여 주로 복의 관점에서만 그 의미가 해석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본문은 '복' 이전에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할 '성품'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 본문의 가르침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마 5:1은 그 대상이 '무리'들이 아닌 '제자'들임을 명시하고 있다.[141] 나아가 마 5:13-14은 연이어 '소금'과 '빛'의 사명과 교훈을 연결시키고 있다.

---

[140]한홍, *거인들의 발자국* (서울: 두란노, 2000), 17.

[141]"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순한 '복' 혹은 '성품'의 차원을 뛰어넘어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리더십의 속성'들을 연결시키고 있음을 간파할 수 있다. 소위 팔복의 내용들은 '관계'의 조율과 '갈등'의 해소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때 이 시대를 향하여 리더십에 대한 가장 근본적이고도 중요한 가르침을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화평케 하는 자'의 모델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의 성격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가르침이라 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시는 '화평'의 의미가 세상적인 차원에서 '타협점에 이르는 관계회복 노력'과는 확연히 구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속에도 잘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142] '화평케 하는 자'의 리더십은 '공동체를 잡음 없이 이끌고 갈 수 있는 경영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화평케 하는 자'의 리더십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라는 긴장관계를 해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희생' 이였음을 주목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화평케 하는 자'의 리더십은 곧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온전한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계승한다는 측면에서 바라볼 때 유행에 민감한 '관계 개선을 위한 기술' 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통용되는 '원칙이 분명한 리더십'의 틀을 제시하고 있다.

스티븐 코비는 리더십의 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한다. 강압적 지도력(coercive power), 실리적 리더십(utility power), 원칙 중심의 지도력(principle-centered power)이 그것이다.[143] 각각은 두려움의 차원에서, 혜택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혹은 스스로의 선택의 결과라는 차원에서 리더십의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 물론 세 유형의 리더십 중 가장 바람직한 유형은 원칙 중심의 리더십이다. 원칙 중심의 리더십이야 말로 지속적이고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리더십이다.

그렇다면 '화평케 하는 자'의 리더십이 제시하고 있는 '원칙'이란 과연 무엇일까? 본인은 한 마디로 그 원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142]마 10:34 "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

[143]스티븐 코비,Ibid., 153-155.

것"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원칙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144]. 그러나 이 표현은 '양자택일'의 의미이기 보다는 '우선순위'를 강조한 의미로 받아드려야 할 것 같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일에도 적극적이었고 희생적인 삶을 살았다. '화평케 하는 자'의 리더십은 사람이나 사건을 조정하고 조율하는 차원을 뛰어 넘어,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 자신이 존재한다는 리더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분명한 원칙을 구현해 나가는 리더십이라 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는 화평의 실현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내어 놓을 수 있는, '희생양'의 교훈을 실천하는 강력한 헌신과 섬김을 바탕으로 하는 리더십이라고 말할 수 있다.

(1) 화해자의 리더십 적용

실제적으로 "어떻게 목회 현장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원활하게 감당해 나갈 것인가?", 나아가 "'화평케 하는 자'의 리더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가?" 하는 점들을 성경에 등장하는 사건 혹은 인물들을 중심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해 보고자 한다.

(가)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리더십

진정한 리더십을 추구하는 태도는 "가장 먼저 변해야 하는 존재는 우리 자신이다" 는 깨달음에서 출발하는 것이다.[145] 특히, 신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자기 변화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는 것에서 출발한다. 모세가 가시나무 불꽃 사이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사건(출 3:1-10),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건(사 6:1-13) 등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일을 행하신다는 점이다.

[144]갈 1:10 "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

[145]John C. Maxwell, 강준민, *리더십의 법칙* (서울: 비전과 리더십, 2003), 100.

하나님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사건은 소명 기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삶의 위기 혹은 선택의 갈등 앞에서 더욱 두드러져 나타난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갈등을 겪을 때 보여 주었던 자세(창 13:8-9),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과 우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경험할 때 보여 주었던 성숙한 양보의 모습(창 26:12-22) 등은 '화평케 하는 자'의 리더십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 드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주는 실례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리더십은 인간의 지혜와 경험을 뒤로하고 철저히 믿음의 원리를 앞장세우는 태도를 의미한다.[146] 이와 같은 태도는 하나님의 아픔을 이해한 성숙한 깨달음의 바탕 위에서만 실천가능하다.

(나) 조화와 균형감각을 갖춘 리더십

리더에게 요구되는 덕목 중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건강한 '판단능력'을 소유하는 것이다. 판단능력은 단 기간에 형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신과 공동체가 처해 있는 상황을 정확히 읽어내고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판단능력은 객관성 있는 시각형성과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한 균형감각,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고 수렴하는 융화력 등이 겸비될 때 발휘될 수 있다.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에게 사명이 부여되는 장면을 살펴보면 가장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판단능력'을 가지라는 것이다.[147]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원칙을 고수하는 집중력, 세태에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유지하는 자기 정체성 훈련, 절대 진리를 상대화하지 않고 행동에 옮기는 강력한 실천력 등을 요구받고 있다.

오늘 날을 흔히 '정체성의 위기'(Identity Crisis) 시대라고 부른다. '세계화'(globalization)라는 괄목할 만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성장 속에서 인간들은 오히려 정신적인 공황에 빠질 수 있다. 종교적인 차원에서도 절대 진리가 상대화되는 현상이 등장하게 되고 그로 인한 신앙의 갈등, 회의, 방황에 빠질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체

[146] 히 11:6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147] 수 1:1-9.

성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분명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리더십이 조화와 균형감각을 추구하는 리더십이라 할 수 있다.

스티븐 코비는 리더의 '판단능력'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두 종류의 리더가 존재함을 강조했다. '시간을 알려주는 사람'(Time-Teller)과 '시계를 만드는 사람'(Clock-Builder)의 비유가 그것이다.[148] 유행과 사람의 평판에 민감한 리더십이 전자에 속한다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리더십이 후자에 속할 것이다. 조화와 균형감각을 추구하는 리더십은 시간과 공간의 간격을 유효적절하게 '다리놓기'(Bridge-Building) 하여 주어진 공동체 안에서 '더 좋고 더 나은'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리더십이라 표현하고 싶다.

(다) 멘토링의 차원에서 사람을 세워 나가는 리더십

진정한 리더십은 강력한 리더 한사람의 영향력이 개인을 뛰어 넘어 구성원 간에 혹은 다음 세대에도 그 영향력의 파급 효과가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네트워킹하는 것이다. 하워드 헤드릭스는 멘토링의 차원에서 사람을 세워나가는 리더십의 단계를 3단계로 나누어 설명한다. 리더가 먼저 진리 위에 서는 단계, 멘토링을 통하여 세대를 섬기는 단계, 유산을 남기는 단계(변화를 일으키고 삶에 영향을 끼치는 단계)가 바로 그것이다.[149]

성경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멘토링에 입각한 리더십의 예를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 사도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에서 발견할 수 있다. 멘토링이란 리더십 정보나 이론을 전수하는 과정을 의미하지 않는다. 인격을 바탕으로 한 신뢰와 자발적 순종을 토대로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멘토링의 차원에서 사람을 세워나가는 리더십은 단기간 내에 리더십의 기술 습득 혹은 재능만을 통해 리더가 되려는 섣부른 인간적 욕망을 배격한다. 오히려 성숙한 리더의 영향력 밑에서 충분한 검증과 수련의 시간을 거쳐 진정한 리더십을 계승하는 과정을 요구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대화, 사도바울과 디모데 간의 서신 내용을 통해 확

[148]한홍, Ibid., 285.

[149]하워드 헨드릭스, 박경범, *사람을 세우는 사람* (서울: 디모데, 1997), 1.

인할 수 있다.[150] 이와 같은 내용은 결국 '화평케 하는 자'의 리더십이 많은 경험과 인격적 수련의 바탕 위에서 공동체가 처한 '관계'의 조율과 '갈등'을 해소를 가져오는 리더십을 추구한다는 측면과도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2) 화해자의 리더십 개발방법

'화평케 하는 자'의 리더십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과 역할을 명확히 이해하고 성숙한 그의 영성을 계승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가) '상처 입은 치유자'의 영성 개발

"이 시대의 리더십은 어떤 모습을 지녀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헨리 나우웬은 은 매우 정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 이 시대의 리더를 '상처 입은 치유자'로 정의한 그는 고통을 통해 얻은 상처가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원천임을 역설한다. "기독교 공동체가 치유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곳에서 상처가 치유되고 아픔이 경감되어서가 아니라 상처와 아픔이 새로운 비전을 위한 출구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강조한다.[151] '화평케 하는 자'의 리더십은 자신의 상처에 집중하기 보다는 그 상처가 다른 사람의 상처를 이해하는데 창조적인 매개물로 사용되기를 추구하는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다.

(나) 긍정적인 믿음과 긍정적인 언어생활

목회 현장으로서의 세상은 영적 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팔복의 항목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화평케 하는 자'의 교훈에 연이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의 교훈이 등장한다.[152] 이와 같은 구조는 '화평케 하는 자'의 리더십을

---

[150]왕하 2:2,4,6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 딤후 2:2 "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

[151]헨리 나우웬, 최원준, *상처입은 치유자* (서울: 두란노, 1999), 96.

유지해 나가는 관건이 세상에서 당하는 반대의 경험들을 '의를 위하여 핍박 받는 것'으로 이해하라는 가르침으로 연결 지을 수 있다. 영적 공격은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언어를 통한 핍박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공격에 대하여 '화평케 하는 자'의 리더십을 유지하는 방법은 긍정적인 믿음을 내세우며 긍정적인 언어사용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민수기 13-14장에 등장하는 '열 두 정탐꾼'의 이야기이다. 열 정탐꾼의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언어사용이 온 회중을 두려움과 패배주의로 몰아 넣었다.(민 14:1) 이를 극복한 것은 갈렙과 여호수아의 긍정적인 믿음과 긍정적인 언어사용이었다.(민 14:6-10) 이와 같이 '화평케 하는 자'의 리더십은 리더의 긍정적인 믿음과 언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나타난다.

(다) 비전을 통한 끊임없는 자기점검과 분명한 목표수립

'화평케 하는 자'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이다. 이 의미는 '화평케 하는 자'는 자기 목적의 완수를 위하여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이 추구하는 화평의 행위들을 통하여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돕는 일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오직 한 가지 관심만을 갖는 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관심도 자기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화평케 하는 자'는 그의 주된 관심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으며 그 영광을 섬기기 위해 자기의 삶을 사용하는 사람이다.[153]

(라) 사람의 평판보다는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보는 리더십 추구

'화평케 하는 자'의 리더십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혼선을 불어 일으킬 수 있는

[152]마 5:10-12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

[153]D.M. 로이드 존스, 문창수 역, *산상설교집*,(서울: 정경사, 1989). 171.

부분은 세상적인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다를 수 있다는 부분이다. 특히 “무엇을 화평이라고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하다. 성경은 분명히 불의에 대하여 눈감아 버리고 자신의 세력 유지를 위하여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자들을 탈선한 리더로 구분하고 있다. ‘화평케 하는 자’의 리더십은 ‘안주’하기보다는 ‘완주’하기를 추구하는 리더십이다.[154]

존 맥스웰은 리더가 구비해야 할 요소 중 ‘통전성’(Integrity)을 강조한 다.[155] ‘통전성’이란 말의 사전적 의미는 “완전하고 통일된 상태”라고 되어 있다. 말과 행동의 일치, 인격과 삶의 투명성을 갖추라는 의미이다. “화평케 하는 자‘의 리더십은 ’통전성‘을 갖추는 것 이상의 목표를 지향한다. ’화평케 하는 자‘의 리더십은 인간의 평판을 의식하기 전에 하나님의 평가를 의식하는 것이다. 역사의식을 갖춘 분명한 자기 정체성 속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도구로만 쓰임 받으려는 선한 청지기 의식이 발휘될 때에만 ’화평케 하는 자‘의 리더십은 비로소 성취될 수 있을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의 리더십은 단순히 리더십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자체를 추구한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다는 의미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 관계적인 갈등이 사라지고 빈부귀천의 의미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 샬롬의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156]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이며 동시에 현재적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발견’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발견은 자기 정체성의 발견으로 이어진다. ‘화평케 하는 자’의 리더십 추구는 ‘하나님의 아들’로 발견되기를 소원하는 자의 ‘하나님 추구’이다. 나아가 더 많은 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다.

4)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화해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평등하고 사람다운 대우를

154딤후 4:7-8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 니 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

155존 맥스웰, Ibid., 296.

156사 11:6-10.

받아야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 속에서는 많이 소유한 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게 소유한 자라는 소외 계층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소유 분배라는 주제에 맞춰 나눔과 섬김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야만 한다.

성경 속에는 경제 순환과 재산 형평을 위한 규정과 제도적 장치가 이미 제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내에서는 가난한 자가 속출하였고 빈부의 차이가 현실적으로 심화되었다. 성경은 가난한 자를 돕고 빈부의 격차를 줄이는 방법으로 많이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자기 재산을 상대적으로 적게 소유한 이웃에게 나누어 줄 것을 강조한다. 화해자의 삶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자 할 때 우리는 소유와 나눔의 갈림길에서 갈등할 수 밖 에 없다. 사람은 소유의 존재 여부를 통하여 서로의 존재가치를 평가하기 쉬우나 성경은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재물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많은 경우 소유는 불의한 방법에 의해 취득되고 그대로 상속되기도 한다. 인간의 소유욕은 인간분쟁의 뿌리이며, 이웃과의 차별을 불러일으키는 주범이 되기도 한다. 인간은 소유할 것인가 아니면 포기할 것인가의 갈림길에서 지속적인 갈등을 경험한다. 특히 소유의 독점욕은 인간을 소유의 노예로 전락시키는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이처럼 소유욕은 남을 지배하는 지배욕으로 연결되어 도덕적 무감각에 빠뜨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한다.

신명기는 소유보다는 소유를 포기함으로써 나눔의 삶을 실천할 것을 요구한다.(신 15:1-11) 예수께서도 제자들에게 향하여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다.(눅 14:33). 소유의 포기 요청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베드로처럼 가진 것을 포기하고 예수를 따른 자이다. 삭개오도 예수를 만나는 순간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고 했으며(눅 19:8), 바나바도 자기 소유를 포기했다(행 4:36-37). 둘째는 젊은 부자 청년처럼 소유를 포기 하지 못하고 천국을 포기한 자이다. 화해자의 삶은 소유 중심이 아니라 존재와 의미 중심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나눔과 섬김을 몸소 실천함으로써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자신을 내려놓는 것

이 화해자의 삶이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화해 공동체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몸소 소유의 나눔을 실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이 소유의 나눔을 실천한 내용을 보면 소유의 완전 포기를 실천한 것은 아니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나눔에는 두 가지 원칙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157] 첫째, 이웃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고 힘이 미치는 대로 능력껏 도와 준 것이다. 둘째, 연대의식 속에서 같은 형제애를 느끼며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당한 것이다.[158] 바울의 경우에도 재물에 대한 소유욕이 없다.[159] 그에게 있어 소유는 재산 증식의 의미가 아니라 분배의 의미일 뿐이었다. 이웃을 향하여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시가 된다.

빈부격차가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현상은 인간의 소유욕에 기인한다. 소유욕을 스스로 제어할 수 없다면 가난한 자를 향하여 나눔을 실천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가난한자는 너희 중에 항상 있을 것이요”(막 14:7)라는 예수의 말씀을 곡해하는 숙명론으로 대치될 수 있다. 부의 편중이 날로 심화되는 현실 앞에서 인간은 절망하거나 자포자기에 빠질 우려가 있다.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을 신뢰할 때 섣부른 인간의 조바심은 해결될 수 있다. 가난의 원인이 상당 부분 인간이 빚어낸 구조적 모순 때문이라면 그 원인을 제거하는 일에 인간의 책임이 면제될 수는 없다. 이런 의미에서 화해자는 나눔과 섬김에 대하여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며 실천하는 삶은 사는 자다. 그렇다면 소외된 자들을 향하여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첫째, 부익부 빈익빈을 양산해 내는 갈등 구조를 해소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복음을 통한 소유개념의 개혁을 펼쳐 나가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마리아는 메시아의 복음사역의 핵심이 소외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다.[160]

---

[157]행 11:29-30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158]고전12:20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159]행 20:33-35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찌니라.”

둘째는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 가는 길이다. 예수는 남을 부요케 하기 위하여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을 자처했다. 예수는 부요한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가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함이라(고후 8:9). 메시아의 가난을 의미한다. 성경은 가난의 문제를 실제적인 면과 영적인 면으로 구분하여 접근하고 있다. 누가복음은 가난을 실제화하여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묘사한다. 한편 마태복음은 가난을 영성화 하여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마 5:8)고 한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가난을 미화하지 않는다. 소외자로 인한 공동체의 불균형을 제거하고 연대의식을 결속시키기 위해 가난 퇴치를 공동체의 과제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화해공동체로서의 교회에 요청된다. 철저한 나눔과 섬김을 통하여 공동체 내의 가난을 퇴치한 것이 초대 교회였음을 기억해야 한다.

공동체 내의 가난 퇴치를 공동의 과제로 삼는 화해자적인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 수도원적인 청빈의 삶이 요청되기도 한다. 금욕적인 삶, 절제와 검소의 삶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재물의 사용이라는 주제 앞에서도 우리는 재물의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자라는 의식의 전환이 뚜렷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청지기의식을 앞장세우며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삶의 방식이 화해자의 삶의 방식이다. 화해자의 삶을 실천하는 나눔과 섬김의 현장이 있을 때 비로소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람직한 사회가 될 수 있다.[161]

5) 국제화 사회 속에서 화해자로서의 목회자의 역할이해

어떤 유형으로든 모든 사람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를 풀어나가는 질문은 “나는 어디에 서 있고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

[160]눅 4:18-19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

[161]고후 8:15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각하는 ‘방향감각’과 아울러 규합된 생각의 결과를 행동으로 연결시키는 ‘목적의식’ 이 필수적으로 요구될 것이다. 과연 목회자는 오늘 날의 사회 속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으며,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펼쳐나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논하고자 한다.

(1) 글로벌 사회 속에서의 목회자의 자리

오늘 날의 사회는 급변하는 글로벌 사회이다. 다양한 문화와 복잡한 상황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사실은 일면 여러 가지 선택의 폭이 존재한다는 의미로도 발전시켜 바라볼 수 있다. 그러나 선택을 내리기까지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자유로운 생각의 장을 펼쳐볼 기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바로 ‘급변하는 사회’라는 긴장감이 생각의 ‘풍성함’ 보다는 오히려 생각의 ‘속도'를 요구하고 있다. 채 생각이 무르익기도 전에 성급한 결단을 내릴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목회적인 측면에서도 이와 같은 시행착오는 그대로 재현되어 나타나고 있다. 독특하고 주관이 뚜렷한 목회의 장을 펼쳐나가기 보다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성과를 찾아 모방하고 흉내 내며 향방 없이 바쁘게만 움직일 것을 은연중에 압박받고 있다. 이와 같은 '획일화‘의 문제점을 고려해 볼 때, 목회자의 유능성이라는 주제는 “어떤 결과를 이끌어 냈는가?” 하는 성과 주의적 질문이전에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그 일에 임하고 있는가?”하는 존재론적 질문 속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2) 목회적 세계관 확립의 중요성

이 시대 속에서의 목회의 현장은 세계화의 흐름과 연결 짓지 않은 채 결코 고립되어 존재할 수 없다. ‘목회 현장의 범위를 어디까지 규정지을 것인가’의 문제는 지리적 여건을 뛰어넘어 ‘목회자가 얼마나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목회 현장에 접근하고 있느냐’의 심리적인 태도와 오히려 직결된다고 생각한다. 시대의식을 가지고 목회자의 임무를 수행하는 일에 있어 사회적, 문화적 현상 등을 읽

어내는 날카로운 분석 능력과 함께 요구되는 것은, 해결책을 세상 속에서가 아니라 성경 속에서 제시할 수 있는 복음제시능력이라고 생각한다. 이 시대의 목회자에게 필요한 것은 교회와 세상을 단절시키거나 분리시켜 바라보는 이원론적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여 세상 속에 존재하는 교회라는 통합적이고 통전적인 의식을 회복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구원의 문제를 제시함에 있어서도 내세적이고 영적인 것으로만 제한하는 편협한 사고방식의 틀에서 벗어나서 현세적이고 실질적인 면에서 보다 폭넓은 의미의 복음을 제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목회자로서의 존재가치를 인정받게 될 것이다.

복음은 분명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제한적 진리가 아니다. 그렇다면, 세상 한 복판의 현장에서 당당히 적용될 수 있는 생동감 있는 진리임을 입증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이 같은 임무 수행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상황, context에 대한 전문성 있는 해석능력과 함께 text로서의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형성된 복음제시능력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context와 text의 시간적, 공간적 간격을 좁혀 현실감 있는 복음 구현의 장 만드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목회적 세계관인 것이다.

(3) 목회적 세계관을 결정하는 구성요소

목회적 세계관이라는 표현은 “세상이 어떻게 운행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복음에 바탕을 둔 분명한 해답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싶다. 예수께서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세대를 한탄하셨다. 반면, 예수께서는 다급한 상황이 전개되는 위기상황 속에서도 초연함을 유지하셨다. 그 비결은 예수께서 확고한 세계관을 유지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바로 그것이다. 이 시대의 목회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다양한 이론의 섭렵과 나열이 아니라 분명한 진리의 재발견과 선포라고 생각한다. 이런 맥락에서, 세계관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재발견’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목회적인 세계관을 결정하는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가) 시간적 이해

시간은 인간 활동의 주 무대이다. 그 시간 속에서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일관성이 요구된다. 인간은 역사창조자이다. 역사는 이미 완성된 것이 아니다. 계속 진행 중에 있으며 마지막 때까지 모든 판단은 유보되어 있다. 우리는 그것이 결국 어떻게 될지는 알지만 우리 각자의 역할이 무엇이 될지에 관해서는 정확히 모르며 계속 새롭게 자각하는 도상에 존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대적 사명의 깨달음의 출발점은 겸허한 '자기 한계성의 발견'에서 시작된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라고 고백하셨다.(요 17:4) 세상적인 관점에서 예수그리스도는 꿈을 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생을 마감해야 했던 실패자의 모습으로도 비춰질 수 있다. 그러나 정작 예수그리스도 자신의 자의식 속에는 임무의 완결을 당당히 선포하는 확고함이 나타나고 있다. 바로 '관점의 차이'가 '해석의 차이'를 만들어 낸다는 사실에 다다르게 한다.

목회자의 시대적 사명을 바라보는 개념도 제한된 시간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어 내었느냐 하는 것보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에 얼마나 성실했느냐 하는 것에 놓여야 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미래적이며 동시에 현재적인 것이다. 그렇다면 매 순간 '하나님의 면전에서'(Coram Deo) 민감하게 살아가는 것이 목회적 세계관의 시간적 이해의 핵심이라 생각한다.

(나) 관계적 이해

성경 속에 나타나는 '관계'를 해석하는 기존의 틀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만 편중되어 있다는 느낌이다. 특히 선민의식에 입각한 편협한 관점으로는 '관계'를 이해할 때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국제화의 시각 속에서 타민족, 타문화권을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할 것인가의 문제는 보다 폭넓은 유

연한 관점의 전환을 요구한다. 기존에 통용되었던 서구적 선교의 틀은 민족적 우월감 속에서 많은 문제를 노출 시켰다. 선교의 대상으로서 타 민족, 타 문화권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그들의 문화와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복음에 대한 이해는 인간에 대한 이해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복음은 단순하고 분명한 것이지만 인간의 상황은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다양한 양상들을 산출해 낸다. 관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이는 진정한 의미의 복음은 결코 바르게 제시될 수 없다.

나아가 인간과 자연간의 관계도 새롭게 조명되어야만 할 것이다. 인간에 의해 일방적인 정복을 허용하는 대상으로서의 자연이 아니라 함께 공존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야 할 파트너로서의 자연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나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어느 선까지 보존하고 어느 선까지 개발 할 것인가의 한계의 선을 긋는 문제는 결코 간단하지 않다. 이에 대해 개발윤리의 이론이 한 가지 답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개발윤리(development ethic)는 유대기독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세 개의 주요 영역 들인 영적인 영역, 인간 영역, 창조계 영역에 관계되는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다.[162] 그 주요 내용은 하나님이 세우신 비물질적인 법칙들의 체계로서, 그것을 따르면 풍요와 번영이 오지만, 그것을 무시하면 가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부요와 풍요는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주장이다. 이 땅에서 부창조자(vice-regent)로서의 인간은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 대신에 창조물을 돌봄으로써 영광을 받는다. [163]

(다) 통치적 이해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는 지리적, 지역적 의미를 갖고 있기 보다는 다스림이나 통치와 같은 추상적 의미를 지닌다. 국제화 사회 속에서 목회자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는 차원에서 어떻게 목회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고 목회의 현장 속에서 그 경험을 함께 공유해 나갈 것인가의 과제를 안고 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

---

[162]대로우 밀러,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 (서울: 예수전도단, 2000), 204.

[163]Ibid..204, 328.

다"고 강조하셨다(눅 11:14-22, 마 12:22-29).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 예수는 귀신을 쫓고 병 고침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행위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라는 추상적인 의미를 구체적인 증거로 제시한 것이다. 이 시대의 목회자들에게 요청되고 있는 사명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추상적 혹은 이상적 모델로서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실재하는 현장으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의문은 과연 하나님의 다스림 혹은 통치를 경험 하는 통로가 초자연적 치유의 현장에만 존재하느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다스림 혹은 통치의 개념은 훨씬 포괄적인 것일 것이다. 육체적 질병의 치유현장을 뛰어넘어 관계에 있어서의 갈등, 경제적 빈곤, 정치적 억압, 심지어 자연의 재해 현장 속에도 여전히 적용될 수 있다.[164] 보다 폭넓은 하나님나라의 실제화라는 명확한 밑그림을 이 세대의 목회자로서 품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복음의 세계 속에서 바라 본 세계화는 '다양화' 혹은 '획일화'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샬롬의 구체적 실현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통치가 경험되는 현장 속에서 사회적, 경제적 정의가 있고, 정치적 자유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통치는 질병의 기적적 치유의 범위를 넘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보다 포용력 있고 유연한 사고를 펼쳐나갈 수 있는 목회적 세계관을 구비함으로써 하나님의 다스림 혹은 통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4) 향후 추구하는 신학적 방향 및 실천방안

본인의 목회사역을 되돌아보면 context와 text의 관계에서 다소 text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치중했다는 느낌이 든다. 어쩌면 text인 성경에 치중 했다는 표현보다는 차마 context로서의 세상을 되돌아 볼 여유가 없었다고 하는 표현이 더 옳을 것이다. context를 고려하지 못한 채 text 안에만 갇혀버린 말씀 선포는 접근 방식에 있어 다소 경직되어 있었고 때때로 율법적인 성향으로 기울 때도 있었던 것 같다. 확고함이 결여된 채 자유를 선포하는 복음의 현장 속에서 정작 자신 속에 존재하는 자유마저 발견하기

[164]김세윤, *복음이란 무엇인가* (서울: 두란노, 2003), 65.

힘들 때도 있었다. 그 주된 원인은 하나님과 사람, 성경과 세상 사이에서 좌표를 인식하고 방향성 있는 결단을 이끌어내는 목회철학 혹은 세계관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반성을 갖게 한다.

목회철학을 결정짓는 신학의 방향성은 탄탄한 학문의 세계와 생동감 있는 목회의 현장이 만나는 지점에서 형성된다고 생각한다. 신학의 방향성은 한 순간의 충동적 깨달음으로 결단코 세워질 수 없으며, 부득이 오랜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쳐 아픔의 상처 위에 성장과 성숙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져 가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런 의미에서 신학의 방향성은 가시적인 목회적 결과물을 산출해내기 위한 선결조건으로써 속성으로 구비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인간 앞에 서있는 목회자의 겸허한 존재의식 속에서 끊임없는 질문의 과정과 자기 성찰의 결과물로써 내면에 습득되어질 수 있는 성격의 것이다. 이런 면에서 향후 어떤 신학을 추구하겠다고 그 방향성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못내 조심스럽다. 더욱이 신학적 방향성이 미처 정립되지도 못한 상황에서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더욱 부담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숙의 과정을 향해 다가가는 과정이라는 차원에서 추구하는 신학의 방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가) Context를 제대로 읽어낼 수 있는 충실한 잣대로서의 신학 추구

보다 포용력 있는 신학함의 태도를 의미한다. Context를 제대로 읽어낼 수 있는 신학이 따로 존재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진지함이 결여된 본인의 신학적 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세상을 바라보는 본인의 관점은 다소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방관주의자적인 입장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솔직한 심정으로 세상 속에 관여하여 고민하는 번거로움을 선택하기 보다는 세상을 외면한 채 한가로움 속에 거하는데 길들여져 있었다. 그러나 목회적인 능력의 한계를 경험할 때마다 공통적으로 도출하게 되는 깨달음은 다변화 사회 속에서 치열한 전투적 삶을 살고 있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이해하는 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자책감이었다.

정확한 진단 능력이 없이는 적절한 치유도 불가능하다. Text 안에 해결책이 있어도 Context를 통하여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없다면 결과적으로 Text의 효과는 검증될

수 없다. Context를 정확히 읽어내기 위한 접근법으로써 문제에 접근하는 다른 학문의 방법론에도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접근법에도 진지하게 눈을 떠야할 필요성을 공감한다. 나아가 현장감 있는 학문, 신학적 토대가 탄탄한 목회를 추구해야 한다는 의식을 품고 있다.

(나) 교회를 넘어 세상을 향해 관심의 영역을 확장하는 신학추구

전통적인 목회는 교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 날의 목회는 세상을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 이유는 인터넷과도 같은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발달을 통해 교회와 세상이라는 구분의 벽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교회 안에 들어 온 사람들에게만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면 오늘 날에는 세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쉽게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기존의 목회가 교회 안에 들어온 자를 어떻게 성장시키고 성숙시킬 것인가 하는 양육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 시대의 교회는 구도자의 길을 찾고 있는 익명의 대상들을 향해서도 관심을 갖고 접근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문제는 세상을 향한 오늘 날의 복음전달 방식이 효과적인가 하는 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은 철저히 '남의 이야기'였다. 적어도 그녀에게는 '복음'이 아니라 죄의식만 불러일으키는 '저주 이야기'처럼 들렸을 것이다. 여인의 태도를 바꾼 것은 예수의 접근 방식이었다. 철저히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접근 방식이 여인의 태도를 바꾼 것이다. 복음의 접근방식은 필요를 느끼는 구매자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적극성을 띄고 능동적으로 찾아가서 그들 스스로 그 필요성을 자각하게 하는 것이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무슨 마음을 품고 그 말을 전하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오늘 날의 성장지상주의적 전도방식에는 '열심'은 있으나 '아픔을 이해하는 배려'가 결여되어 있다. 겉으로는 '영혼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전도가 교인의 숫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전락되는 것처럼 보여 질 때가 많이 있다. 이런 현상 또한 하나님의 아픔을 이해하는 신학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교회

밖으로 관심의 영역을 확장하는 신학을 추구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아픔을 이해한 자로써 세상을 단순한 불신자로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야 할 동반자로 여기고 진지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진정한 의미의 사회 참여는 세상을 바라보는 건강한 의식의 전환 속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다) 갈등해소와 이해를 이끌어내는 화해자로서의 신학 추구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갈등이 존재한다. 교회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많은 개인과 가정, 교회와 사회가 갈등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 모든 관계를 무너뜨리는 주범은 결국 갈등이다. 갈등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가 결국 목회적인 과제의 핵심이라는 생각을 한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는 화평케 하는 것의 중요성과 화평케 하는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동시에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갈등을 해결하는 중보자의 모델로서 화해자의 자리는 상처받기 쉬운 자리이다. 갈등 해소를 위해 필요한 역할 분담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구비하고 있어야 함은 물론, 갈등에 직면하고 있는 대상들에 대한 편견 없는 인간 이해와 함께 그리스도의 자기희생의 정신을 본받는 헌신이 요구되는 자리이다. 많은 부담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 방향으로 신학적 접근을 시도하는 이유는 어느 영역의 신학적 추구보다 가장 가치 있고 또한 본질적인 접근이라는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는 '관계의 법칙 내지 기술'을 이해하는 다양한 이론도 잘 섭렵하여 정리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본인이 추구하는 접근법은 '이론의 제시'가 아니라 '원칙의 제시'에 초점을 맞추려 하고 있다. '원칙의 제시'라 함은 모범적인 틀을 제시할 수 있는 삶의 기반이 먼저 형성되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헨리 나우웬은 '영적인 발돋움'으로써의 성장과 성숙이라는 주제를 설명하면서 그 움직임의 방향을 셋으로 구분하여 설명한 바 있다. 위를 향한 발돋움, 안을 향한 발돋움, 밖을 향한 발돋움이 각각 그것이다. 위를 향한 발돋움이란 하나님과의 관계, 안을 향한 발돋움이란 자신과의 관계, 밖은 향한 발돋움이란 세상과의 관계를 의미한다. 이 세 영역

은 결코 별개의 것으로 존재할 수 없다. 세 축이 건강하게 형성되어 있을 때에만 '원칙'으로서의 건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스티븐 코비 역시 개인 및 대인관계의 효과성을 피력하면서 원칙중심의 리더들의 특성과 그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165] 갈등을 해소하는 화해자로서의 역할 감당은 바로 이와 같은 삶의 모델로서의 원칙들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는 그 시점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민 사회 속에서 교회는 다양한 기능들을 요구받고 있다. 또한 그 요구들이 제대로 충족되어지지 않을 때에는 연속적인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기도 한다. "과연 어디까지가 교회가 관여해야 할 역할 범위의 한계인가?" 혹은 " 교회가 다양화된 요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생존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이며 바람직한 움직임인가?" 혹은 "다양한 구성원 간의 계층적, 구조적 갈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등의 수많은 질문과 접근을 가능케 하는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주제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신학적, 사회학적 접근을 모색하는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여 나가고자 한다. 갈등을 관계 속에서 생산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 갈등을 풀어나가는 방편으로서 대화의 기술, 교회 안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바르게 이해하고 감당함으로써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등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와 같은 신학적 추구는 개인과 가정, 가정과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치유의 방편이 되는 것은 물론, 크게 보면 다양한 국제화 커뮤니티 속에서 갈등을 해소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게 대처함으로서 이민 사회 내에서의 한국인의 자리매김을 보다 효과적으로 펼쳐나가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감히 해 본다.

국제화의 물결은 결코 멈추지 않은 채 더욱 가속화되는 추세로 다가올 것이다. 새로운 시대의 개막이라는 들뜬 기대감과 함께 기존의 가치 체계의 붕괴라는 두려움을 동시에 갖게 한다. 새로운 추세에 대한 탄력성 있는 흡수만큼 중요한 것은 균형을 잃지 않는 분별력 있는 수용의 자세이다. 특히, 국제화의 흐름 속에서 종교는 다분히

---

165 스티븐 코비, *원칙중심의 리더십* (서울: 김영사, 2001), 42-52.
이 책에서 원칙중심의 리더들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① 끊임없이 배운다. ② 서비스 지향적이다. ③ 긍정적 에너지를 발산한다. ④ 다른 사람을 믿는다. ⑤ 균형 잡힌 삶을 산다. ⑥ 인생을 모험으로 여긴다. ⑦ 시너지를 활용한다. ⑧ 자기 쇄신을 위해 노력한다.

다원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다. 화합을 모토로 한 다양한 움직임 속에는 종교적 본질의 성향을 무너트리는 획일화의 위험이 숨어있다. 변별력이 곧 생명력이다. 세상을 흡수하는 교회라는 측면에서 세태를 결코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분명한 원칙 하에서 교회는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국제화 사회 속에서 목회자의 유능성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영적 분별력을 갖는 것이요, 둘째는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정신에 귀를 열고세상의 필요에 부응할 수 있는 섬김의 봉사자가 되는 것이다.

Ⅲ. 화해자 의식을 목회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시행전략과 사례 연구

A. 화해자 의식 회복을 위한 목표

1. 갈등을 극복하는 한 몸 공동체 의식의 변화

이민교회 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계층 간의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교회 안에 교육 정도, 사회적 지위, 교회 출석 년도 등의 요소에 의한 일종의 차별이 존재한다. 물론 이민교회 안에서만 이런 종류의 차별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민 교회는 보다 더 다양한 문화적인 접촉을 통해서 혼란을 경험하는 것이다. 최근에 이민을 왔거나 유학을 오게 된 교회 구성원들은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자신들이 성장해온 한국 문화와는 차별되는 새로운 문화에 접촉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삶의 가치와 경험들이 무효화 되는 것 같은 일종의 박탈감을 경험한다. 상대적으로 이민 온 지 오래된 기존의 교회 구성원들에게는 자신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이민 경험이나 경제적 기반, 경력들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보상심리가 존재한다.

‘연합’은 참된 교회를 구별하는 표식 중 하나이다. 왜 교회 안에서 연합하는 것이 중요한가는 교회현장의 열매를 통해 실질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연합해야 하다. 또한 교회의 연합은 주님의 명령이다. 교회가 연합하지 않으면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교회의 연합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는 교회의 연합을 어떤 조직적인 면에서 흔히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이 아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조직(organization)이 아니고 유기체(organism)이기 때문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연합은 어떤 연합인가? “우리가 하나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함이니이다”(요 17:22)라고 하였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 됨 같

은 그런 유형의 하나 됨을 원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유기적 연합이라고 부른다. 목회 현장에서 경험하는 연합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점검해 보는 일은 중요하다. 신성종 목사는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166]

첫째, 죄가 교회와 성도의 연합을 방해한다(행 5:1-11). 둘째, 불화가 교회와 성도의 연합을 방해한다(행 6장). 셋째, 교만이 교회와 성도의 연합을 방해한다(마 20:20-24, 요삼 9:111). '내가 제일이다'하는 그 교만이 연합을 방해한다. 넷째, 교회 안에서의 차별대우가 성도의 연합을 방해한다(약 2:1-4). 그러므로 우리는 출신 지역적인 차별대우나, 가진 자나 안 가진 자의 차별대우나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성경 안에 제시된 연합의 원리들은 오늘 날의 목회 현장에서도 시대와 환경을 초월하여 적용될 수 있는 교훈들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교회와 성도는 연합된다(4:1 이하). 초대 교회가 서로 연합한 것은 날마다 모이기를 자주하고 열심히 성전에서 기도했기 때문이다.

둘째는 같은 가르침을 받을 때 교회와 성도는 연합된다(행 2:42-47).

셋째, 짐을 함께 나누어질 때 교회와 성도는 연합하게 된다(갈 6:2). 인생 여정 길에서 경험하는 생사고락의 기쁨과 아픔을 함께 공유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뿐 만 아니라 사랑으로 그 짐을 나누어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넷째는 성령이 평안의 줄로 하나되게 하실 때 교회와 성도는 하나된다(엡 4:3). 인간의 노력과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2. 성서적인 공동체로의 변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을 자신과 닮아 가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계신다.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성도들을 모으기 위함이 아니라 그

[166]신성종, *이런 교회가 성장한다* (서울: 도서출판 하나, 1995), 50.

들을 변화시키기 위함이다.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향하여 내부적으로 혹은 외부적으로 화해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 내의 프로그램과 하부 사역들은 삶을 변화시키는 그분의 목표를 섬기도록 계획되어야 하고, 이 명령을 이루기 못할 경우에는 폐기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동체 구성원 간의 의미 있는 결속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소그룹을 구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본 논문의 현장이 되고 있는 목양장로교회가 가정교회를 통한 목장을 구성하는 과정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몸 된 교회의 세포에 해당하는 개개의 가정이 건강하지 목하면 결코 건강한 교회를 기대할 수 없다.

윌로우크릭 교회의 빌 하이빌스 목사는 삶의 변화를 위한 건강한 소그룹 구성을 위해 5G를 강조한다. 5G란, 은혜(Grace)-그리스도의 구속하시는 역사를 처음 경험하는 것, 성장(Growth)-변화된 삶으로 증거하시는 성령의 지속적인 역사, 그룹(Group)-소그룹 안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 은사(Gifts)-영적 은사와 열정에 따라 사역에 참여하는 것, 선한 청지기의식(Good Stewardship)-시간, 재능, 자원들을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말한다.[167]

아울러 빌 하이빌스는 5G를 성취하는 방편으로써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4가지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인격적 순결, 관계의 충실, 조직에 대한 충성, 사람들 사이에서의 성숙이 그것이다.[168] 이 부분은 본 논문의 주제인 화해자의 역할 이해와 연관되는 부분이 많아 간략한 소개와 함께 실제적으로 목회 현장에서 적용하는 본보기로 삼고자 한다.

1) 인격적인 순결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베푸는 모든 것의 원천이다. 예수님은 그것을 명확히 하셨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느니라”(요 15:5). 순종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강력한 도구이다. 우리 자신의 인격적 순결과 영적 성숙이야말로 우리가 서로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가장 큰

[167]Paul Braoudakis, *윌로우크릭 지도자핸드북* (서울: 두란노, 1997), 195.

[168]Ibid., 118-120.

은사이다.

2) 관계의 충실

우리가 만일 신체 가운데 한 부분을 계속 학대한다면, 다른 부분을 건강하게 유지한다고 해도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우리의 관계라는 영역은 거의 우리의 육체와 같다. 즉 우리는 관계의 일부를 무시하면서도 그것이 우리 삶의 다른 부분에 역효과를 가져 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롬 12:18).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긴장된 관계를 벗어나 화해를 추구해야 한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고후 1:12)

3) 조직에 대한 충성

교회에 시간과 재능과 재산을 드려서 공헌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반응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에 대한 충성도를 가늠하는 몇 가지 질문이 있다.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써 나의 일정표는 구성원들과의 관계에 대하여 무엇을 보여 주는가? 교회 공동체의 일정표 안에서 나는 방관자인가 아니면 ‘역할 수행자’라고 인정할 수 있는가? 그 교회는 주는 곳인가, 아니면 받기만 하는 곳인가?

4) 사람들 사이에서의 성숙

섬김을 받기 보다는 섬기려고 애쓰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그들에게 단지 자신의 사랑만 보이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었다. 그 분의 행하신 일의 심오한 의미를 지적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도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요 13:12-15)

교회공동체로 하여금 '교회'가 뭔가를 더 많이 해주기를 바라는 수동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바로 우리(We)가 교회라는 주체적인 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지 않다면, 바로 우리가 그것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며, 바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할 유일한 사람들이다. 너무나 자주 우리는 소비자적인 정신 상태에 빠져들곤 한다. 그러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할 일이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화해자로서의 발걸음을 내딛는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발을 씻는 것'은 '종의 일'이 아니라 '구원자의 일'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말씀하신다.

3. 통합적 구조로의 변화

교회공동체 안에서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편으로써 화해자의 역할을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화해자를 세워나가는 사역은 교회 일치적, 종교 간, 문화 간의 이해를 이끌어내는 협력 관계의 차원을 포함한다. 화해자가 된다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시대 속에서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의 위기를 '피상성'에서 발견할 수 있다. 피상성은 우리 시대의 비극이다. 오늘날 절실히 요청되는 사람은 지능이 높거나 혹은 재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깊이가 있는 사람이다.[169] 깊이 있는 영성을 갖춘 화해자가 되기 위한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다.

첫째, 지나친 물질주의적 성향이다. 오늘날 이 시대는 물질주의적 기반이 너무나도 팽배해 있기 때문에 물질적인 세계를 초월한 다른 세계에 도달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큰 의심을 품고 있다. 실질적으로 화해자의 길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초대교회가 보여주었던 물질에 대한 초월주의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에 직

[169]Richard Foster, *영적훈련과 성장*(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8), 15

변하게 된다.[170]

둘째, 내면의 삶을 어떻게 탐구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킨 직접적인 동기는 내면의 변화였다. 물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의 결과였지만 무엇이 인간이 구비해야 할 준비인가 하는 차원에서의 방법적인 모색이 필요하다. 리챠드 포스터는 이를 위하여 3분화된 훈련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1) 내적 훈련

(1) 묵상의 훈련

(2) 기도의 훈련

(3) 금식의 훈련

(4) 학습의 훈련

2) 외적 훈련

(1) 단순성(정직)의 훈련

(2) 홀로 잇기의 훈련

(3) 복종의 훈련

(4) 섬김의 훈련

3) 단체 훈련

(1) 고백의 훈련

(2) 예배의 훈련

(3)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

(4) 기뻐하는 훈련

인간의 섬김은 자기 의에서 나온 섬김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참된 섬김으로 구분할 수 있다. 화해자의 섬김은 내부 깊은 곳에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

[170] 행 2:44-45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에서 나온다. 진정한 섬김은 작은 섬김과 큰 섬김을 거의 구분하지 못한다. 진정한 화해자는 도리어 작은 섬김에 이끌린다. 자기 의의 섬김은 외적 상급을 요구한다. 인간의 칭찬을 추구한다. 그러나 진정한 섬김은 숨은 섬김을 만족하게 여기며 다른 사람의 주목을 의식하지도 않고, 추구하지도 않는다.

화해자의 진정한 섬김은 생활방식이다. 진정한 섬김은 생활의 방식에서 나온 행동이며 자연 발생적으로 솟아나서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킨다. 자기 의의 섬김은 공동체를 붕괴시킨다. 자기 의의 섬김은 다른 사람을 이용한다. 이와는 반대로 진정한 섬김은 공동체를 튼튼하게 한다. 진정한 섬김은 조용한 가운데 아무 가식 없이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돌보기를 힘쓴다. 진정한 섬김에는 치유 능력이 있다.

B. 화해자 의식 개발을 위한 시행전략

1. 청노대학을 통한 시도

본 연구자가 목회 현장에서 소그룹 중심의 화해자 의식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구체적인 시도는 목양교회의 2009년도 ‘청노대학’ 가을학기(기간: 2009.9.5-12.12) 프로그램을 통해서였다. 청노대학은 ‘노인대학’의 다른 명칭으로 65세 이상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12시까지 진행되는 수업을 통하여 야외모임을 제외한 총 11강의 ‘관계성의 법칙’ 강의하였다.

1) 먼저 목표로 삼은 것은 인생의 노년기에 찾아올 수 있는 위기상황(빈곤문제, 건강문제, 소외 문제, 죽음의 문제 등)들을 신앙적인 차원에서 점검하고 치유하는 기회로 삼고자 하였다. 특히, 이번 학기에는 인간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여러 갈등들을 지혜롭게 풀어 나갈 수 있도록 ‘관계성의 법칙’에 초점을 맞추어 체계적으로 수업을 진행해 나가고자 하였다.

2) 수업 내용

▶ 제 1강 / 관계의 중요성

인간은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존재"라는 말이 있다. 행복하다는 것은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누리고 있다는 의미요, 불행하다는 것은 잘못된 관계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다는 의미이다. 모든 관계의 근본적 원인은 자기 자신 안에 있다.

마 7:12을 황금률(Golden Rule)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황금률을 삶 속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민감성을 개발해야 한다.

▶ 제 2강 / 긍정적 자아상

관계의 출발점은 긍정적인 자아상이다. 긍정적인 자아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축복의 결과이다. 우리의 자부심은 소유, 자신이 성취한 일, 직책, 인맥, 외모 등을 통해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이 우리 자부심의 현주소이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품을 반영하고 성령과 동행하며,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 교회를 세울 때 상호 책임을 지는 관계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화해자로서의 사명을 완수하도록 한다.

▶ 제 3강 / 분노 관리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은 분노이다. 내가 기대하는 대로 상대방이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분노의 감정은 상대방보다는 나 자신에게 더 큰 원인이 있다. 분노를 관리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분노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감정이며, 거대한 에너지이다. 미숙한 사람은 화를 내고 성숙한 사람은 의분을 갖는다. 분노는 다스릴 수 있는 감정이라는 생각을 갖고 분노의 원인을 잘 분석하며 화를 사

랑으로 잘 다스려야 한다.

▶ 제 4강 / 용서

성숙한 인간관계를 위해 용서하는 일은 필수적이다. 용서는 상한 감정이 치유될 때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상처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다.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아야 한다. 용서의 참된 가치를 깨닫고 먼저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사건을 해석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하나님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구해야 한다.

▶ 제 5강 / 비난 극복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부분이 비난을 극복하는 것이다. 비난을 성숙의 기회로 생각하라.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에 대한 해석이며 반응이다. 비난을 받을 때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려는 사람은 비난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비난은 비난으로 맞대응 해서는 안 된다. 비난을 심으면 비난을 거두게 된다. 비난은 열등의식과 교만을 드러내는 것이다. 비난하면 사탄이 틈 탈 수 있고 비난을 통해서는 좋은 인간관계를 결단코 맺을 수 없다.

▶ 제 6강 / 대화

대화를 통해 서로의 존재가치를 높여줄 수 있다. 바람직한 대화의 태도는 유익을 얻기 위해 대화하지 말고, 서로간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대화를 통해 서로의 짐과 기쁨을 나눌 수 있다. 대화를 통해 인격적인 치유를 경험할 수 있다. 성숙한 대화는 하나님과의 대화, 자신과의 대화, 이웃과의 대화이다.

▶ 제 7강 / 격려

성숙한 인간관계를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다. 격려는 다른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다. 격려하는 일은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것이다. 자신을 초

월한 사람, 자신의 이기심, 탐욕, 명예욕을 초월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남을 세울 줄 아는 격려자가 될 수 있다. 화해자가 곧 격려자이다.

▶ 제 8강 / 갈등 극복

모든 문제의 해결은 선택과 결단에서 시작된다. 어떤 관계이든 사랑하기로 결정했다면 갈등의 문제 도한 극복하기로 결정해야 한다. 갈등은 좌절과 회의와 실망을 가져온다. 그러나 동시에 갈등은 살아있다는 증거이다. 갈등보다 두려운 것은 무관심과 자포자기이다. 갈등을 통해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기회가 된다.

인간의 차이를 이해함으로 갈등을 극복하라. 상대방을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자신을 먼저 변화시켜라. 변화시킬 수 없는 문제라면 신중하게 받아들이라. 대화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기다림을 통하여 갈등은 극복될 수 있다.

▶ 제 9강 / 칭찬 & 감사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비결 중의 하나가 칭찬이다. 칭찬을 통해서 창조적 자아를 발견하게 된다. 칭찬을 통해 강점을 더욱 강화하게 돈다. 칭찬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된다. 칭찬을 받게 되면 변화와 성숙을 경험하게 된다. 칭찬을 통해 아름다운 미래가 창조된다. 칭찬하는 데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먼저 관심을 갖고 상대방의 장점을 관찰해야 한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면서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내면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민감성을 개발해야 하며 칭찬은 구체적일수록 좋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칭찬은 짧고 간결할수록 좋으며 타이밍이 중요하다.

▶ 제 10강 / 기다림

성숙한 인간관계의 절정은 기다림에 있다. 대부분 인간 관계의 문제는 오래 참지 못하는 데서 온다. 우리는 사랑하는 만큼 기다리며, 기다리는 것만큼 사랑한다. 참된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의지적인 사랑이다. 사랑의 감정이 메마를 때에 중요한 것이 기다리는 것이다. 사랑은 기다리면서 무르익는다. 기다림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서로를 가꾸는 것이다.

기다림은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사랑이다. 기다림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자리를 주는 것이다. 기다림은 조용하면서도 강력한 사랑의 움직임이다. 인내하는 사람은 자신은 자신이 서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한다. 가장 나약한 사랑은 의지가 아니라 감정에 얽매인 사랑이다. 기다림은 침묵이다. 기다림은 경청이다. 기다림은 기대다. 기다림은 사랑이다. 기다림을 통해 성숙한 인간관계의 열매를 맺게 된다.

▶ 제 11강 / 관계회복

성숙한 인간관계의 법칙의 열매는 깨어진 관계의 회복에 달려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너진 세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이다. 참된 복음은 회복의 복음이다. 회복은 깨어짐의 아픔을 인정하고 직면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문제는 실패가 아니다. 문제는 다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 십자가는 회복의 장소, 화해의 장소, 새 출발하는 장소이다.

회복은 잘 준비된 작은 사건을 통해 가능해 진다. 깨어진 인간관계 때문에 겪고 있는 고통을 이해하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를 갈망하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신중하게 마련하라.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로든 인생의 회복은 가능하다고 믿는 것이다. 축복이 사명인 것처럼 고통도 사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을 경험하고 무너진 세계로 아파하는 사람들을 도와 줄 사명이 있다.

3) 평가

청노대학의 구성원들이 65세 이상의 고령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역시 인생의 요소 가운데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이 ‘관계’라는 것을 확인했다. 대부분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습득했지만 갈등을 풀어나가는 것은 여전히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인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교회 안의 개개인의 구성원들에게 관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보다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가르쳐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물론 관계 이론과 그 적용은 분명 다른 성격의 것이다. 그러나 관계에 분

명한 성경적 이론이 밑바탕이 되지 않는 한, 이상적인 관계의 틀을 형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군다나 세상적인 관계성의 이론들이 대부분이 세상적인 성공에 다다르는 처세술을 다루고 있다. 개인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측면에서 사람을 다루는 기술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적인 관계성의 정립은 곧 화해자의 길에 대한 모색이다. 화해자의 길은 이기적인 목적은 배제한 채 오히려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상대방을 세워주는 섬김의 도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나와 너의 간격을 허물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되어 한 뜻과 한 몸 된 사랑의 공동체를 추구하는 것이다.

2. 필리핀 목장모임을 통한 시도

매주 금요일 8시 30분부터 모이는 필리핀 목장 모임에 본 연구자와 아내 오미혜 사모는 목원으로 참여하였다. 비록 목자와 목녀로서 목원들을 이끌고 가는 입장은 아니었지만 평소 리더로서 그룹을 이끌어 가며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좋았다. 아울러 보다 자유로운 입장에서 목장 구성원들을 대하다 보니 예전에는 발견할 수 없었던 관계적인 부분에 대해 많은 것을 깨닫는 기회가 되었다.

본 연구자는 이 목장 모임을 통하여 다른 구성원들이 부담을 갖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접근했지만 동시에 분명한 입장에서 접근하였다. 바로 그 분명한 입장이라는 것은 목원 전체가 대화를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가정교회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고, 건강한 공동체 정착을 위하여 서로가 감당해야 할 화해자로서의 자기 역할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었다.

1) 목표와 전략

교회 안에 존재하는 갈등요인을 해소하고 교회 공동체를 통합적인 구조로 세워 나가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차원에서의 목표와 전략이 필요했다.

(1) 과거에 대한 원망 제거

과거의 잘못을 시시비비한다는 것은 미래를 희생시키고 과거에 머물러 사는 격이 된다. 용서와 화해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중에 미래를 향한 비전을 제시하고 긍정적, 창조적 대화를 많이 해야 한다. '우리와 그들'의 분위기를 빨리 청산하고 모두 다 '우리 모두 함께'의 정신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며 긍정적 발상을 유도해야 한다. 같은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며 긍정적 발상을 가지고 일치단결하여 교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2) 화해자로서의 자기역할 이해

갈등을 해소하는 화해자의 역할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사랑의 마음으로 문제에 직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경우, 문제를 직시하기 보다는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 보다 쉬운 선택이다. 특히 목회자는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문제를 과감하게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

교회가 나아갈 길을 분명히 제세함으로써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의 마음에 확신과 신뢰를 주어야 한다. 교회구성원들은 교회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짐으로써 안정감을 갖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의 상처로 되돌아가 또 다른 분쟁에 빠질 수 있다.

(4) 언행일치 노력

교회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영적 기관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심으로써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위대한 모델이 되셨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행하시며 가르치셨다고 요약하였다(행1:1). 교회 공동체는 서로에게 좋은 모범이 되어 화해자로서의 모습을 구비하기 위한 실제적인 노력을 먼저 언행의 일치에 맞추어야 한다.

(5) 인내와 확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크고 작은 분쟁이 인간 관계에서 항상 발생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이런 분쟁들을 겪을 때 확실한 기독교식 화해 방식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핵심 단어가 '인내'와 '확신'이다. 인내는 확신에서부터 나온다. 갈등은 이와 같은 기독교적 화해 방식을 통해 반드시 해결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에 인내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

(가) 사소한 일은 참는다.

타인으로부터의 개인적인 불쾌감은 나 혼자 인내하여 기도함으로써 사소한 언짢음을 풀어 나가는 것이 좋다.

(나) 당사자와 개인적으로 해결

상대방에게 느낀 불쾌감이나 손실을 법으로 해결하려는 폐단보다 다시 상대편과 만나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평화적인 해결로 문제를 종결시키는 것이 좋다.

(다) 중재자를 이용

중재(Meditation)를 이용하여 서로의 이견을 좁히며 오해도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며, 한인 사회보다는 미국 사회에서 보다 익숙한 방식이다.

(라) 교회의 도움 요청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민 사회에서도 믿는 신자끼리 서로 불편한 관계에 놓일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교회의 목사나 장로들이 당사자 간에 말씀 안에서 서로의 오해를 풀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 믿지 않는 자로 간주

위에 열거한 4가지 방법으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사례도 수없이 많으므로 이런 때는 상대자의 믿음을 의심해 봐야 되며, 도리어 믿지 않는 자로 결정지어야 할 때가 있다.

이민 교회의 특수성 중의 하나는 지연, 혈연 등으로 모인다는 것이다. 김남을 목사(성만 장로교회 담임)는 이민 교회의 특성을 이렇게 말한다.[171]

> 한국에 있는 교회들과는 달리 미국에 와서 크리스천이 된 이들이 많고 자유분방한 분위기에서 교회에 맹목적, 순종적이며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어 특정한 문제에 부딪히면 이렇게 연결되어있던 그대로 이른바 sector(분할점) 들이 갈라져 분규의 골이 패이게 된다.

이와 같은 이민교회의 분열의 특성을 극복하고 목회 현장에서 예수그리스도의 한 몸 된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수립하고자 했다.

① 갈등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므로 갈등을 해소하려면 마음의 자세를 바르게 해야 한다는 자각을 교회 공동체 안에 확립하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삼고자 했다..

② 구체적으로 갈등을 해소하는 마음의 상태는 깨끗한 마음(마5:8), 넓은 마음(고후 6:13), 바른 마음을 의미함을 강조했다. 특히 목자의 태도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③ 갈등은 밖으로부터 전염되지만 갈등의 치료는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이런 의미에서 목회자의 솔선수범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

[171]나종일,차종환,김호, 20.

④ 갈등은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동체의 생활양식을 변화시켜 대인관계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미래지향적인 사고, 평신도들이 목회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훈련, 서로를 격려하며 칭찬하는 분위기, 선교와 봉사 지향적인 사역 조건을 갖추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⑤ 성경읽기를 통하여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개발하고 그 활용을 통해 교회와 지역사회에 필요한 일원임을 깨닫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상과 같은 변화와 행정 목표에 따른 의식개혁 목표를 계획하며 이 과정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화답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또 내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자아 정체성에 대한 믿음의 성숙과 또 공동체 구성원 간의 결속이 결실로 연결되도록 의식의 변화를 유도하고 관찰토록 했다. 여기에 특별히 Site Team의 의견과 조언을 적극 반영하여 의식의 변혁을 가져오는데 최대한 Site Team의 협력에 도움을 받았다.

2) 결과 및 향후 전망

(1) 영혼구원을 위한 공동체 의식

가정교회의 관심의 핵심은 '사람의 변화' 놓여 있다. 목장도 결국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도구에 불과하다. 목장을 운영하는 근본적인 이유도 불신자들이 교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거부감을 없애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을 돕기 위한 배려이다. 기존의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전도'라고 하는 것이 교회 내의 어느 특정 그룹(전도특공대)이나 은사를 가진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집중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가정교회의 목장의 경우에는 모든 구성원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각각 그 역할을 분담하는 시스템이다. 바로 이 부분은 목장구조가 '화해자로서의 역할 수행'에 가장 적합한 유형이라고 여겨지는 이유이

다. 새신자들을 VIP라 부르며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라면 자신들의 생각, 언어, 가치관, 습관마저 변화시키려고 최선을 다한다. 이런 의미에서 본 논문의 관심사인 화해자의 역할 수행에 충실한 공동체 유형으로서 가정교회의 목장을 제시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모습은 습관적인 신앙유형에 빠져 신앙과 삶을 이원화하는 잘못에 빠지지 않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을 목장체제가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2) 주님의 섬김을 몸소 실천하는 현장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목적은 섬김의 본을 보인 것이다. 가정교회의 목장체제를 통해 본 연구자 자신도 목회자로서의 목회 방향성을 찾게 되었다. 성공적인 목회에 대한 유혹을 버리고, 주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섬김형 목회자로서의 길을 걸어가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 목장체제 안에서 평신도를 또한 직분을 일종의 계급으로 여기는 전통교회의 병폐에서 벗어나 가장 큰 자는 섬기는 자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해 나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목장이라는 공동체를 통하여 내 중심적인 이기적 신앙생활, 율법주의적인 삶, 직분을 감투로 알고 있는 신앙에서 탈피하여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시간, 물질, 개인생활을 헌신하면서 예수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되는 현장을 발견할 수 있었다.

a) 섬김의 시작은 꾸준한 기도이다.

기도 없이 영혼구원 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된다. 기도 없는 섬김은 사람의 열심일 뿐이고, 결국 탈진을 가져오게 된다. 기도로 섬길 때 주님께서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본 연구자가 경험한 바로는 새벽기도회에 참석하는 성도들의 동기가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종전의 개인적인 소원 성취형의 기도에서 목장을 통하여 온전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바라며 목자와 목녀, 목원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느낀다. 특히 목장 모임이 있는 금요일 새벽에는 목자들이 목장운영을 고심하며 기도로 매달리는 모습을 보게 된다.

본 연구자가 휴스턴 서울교회의 가정교회 세미나 참석해서 가장 놀란 것은 목자와 목녀들의 간증이었다. 그들은 일반교회의 목회자들이 겪고 있는 양육의 고통을 그대로 겪고 있었다.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한결 같이 간증하는 것은 목장을 통하여 예수그리스도의 마음, 목회자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들이 사역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가장 큰 방법은 기도였다.

많은 교회 공동체가 갈등을 겪는 가장 주된 이유는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는 방향으로 길들여져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모습과 비교해 볼 때 가정교회의 목자, 목녀들이 겪고 있는 갈등은 얼마나 생산적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통인가를 알 수 있다.

b) 섬김의 결과는 변화이다.

섬김을 통해 먼저 VIP들의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섬김 받은 VIP들이 예수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가정교회의 지체가 된다. VIP가 변화를 받는 일련의 과정은 목장 식구 모두에게 일종의 신선한 충격이며, 삶의 전 영역에 보람을 미칠 만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된다. 전통 교회 안에서 새신자가 교회에 출석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는 것과는 느낌이 확연히 다르다. 그 이유는 VIP가 소속된 목장의 구성원들이 모두 한 가족이라는 지체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 속에서 삶의 진정한 보람을 느끼며 향후 더 큰 헌신을 다짐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3) 상처가 치유되는 현장

목장은 성경공부를 위한 모임이 아니다. 삶의 문제꺼리와 상처들을 진솔하게 나누는 대화의 장이다. 가정교회하면 영혼구원의 열매를 맛보게 된다. 그런데 가정교회를 지속하다 보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열매를 맛보게 된다. 그것은 바로 상처 입은 자들의 치유이다. 치유는 치유집회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치유는 영혼구원을 하며 섬길 때 이뤄진다. 영혼구원을 하다보면, 목자, 목녀들이 바닥을 치게 된다. 바닥을 친다는 것은 내 힘으로 더 이상 할 수 없는 한계상황을 가리키는 것이다.

목자들을 만나서 면담해 본 결과 80%이상이 바닥을 쳐 본 목자, 목녀들이었고, 영혼 구원하면서 갈등하다가 자신의 상처가 치유된 경험들을 간증하였다.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상처, 이혼당한 상처, 자녀문제로 인한 상처, 동업자로부터 사기당한 상처 등을 극복하고 목자와 목녀로 헌신되어 있었다.

Ⅳ. 평가 및 유능성 개발

A. 연구반(Site team)의 평가

1. 연구반(Site team)의 조직

본 실험 연구 논문에 참여하고 함께 연구할 연구반원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 총 인원 4명 중 남자 2명, 여자 2명으로 목양장로교회의 가정교회 목장 중 필리핀 목장의 멤버들로 구성되었다. 1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이는 목장 모임을 통하여 바람직한 목장운영을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고 모든 목원들이, 나아가 VIP로 지칭되는 새신자들이 위화감을 느끼지 않고 목장 공동체 안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존 구성원들이 화해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가에 관심을 두고 연구반 모임이 진행되었다.

<표 1> 연구반원의 조직

	이 름	나 이	직 분	성 별	직책 및 기 타
1.	정석옥	52세	안수집사	남	필리핀 목장 목자
2.	유문숙	47세	집 사	여	필리핀목장 목녀
3.	오미혜	43세	사 모	여	필리핀 목장 목원
4.	안광성	38세	집 사	남	필리핀 목장 목원

1) 연구반 조직의 특성

본 연구반의 조직은 연구 단원들을 여러 공동체(목장) 내에서 구성하지 않고 전원 모두 한 공동체 내에서 구성하였다. 그 이유는 목장 운영의 특성상 한 공동체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이 거의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여러 목장의 상황들을 종합하지는 못하였지만 본 연구자와 아내인 오미혜 사모가 필리핀 목장의 일원으로 관여하면서 목장 현장의 문제들을 몸소 경험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먼저 필리핀 목장의 목자인 정석옥 안수 집사는 이민 온지 25년이 되었고 현재는 '세탁업'에 종사 중이다. 목양교회에 출석한 것은 10년 되었고, 그 전에는 브룩클린 소재 한인 연합감리교회를 섬겼다. 본 교회에서는 협동 안수집사로, 성가대원으로, 필리핀 목장의 목자로 섬기고 있다. 가정교회를 시작하면서 본인 스스로의 고백처럼 기존 교회의 '구역'개념과 가정교회의 '목장'개념이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였다. 그 결과 가정교회의 목장 운영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껴온 상황은 아니었다. 그러나 목장 모임의 횟수를 더해 가면서 보다 깊은 삶의 문제들을 대화와 기도를 통해서 풀어나가고, 목장 스스로가 선교사를 후원하고 새신자를 전도, 관리하는 가정 교회의 시스템에 적응해 나가며 적극적으로 목장을 세워나가고 있다.

목녀인 유문숙 집사는 정석옥 집사의 아내이다. 남녀인 정석옥 집사보다 먼저 목양교회를 섬겨왔고 출석한지 15년이 되었다. 남편을 도와 '세탁업'에 종사하고 있다. 바쁜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금요일 저녁 8시 30분부터 모이는 목장 모임 준비에 헌신적이다. 목장 모임의 특성상 매주 식사를 같이 나누어야 하는 부담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장을 위하여 헌신하며 남편인 정석옥 목자를 잘 보필하고 있다.

오미혜 사모는 본 연구자의 아내이다. 가정교회 보다는 기존교회를 섬기는 것에 익숙해져 있고 목원보다는 사모로서 섬김을 받는 자리에 익숙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본 연구자가 한국에서의 8년간의 담임목회를 경험하며 느꼈던 기성교회의 문제점에 대해 크게 공감하고 있던 상황에서 가정교회를 접하게 되었다. 그리고 가정교회가 기성교회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목장을 섬기고

바람직한 화해자의 역할을 함께 연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광성 집사는 아직 미혼인 상태로 본 교회를 8년간 섬기고 있다. 교회 밴으로 교인 이동을 수년 간 돕고 있다. 맨하탄에 있는 델리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직장 때문에 매주 금요일 가정에서 모이는 목장 모임에는 정기적으로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나 교회에서 모이는 목장모임을 통해 교제하고 있다. 본 연구자는 안광성 집사의 경우를 통해서는 미혼자들과 기혼자들 사이에 형성된 벽을 허물고 서로의 공통된 관심사를 통하여 어떻게 화합할 수 있는가 하는 또 다른 형태로서의 화해자의 역할을 모색하게 되었다.

2) 연구반의 운영

(1). 연구반은 2009년 9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운영하였다.

(2). 연구반은 매주 금요일과 주일에 2번 정기적인 모임이 있었다.

(3). 연구반의 원활한 운영과 연구 토의 내용을 정리할 반장 1명을 오미혜 사모로 정하였다.

2. 목회자에 대한 능력 평가

1) 가정교회 목장을 운영하는 목자에 대한 능력평가

(1) 연구반원들의 평가

이 지면을 통해서는 본 연구자가 연구반원들에 의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표 2> Site Team 주요 활동 및 DP 작성 일정

일 시	참석자	장 소	내 용
2009년 9월 6일 13:30	정석옥 유문숙 오미혜	목양교회 교제실	계획 및 오리엔테이션

2009년 9월 25일 20:30	정석옥 유문숙 오미혜 안광성	정석옥집사 가정	휴스턴서울교회 가정교회 사례 나눔
2009년 10월 18일 1600 - 19:30	정석옥 유문숙 오미혜	뉴욕중부교회	뉴욕지역 가정교회 세미나 참석(뉴욕중부교회)
2009년 11월 27일 14:00	정석옥 유문숙 오미혜	목양교회 본 당	가정교회정착을 위한 교재연구
2010년 1월 24일 ~1월 30일	유용진 오미혜	오미혜사모 가정	가정교회목회자세미나참석 (휴스턴서울교회)
2010년 2월 4일 20:30	정석옥 유문숙 오미혜 안광성	정석옥집사 가정	가정교회 목회자 세미나 평가 및 토론
2010년 2월 11일 20:30	정석옥 유문숙 오미혜	정석옥집사 가정	가정교회 운영을 위한 토론-선교부문
2010년 2월 18일 14:00	정석옥 유문숙 오미혜 안광성	정석옥집사 가정	가정교회 운영을 위한 토론 -모임 및 나눔 부문
2010년 2월 25일 20:30	정석옥 오미혜	정석옥집사 가정	설문지 조사 준비
2010년 3월 4일 20:30	정석옥 유문숙 오미혜 안광성	정석옥집사 가정	설문지의 내용 토의
2008년 3월 18일 20:30	정석옥 유문숙 오미혜	정석옥집사 가정	가정교회 운영을 위한 토론 -새신자(VIP) 부문
2008년 3월 25일 20:30	정석옥 유문숙 오미혜	정석옥집사 가정	필리핀목장 사역의 평가 및 토론

를 논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일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자가 공동체 안에서의 화해자의 역할을 가정교회의 목장 시스템에 적용하고 연구하였기 때문에 평신도로서의

목자가 가정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가는 연구과정을 논하는 것이 보다 분명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하여 가정 교회의 목자, 특히 본 연구자가 속한 필리핀 목장의 정석옥 목자를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1) 평신도 목회자로서의 목자

가정교회는 평신도 목회자에게 최대한의 권한을 부여하는 시스템이다. 그 간 제자훈련 등을 통하여 평신도의 동력을 극대화하는 다양한 형태의 평신도 운동이 존재해 왔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평신도의 영역과 목회자의 영역은 엄밀하게 구분되어 있었다. 정석옥 목자를 비롯하여 가정교회 초기에 대부분의 목자가 경험하는 것은 목자가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의 역할을 감당해 내야 한다고 하는 부담감이다. 극단적인 예로 목회자들이 자신들의 목회적 부담감을 목자들에게 전가한다는 불만의 소리도 목양교회 내에서 존재했었다. 이 부분은 기존의 전통교회에서 가정교회로 접목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교회도 피할 수 없는 공통된 현상이기도 하다. 가정 교회 시스템은 분명 목자들에게 많은 부담감을 안겨주는 것이 사실이다. 목양교회의 경우 이와 같은 부담감으로 인해 한 목장의 목자와 목녀가 목장 모임 두 번 만에 타교회로 이동하는 실례가 있었다.

정석옥 목자의 경우 많은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젊은 시절 신학교에 진학할 것을 권유하던 당시 담임 목사의 권면이 늘 마음 속에 남아 있던바 신학교에 진학하지 않고서고 평신도 목회자로서 가정교회를 섬기게 된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측면에서 가정교회 목자로서의 역할 수행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학교에 가야한다는 단편적인 생각을 접고 보다 실질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좋은 방편이 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섬기는 자로서의 목자

제자훈련이나 Q.T. 나눔 같은 유형의 모임들이 교회의 성장과 성숙에 많은 영

향력을 끼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형의 모임들이 안고 있는 단점은 소위 '엘리트 중심의 모임'이 되기 쉽다는 것이다. 실제로 배우지 못한 자들은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그러나 가정교회 시스템 안에서는 배우지 못한 자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리더로서 모임을 이끌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그 이유는 가정교회의 목장 모임이 지식을 나누는 성경공부 위주의 모임이 아니라, 섬김을 우선시하는 삶을 나누는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정석옥 목자의 경우 얼마든지 성경적으로도 다른 사람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가정교회의 시스템 속에서는 엄연히 성경교사가 별도로 존재한다. 필리핀 목장의 경우 성경교사의 역할은 오미혜 사모가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성경을 직접 가르치기 보다는 주보에 요약된 가정예배 말씀을 대신하여 읽는다. 나눔의 초점이 함께 읽은 말씀의 주제나 내용에 맞추어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목자나 성경교사나 목원이나 주어진 위치에서 서로를 섬기는 현장이 가정교회의 목장이다. 놀라운 것은 남녀노소 없이 말씀을 통해 삶을 나누는 과정에서 서로 간의 벽이 허물어지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게 되고 신앙적으로 치유되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다.

(3) 전도자로서의 목자

필리핀 목장의 경우 전체 목원의 수는 20 여명에 다다른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목장 모임에 참석하는 자들은 아동과 청년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이다. 매번 모일 때마다 목장 모임 초반에는 모인 숫자가 적어 실망하다가도 목장 모임 후반에는 항상 커다란 소망을 안고 모임을 마치게 된다. 그 이유는 목장 모임의 경우, 기존의 구역 모임과는 달리 '교제'중심이 아니라 '전도'중심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목장 모임의 나눔 시간에도 교회 생활을 오래한 사람들에게 익숙한 용어를 사용하기 보다는 일반적이고도 평이한 용어를 사용하여 삶을 나누는 목적은 '전도'

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가정교회의 목장 운영은 불신자가 신앙의 분위기를 거부감 없이 습득한 이후에 그 다음에 연합목장이라고 불리우는 주일예배에 참석하도록 하는 과정으로 연결되어 있다.

필리핀 목장의 경우 여느 목장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후원하는 선교지의 이름을 목장 이름으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필리핀 목장이 후원하는 황필한 선교사와 목장이 연계되어 서로 이메일을 통해 선교지의 상황을 접하고 기도제목을 교환하고 있다. 적은 소수가 모이는 목장일지라도 그 자체로서가 온전한 교회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전도하며 선교한다는 자부심으로 무장하고 있는 것이다.

(4) 화해자로서의 목자

본 연구자가 일전에 휴스턴 서울교회의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한 이후에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건은 목장을 섬기고 있는 목자와 목녀들의 간증을 접하게 된 것이다. 간증자 중에 어느 누구도 눈물을 흘리지 않고 간증하는 자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만큼 목자, 목녀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과정이 고통스럽다는 반증이 될 것이다. 그들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표현 가운데 “바닥을 친다”는 말이 있다.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며 경험하는 영적 침체의 과정을 평신도 목회자로서 그들 또한 통과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고통 받으며 축복의 열매로서 누리게 되는 축복은 하나님과의 화해, 사람과의 화해를 삶으로 습득하게 되는 것이다.

필리핀 목장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목자, 목녀들이 목장을 운영하는 가운데 목원들로부터 받는 상처를 통하여 경험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 목회자의 마음이다. 이것이 바로 가정교회의 목자들이 화해자로서 세워져 나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5) 상담자 또는 치유자로서의 목자

가정교회 안에서 목자의 역할은 목장에 소속되어 있는 목원들의 모든 경조사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 이민 교회의 특성상 집을 구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하여 목원들이

이민 생활에 정착하는 과정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 목자의 역할이다.

필리핀 목장의 경우 많은 인원이 참석하는 다른 목장들에 비해 서로를 향한 신뢰의 장이 비교적 일찍 열린 것이다. 목장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성'이라고 할 수 있다. 서로를 향해 정직하다고 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의미이다. 서로를 향해 믿음이 조성이 될 때, 마음이 열리게 되고 서로를 향해 깊은 내면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게 된다.

필리핀 목장의 경우 정석옥 목자가 먼저 목자로서 자신을 열어 보이는 일에 솔선수범하였다. 목장을 운영하는 다른 가정교회의 경우를 보더라도 자신을 노출시키는 일에 가장 큰 부담감을 안고 있는 자들이 목자와 목녀이다. 때때로 자신들의 개인사를 드러냈다는 이유로 부부가 원치 않는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목장의 경우에는 목자가 먼저 정직성을 보임으로 인해 다른 목원들도 용기를 가지고 보다 자신의 내면을 노출시키게 된 사례를 경험하였다. 가정 교회의 목장에서 목자가 상담자로서 혹은 치유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소유해야 한다는 의미이기에 앞서 서로의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정직성을 보일 때에 성령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다.

B. 목회자 자신에 대한 평가

이 부분에서는 가정교회를 통해 목자들을 세워나가는 목회자로서 본인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하고자 한다.

1. 영성

1) 중요성(필요성)

한국 교회의 경우 60-70년대에는 부흥회, 1980년대는 제자훈련, 90년대에는 성령과 영성이 관심의 주된 축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영성의 추구는 유행으로 치우칠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유진 피터슨은 "영성은 최신유행이 아니라 가장 오래된 진리다. 영성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깨어있는 관심이며,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신실한 반응이다"이라고 정의한다[172] 영성은 신학 혹은 교리에 의해 신앙이 정형화 되거나 규범화 되는 것을 경계한다. 나아가 영성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하여 완전하고도 성숙한 참여자가 되도록 훈련시키는 규율이며 기술이다.

2) 문제점(현 상황)

영성의 출발점은 자신의 부족함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영성의 추구는 절대적 진리를 향한 자기 열심과는 구분된다. 영성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과의 단절을 통해 신비한 영적 현상의 경험을 시도하는, 즉, 말씀에 대한 지식이 결여된 열광 혹은 체험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본인의 영성 추구는 그 방법이 다소 모호했다는 반성을 갖게 한다.

영성의 추구는 곧 순종의 출발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듣는 것에 위치시킨다. 유진 피터슨은 한 방향으로서의 오랜 순종, 나아가 그 순종이 드러나는 징표로서 '친밀함'과 '초월성'을 강조한다. 친밀감이 인간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초월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면에서 진정한 영성의 추구는 '균형감각'과 '현실성'의 추구라고 할 수 있다. 진정한 영성은 신학적 사유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친밀함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바람직한 영성의 추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과 같이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말씀의 체험과 확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

[172]유진 피터슨, *하나님의 신비에 눈뜨는 영성* (서울: 좋은 씨앗, 2003), 37.

3) 개발방법

리처드 포스터, 필립 얀시, 유진 피터슨, 고든 맥도널드와 같은 영적 멘토들의 저작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추구하는 영성의 길을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나아가 현실감 있는 영성의 추구라는 측면에서 이들의 이야기가 단편적인 정보 혹은 지식의 수준에 머물지 않도록 일상의 삶 속에서 관심을 가지고 대입시켜 나가는 시도를 할 것이다. 설교의 경우에도 단편적인 설교기법이나 지식의 나열을 경계하고 깊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영성에서 출발하는 설교를 시도할 것이다.

▣ 관심을 갖고 읽을 책들

현실 하나님의 세계(유진 피터슨의 영성1 영적 신학)(서울:한국기독학생회 출판부, 2006)

이 책을 먹으라(유진 피터슨의 영성2 영적 독서)(서울:한국기독학생회 출판부, 2006)

그 길을 걸으라(유진 피터슨의 영성3 제자도)(서울:한국기독학생회 출판부, 2007)

영혼을 생기나게 하는 영성, 브루스 디마레스트, 김석원(서울:쉴만한 물가, 2004)

균형의 영성, 토미테니, 이상준 (서울:토기장이, 2007)

2. 인간관계 개발론

1) 중요성(필요성)

<카네기 인간관계론>은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인간경영 리더십으로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4단계로 구분하고 있다.[173]

• 1단계－우호적인 사람이 되라.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키워라.

• 2단계－열렬한 협력을 얻어내라. 타인과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능력을 키워라.

• 3단계－리더가 되라.

• 4단계 감동－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되라. 비전을 공유하고 열정을 불어 넣은 능력을 키워라.

목회는 인간을 상대로 하는 사역임을 감안할 때 관계개발을 위한 노력은 필수적이다. 다만 그 방향성이 세상의 처세술과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세상의 처세술이 자신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을 방법을 제시하는 노력이라면, 목회적인 인간 관계론은 효과적인 섬김을 바탕으로 공동체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는 것에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2) 문제점(현 상황)

다양한 사람과 복잡한 상황을 끌어안기에는 본인의 목회자로서의 mentality가 너무 편협했던 것 같다. 예를 들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는 타협할 수 없는 '양자택일'의 문제라 생각했던 적이 있다. 그러나 생각의 방향을 조정함에 따라 이 문제는 오히려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을 경험했

---

173 데일카네기, 최염순, *카네기 인간관계론* (서울 :씨앗을 뿌리는 사람, 2003), 12.
데일 카네기(Dale Carnegie, 1888~1955): 1888 년 미국 미주리 주의 매리빌에서 태어나, 워런스버그 주립 사범대학교를 졸업한 뒤 교사, 세일즈맨 등 다양한 사회생활을 경험하였다. 1912년 YMCA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화술강좌를 개설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카네기 연구소를 설립, 동서양의 문화를 접목시켜 인간경영 분야에 기념비적인 업적을 남겼다. 그의 저서 『카네기 인간관계론 How to Win Friends and Influence People』은 각 나라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 수천만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다. 그는『카네기 행복론 How to Stop Worrying and Start Living』,『카네기 스피치&커뮤니케이션 The Quick and Easy Way to Effective Speaking』등의 저서에서 대중들이 흔히 겪는 대화, 연설, 스트레스, 걱정에 대한 해결책을 명쾌한 원칙들로 제시하고 있다.

다. 목회자의 편협한 자기기준이 때때로 공동체를 양극화 시킬 수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인간관계의 최고봉은 ‘덕을 세우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롬14:19)

3) 개발방법

“ 인간관계를 통해 형성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갈등을 자기정체성의 재발견의 기회로 삼는 것이다. 인간관계를 다루고 있는 책 중에서 카네기의 책들은 비교적 고전에 속하는 것이다. 시대의 유행에 민감하기 보다는 원론에 충실한 책이라는 느낌이 든다. 우선 그의 저서들의 기본적인 가르침을 정리하고, 목회적으로 어떻게 접목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발견하려고 한다. 아울러, 인간관계의 개발이 어떤 기법 혹은 기술을 습득하는 데에만 국한되지 않도록 섬김의 근본정신을 유지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 관심을 갖고 읽을 책들

카네기 인간 관계론, 데일 카네기, 최염순(서울: 씨앗을 뿌리는 사람, 2004)

데일카네기 성공 대화론:Public Speaking & Influencing Men, 데일 카네기(서울:리베르, 2007)

카네기 스피치 & 커뮤니케이션, 데일 카네기,최염순(서울: 씨앗을 뿌리는 사람, 2004)

데일 카네기 자기관리론, 데일 카네기,강성복,(서울:리베르, 2007)

나만의 80/20법칙 만들기, 리처드코치, 신동기(서울:21세기북스, 2005)

인간사색:한국인의 인간관계에 대하여, 강준만(서울:개마고원, 2006)

3. 설교

1) 중요성(필요성)

설교에 대한 많은 정의 가운데 John Stott의 정의를 선호한다. 그는 설교를 가리켜 '다리 놓기'(Bridge-building)라고 하였다.[174] 즉 참된 설교는 성경의 세계(ancient world)와 오늘의 세계(modern world) 사이에 다리를 놓는 작업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설교자들은 이 두 세계에 다리를 놓아 연결시키는 다리 놓는 사람들(bridge-builder)이다. 설교자는 당면한 시대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 상황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전할 수 있는 민감한 영성을 소유해야 할 것이다.

2) 문제점(현 상황)

성경 강해 중심의 설교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다. 신앙적으로 연륜이 있는 자들의 경우 성경 그 자체를 배운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미 있는 접근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회중들은 설교의 출발이 자신의 need에서 출발해서 성경에서 결론을 이끌어 내는 방식에 더욱 매력을 느끼는 것 같다. 문제는 Context를 읽어내는 접근이 판에 박히거나 예리하지 못함으로 인해 Text와의 연결이 자연스럽지 못할 뿐더러 설교가 구성적인 면에서 전반적으로 긴장감이 떨어질 때가 많았던 것 같다. 결과적으로 회중의 필요를 채워주는 처방을 내리기 보다는 설교자 자신이 익숙하거나 상대적으로 자신이 있는 주제에만 연결시킴으로써 전반적으로 설교가 다루는 폭이 다양하지 못하고 좁아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3) 개발방법

회중의 삶을 보다 긴밀하게 이해할 수 있는 노력의 일환으로써 평상적인 삶 속에서 사건, 혹은 사물에 대한 다양하고도 분명한 관점 개발의 필요성을 느낀다. 폭넓은 독

---

[174]John Stott. 안병만, *설교의 원리와 방법* (서울: 프리셉트, 2001), 12.

서와 함께 깊은 인간이해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심방, 소그룹 교제들을 통해 청중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접촉 기회를 얻어야 할 것이다. 한편 text에 대한 깊은 지식을 평소에 확보함으로써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context를 이해하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도록 context와 text사이에서 균형감각을 확보하는 훈련을 해야 할 것이다.

▣ 관심을 갖고 읽을 책들

설교와 설교자, 마틴로이드 존스, 정근두(서울: 복있는 사람, 2005)

네 페이지 설교, 폴 스콧 윌슨, 주승중(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6)

성경적인 설교와 설교자, 해빈 로빈슨, 전의우(서울: 두란노, 2006)

성경적인 설교준비와 전달, 해빈 로빈슨, 이승진(서울: 두란노, 2006)

V. 결 론

이민교회 안에 존재하는 계층 간의 갈등구조는 다분히 문화적인 요소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다. 마치 초대 교회 안의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이 갈등을 겪었던 상황과 흡사한 상황이 여전히 전개되고 있는 것과 같다. 전자가 신앙의 전통적 요소를 고수하며 다소 선민의식에 빠져 있고 배타적 성향이 강한 기존의 그룹이라면, 반면 후자는 다양한 문화를 접할 기회를 통해 개방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지만 숫자적으로는 열세인 그룹이다.

초대교회가 갈등을 풀어나가는 과정에는 분명한 원칙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첫째, 표면적 원인이 근본 원인이 아님을 직시했다. 구제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과 함께 근본적으로는 교회의 구조를 개선하는 방편으로써 사도들은 본연의 임무를 점검하고 갈등해결을 위하여 일곱 집사를 선출한다.

둘째, 끊임없이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성을 점검해야함을 보여준다. 구조적으로는 선교지향적인 교회를 추구하는 것이요, 기능적으로는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리더십을 형성하는 것이다.

셋째, 갈등을 숨기기보다는 개혁의 기회로 삼는 적극성이 요청된다. 초대교회의 일곱 집사의 선출은 교회 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숫자적으로는 절대 소수일지라도 개방적 마음을 품고 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창조적 소수가 필요하다. 이들이 바로 화해자이다.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교회 개혁의 방향성은 지도자의 자기 쇄신과 평신도의 동력화라는 차원에서 위로부터의, 나아가 아래로부터의 방향성이 동시에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계층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길은 자기 그룹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뛰어 넘어 과연 '교회는 무엇인가?' 하는 원론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계속해서 찾아 나가는 것

이다.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 현실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의 현상이요 사실이며 역사적 사건이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한스 큉의 말은 화해자의 길을 모색하는 자들에게 커다란 경각심을 심어준다.

> " 신앙도 교회도 절대화되어서는 안 된다. 절대화된 신앙은 교회를 붕괴시킨다. 이것이 프로테스탄트의 위험이다. 절대화된 교회는 신앙을 파산시킨다. 이것이 카톨릭의 위험이다"

화해자에게는 '전통을 고수하는 것'과 '새롭게 개혁하는 것'과의 경계를 정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전통을 고수한다는 편협함으로 개혁에 소극적인 보수주의적 태도만큼 위험한 것은 과거의 유산을 오로지 개혁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무분별한 개방주의적 태도이기 때문이다..

◨ 부록 1. 가정교회 사역을 위한 설문조사

■ 목 적 : 기존의 전통교회와 가정교회 사역을 비교분석하여 가정교회 내에서 화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목자, 목녀들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어 오늘의 상황을 파악하고, 목자와 목녀의 고충과 의견을 수렴하여 그 동안의 시행착오를 바로잡고 결과적으로 가정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우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방 법 : 무명으로 하되 설문에는 해당되는 곳에 o표만 해 주십시오.

1. 나는 목자로 섬겨왔다(　　).　　나는 목녀로 섬겨왔다 (　　).

2. 현재의 가정교회 체제를 과거의 구역 체제와 비교하면
   1) 나는 가정교회 목장이 구역 모임 보다 훨씬 좋다. (　　)
   2) 나는 가정교회 목장이 구역 모임 보다는 대체로 좋다. (　　)
   3) 나는 가정교회 목장과 구역 모임의 차이를 모르겠다. (　　)
   4) 나는 구역 모임이 가정교회 목자 모임보다 대체로 좋았다. (　　)
   5) 나는 구역 모임이 가정교회 목장 모임보다 훨씬 좋았다. (　　)

3. 현재의 가정교회 모임과 과거의 구역 모임에 대한 네 목장 식구들의 반응은
   1) 가정교회 모임을 훨씬 더 좋아하고 있다. (　　)
   2) 가정교회 모임을 대체로 좋아하고 있다. (　　)
   3)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 같다. (　　)
   4) 구역 모임을 그리워하고 있다. (　　)
   5) 구역 모임을 아주 그리워하고 있다. (　　)

4. 우리 목장 모임은

1) 매주 꼭 모인다. (　) 2) 거의 매주 모인다. (　)

3) 한 달에 한 번쯤 못 모인다.(　) 4) 힘들다.(　)

5. 목자와 목녀로서 봉사하는 것이 지금

1) 아주 좋아한다.(　) 2) 보통으로 좋다.(　) 3) 그저 그렇다.(　)

4) 힘들다.(　) 5) 아주 힘들다.(　)

6. 우리 목자 혹은 목녀(목동)는 목장 섬김을

1) 아주 좋아한다.(　) 2) 좋아한다.(　) 3) 그저 그렇다.(　)

4) 싫어한다.(　) 5) 아주 싫어한다.(　)

7. 나는 목자 혹은 목녀 사역하는 것을

1)계속하고 싶다.(　) 2)쉬고 싶다.(　) 3)그만두고 싶다.(　)

8. 나는 우리 목장을

1)계속하고 싶다.(　) 2)다른 목장과 합하고 싶다.(　)

3)폐지하고 싶다.(　)

9. 우리 목장에는 다른 목장으로 가고 싶어 하는 식구들이

1)있는 것이 확실하다.(　) 2)있을 것 같다.(　) 3)잘 모르겠다.(　)

4) 없을 것 같다.(　) 5) 없는 것이 확실하다.(　)

10. 우리 목장에는 다른 목장으로 보내는 것이 유익이 될 것 것은 식구가

1) 있다.(　) 2) 모르겠다.(　) 3) 없다.(　)

11. 새해에 교인들이 목장을 옮길 수 있는 계기를 공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1) 꼭 필요하다.(　) 2) 필요하다.(　) 3) 모르겠다.(　)

4) 필요 없다.(　) 5) 오히려 손해가 된다.(　)

12. 우리 목장에서는 나눔 시간이

1) 아주 잘되고 있다.(　　) 2)잘되고 있는 편이다.(　　) 3)보통이다.(　　)
4) 잘 안 되는 편이다.(　　)　5) 아주 안 되고 있다.(　　)

13. 우리 목장의 나눔의 시간은 평균

1)3시간 이상(　　)　2) 2시간 이상(　　)　3) 1시간 30분 안팎 (　　)
4) 1시간 이상(　　)　5) 1시간 미만 (　　)

14. 목장의 식사대접은

1) 목자가 90%이상(　　)　2) 목자가 70%이상(　　) 3) 50%이상(　　)
4) 30%이상(　　)　　5) 식구가 돌아가면서 한다(　　)

15.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1) 많이 된다.(　　) 2) 좀 느낀다.(　　) 3) 전혀 부담이 안 된다.(　　)

16. 우리 목장 식구의 주일 오전 예배 참석자와 목장 참석자의 비율은

1) 주일 예배보다 목장 참석이 더 많다. (　　)
2) 주일 예배와 목장 참석 인원이 같다. (　　)
3) 주일 예배 참석자 70% 이상이 목장에 나온다. (　　)
4) 주일 예배 참석자 50% 이상이 목장에 나온다. (　　)
5) 주일 예배 참석자 30% 이상이 목장에 나온다. (　　)

17. 우리 목장은 가정교회를 통해 식구가

1) 늘었다.(　　)　2) 그대로이다. (　　)　3) 줄었다.(　　)

18. 우리 목장은 앞으로 가정교회를 통해 식구가

1) 늘 것 같다.(　　) 2) 그대로일 것 같다.(　　) 3) 줄 것 같다.(　　)

19. 우리 목장에는 예비 목자가 될 후보가
  1) 아주 잘할 것 같은 후보가 있다.(　　)
  2) 그런대로 잘 할 것 같은 후보가 있다.(　　)
  3)지금은 없지만 6개월 정도 지나면 생길 것 같다.(　　)
  4) 금년 중으로 생길 것 같다.(　　)
  5) 금년 안에는 생길 것 같지 않다.(　　)

20. 기타 교역자에게 건의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뒷면에 써 주십시오.

◨ 부록 2. 가정교회 사역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 목 적 : 기존의 전통교회와 가정교회 사역을 비교분석하여 가정교회 내에서 화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목자, 목녀들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어 오늘의 상황을 파악하고, 목자와 목녀의 고충과 의견을 수렴하여 그 동안의 시행착오를 바로잡고 결과적으로 가정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우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방 법 : 무명으로 하되 설문에는 해당되는 곳에 o표만 해 주십시오.

1. 나는 목자로 섬겨왔다(18). 나는 목녀로 섬겨왔다 (18).

2. 현재의 가정교회 체제를 과거의 구역 체제와 비교하면
  1) 나는 가정교회 목장이 구역 모임 보다 훨씬 좋다. (8)(44%)
  2) 나는 가정교회 목장이 구역 모임 보다는 대체로 좋다. (7)(38%)
  3) 나는 가정교회 목장과 구역 모임의 차이를 모르겠다.(2)(11.1%)
  4) 나는 구역모임이 가정교회 목자 모임보다 대체로 좋았다.(1)(5%)
  5) 나는 구역 모임이 가정교회 목장 모임보다 훨씬 좋았다. ( )

3. 현재의 가정교회 모임과 과거의 구역 모임에 대한 네 목장 식구들의 반응은
  1) 가정교회 모임을 훨씬 더 좋아하고 있다. (9)(50%)
  2) 가정교회 모임을 대체로 좋아하고 있다. (6)(33%)
  3)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 같다. (2)(11.1%)
  4) 구역 모임을 그리워하고 있다. (1)(5.5%)
  5) 구역 모임을 아주 그리워하고 있다. ( )

4. 우리 목장 모임은

1) 매주 꼭 모인다. (14)(77%) 2) 거의 매주 모인다. (2) (11.1%)

3) 한 달에 한 번쯤 못 모인다.(1)(5.5%) 4) 힘들다.(1)(5.5%)

5. 목자와 목녀로서 봉사하는 것이 지금

1) 아주 좋아한다.(5)(27%) 2) 보통으로 좋다.(6)(33%)

3) 그저 그렇다.(3)(16.6%) 4) 힘들다.(2)(5.5%)

5) 아주 힘들다.(2)(5.5%)

6. 우리 목자 혹은 목녀(목동)는 목장 섬김을

1) 아주 좋아한다.(4)(22%) 2) 좋아한다.(5)(27%)

3) 그저 그렇다.(5)(27%) 4) 싫어한다.(3)(16.6%)

5) 아주 싫어한다.(1)(5.5%)

7. 나는 목자 혹은 목녀 사역하는 것을

1) 계속하고 싶다.(13)(72%) 2) 쉬고 싶다.(3)(16%)

3) 그만두고 싶다.(2)(11.1%)

8. 나는 우리 목장을

1)계속하고 싶다.(13)(72%) 2)다른 목장과 합하고 싶다.(4)(22.2%)

3) 폐지하고 싶다.(1)(5.5%)

9. 우리 목장에는 다른 목장으로 가고 싶어 하는 식구들이

1) 있는 것이 확실하다.(3) (16.6%) 2) 있을 것 같다.(4) (22.2%)

3) 잘 모르겠다.(2) (11.1%) 4) 없을 것 같다.(5) (27.7%)

5) 없는 것이 확실하다.(4) (22.2%)

10. 우리 목장에는 다른 목장으로 보내는 것이 유익이 될 것 것은 식구가

1) 있다.(2)(22.2%) 2) 모르겠다.(5)(27.7%) 3) 없다.(9)(50%)

11. 새해에 교인들이 목장을 옮길 수 있는 계기를 공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1) 꼭 필요하다.(5)(27.7%) 2) 필요하다.(3)(16.6%)

3) 모르겠다.(4)(22.2%) 4) 필요없다.(4)(22.2%)

5) 오히려 손해가 된다.(2)(11.1%)

12. 우리 목장에서는 나눔 시간이

1) 아주 잘되고 있다.(3)(16.6%) 2) 잘되고 있는 편이다.(6)(33.3%)

3) 보통이다.(5)(27.7%) 4) 잘 안 되는 편이다.(2) (11.1%)

5) 아주 안 되고 있다.(2)(11.1%)

13. 우리 목장의 나눔의 시간은 평균

1) 3시간 이상(2)(11.1%) 2) 2시간 이상(2)(16.6%)

3) 1시간 30분 안팎 (4)(22.2%) 4) 1시간 이상( )

14. 목장의 식사대접은

1) 목자가 90%이상(2)(11.1%) 2) 목자가 70%이상(12)(66.6%)

3) 50%이상 (1)(5.5%) 4) 30%이상.( )

5) 식구가 돌아가면서 한다.(3)(16.6%)

15.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1) 많이 된다.(10)(55.5%) 2) 좀 느낀다.(6)(33.3%)

3) 전혀 부담이 안 된다. (2)(11.1%)

16. 우리 목장 식구의 주일 오전 예배 참석자와 목장 참석자의 비율은

1) 주일 예배보다 목장 참석이 더 많다. (1)(5.5%)

2) 주일 예배와 목장 참석 인원이 같다. (2)(11.1%)

3) 주일 예배 참석자 70% 이상이 목장에 나온다. (8)(44.4%)

4) 주일 예배 참석자 50% 이상이 목장에 나온다. (5)(27.7%)

5) 주일 예배 참석자 30% 이상이 목장에 나온다. (2)(11.1%)

17. 우리 목장은 가정교회를 통해 식구가

1) 늘었다.(4) (22.2%) 2) 그대로이다. (12) (66.6%)

3) 줄었다.(2)(11.1%)

18. 우리 목장은 앞으로 가정교회를 통해 식구가

1) 늘 것 같다.(12)(66.6%) 2) 그대로일 것 같다.(4)(22.2%)

3) 줄 것 같다. (2)(11.1%)

19. 우리 목장에는 예비 목자가 될 후보가

1) 아주 잘할 것 같은 후보가 있다.(5)(27.7%)

2) 그런대로 잘 할 것 같은 후보가 있다.(6)(33.3%)

3)지금은 없지만 6개월 정도 지나면 생길 것 같다.(3)(16.6%)

4) 금년 중으로 생길 것 같다.(2)(11.1%)

5) 금년 안에는 생길 것 같지 않다.(2)(11.1%)

20. 기타 교역자에게 건의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뒷면에 써 주십시오.

◨ 부록 3. 화해자 영성 개발을 위한 교재

1) 화해자의 '자기 발견' 질문 사항

화해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일에 부름 받은 자다. 과연 당신은 자기 자신에 대해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다음 질문들을 통하여 화해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자기발견'의 기회를 삼으라.

◆ 당신 스스로 자신의 장점이라고 여기는 세 가지는 무엇인가? 순서대로 기록하라.

1.____

2.____

3.____

◆ 당신이 60세가 되기 전에 이루고 싶은 일 가운데 특별히 측정 가능한 것 열 가지는 무엇인가?

1.____

2.____

3.____

4.____

5.____

6.____

7.____

8.____

9.____

10.____

◆ 잠재적으로, 도독적으로, 윤리적으로, 혹은 법률적으로 당신을 상처 입히기 쉬운 가장 긴급한 개인적인 필요 세 가지는 무엇인가?

1.____

2.____

3.____

◆ 당신을 개인적으로 위협하는 세 사람은 누구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1.____

2.____

3.____

◆ 당신의 멘토(혹은 멘토가 될 가능성이 있는) 세 사람은 누구인가?

1.____

2.____

3.____

◆ 당신이 “언젠가는 지니고 싶은 이상적인” 호칭은 무엇인가? (예를 들면, 대통령, 지도자. 선생님, 친구 등)

1.____

2.____

3.____

◆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싶은 세 가지 일은 무엇인가?

1.____

2.____

3.____

◆ 지금 이 시점에서 당신의 인생을 가로 막는 가장 큰 장애물 세 가지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1.____

2.____

3.____

◆ 앞으로 5년 안에 개인적으로 가장 큰 발전을 이루고 싶은 세 가지 영역은 무엇인가?

1.____

2.____

3.____

◆ 당신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세 가지 방해물은 무엇인가?

1.____

2.____

3.____

◆ 당신은 10년 후의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가?

____

____

◆ 당신이 마음 속 깊은 곳에 담아 놓고 절대 말로 꺼낼 수 없었던 것 가운데 함께 나누고 싶은 한 가지 주제는 무엇인가?

____

____

◆ 당신의 인생에서:

이정표가 될 만한 획기적인 사건은?

____

____

아직 남아 있는 상처나 충격은?

____

____

의문점은?

____

____

당신은 어떤 유형으로 다른 사람을 지도한다고 생각하는가?

____

____

당신은 성장하면서 가족들 개개인과 어떤 관계로 지내왔는가?

____

____

당신이 새로이 만들 필요가 있는(만들기 원하는) 세 가지 인간관계의 다리는 무엇인가?

1.____

2.____

3.____

당신과 가장 밀접한 친구 다섯 명은 누구인가? 그 이유는?

1.____

2.____

3.____

4.____

5.____

어떤 주제든 함께 이야기하며 나누고 싶은 것 다섯 가지를 기록하라.

1.____

2.____

3.____

4.____

5.____

2) 낮아짐과 섬김의 모델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삶은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 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빌 2:5-6)를 입으신 분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명예와 부를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나 그 분은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셨다.

예수의 삶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치를 진단하는 척도요 모델이다. 예수의 눈은 낮은 곳으로 향하신다. 예수의 발은 낮은 곳을 향해 걸으신다. 그 목적은 바로 그 낮은 곳을 높이고자 함이요 그 낮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채우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예수의 역사의 방향이다.

그러므로 예수를 따르는 기독교 영성훈련은 예수를 따라 낮은 곳으로 내려가며,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며, 종 됨을 감사하며, 버리고 비우는 것을 기뻐한다. 나아가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곁으로 찾아가며, 도움이 필요한 소자들을 섬기며, 낮아질 때에 감사하고 찬양한다. 이것은 곧 화해자가 추구해야할 삶의 방향이기도 하다.

◆ 빌립보서 2장 5-11절까지 읽기

1. 바울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삶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는가?(5절)

___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가지고 계셨던 '마음의 틀'(mind-set)을 우리의 속에 옮겨 놓고 살아가라는 말씀이다. 바로 지금 당신의 속에는 예수의 '마음의 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을 지배하는 '마음의 틀'은 무엇인가? 당신의 마음의 틀을 점검하기 위해서 다음 질문에 답하라.

1) 지금 당신이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을 세 가지 쓰고 다음 도표대로 그 소원들이 예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점검하라.

	당신의 소원	그 소원은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인가?	예수께서 원하는 소원인가?
1			
2			
3			

2)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정성과 마음을 쏟고 행하였던 일 세 가지만 쓰고 점검하라.

	당신이 한 일들	그 일을 할 때에 이것은 주 예수의 일이라고 믿었는가?	그 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가?
1			
2			
3			

2. 바울은 예수의 '마음의 틀'이 무엇임을 6-8절 사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예수의 마음의 틀은 무엇이었는가?

6절

7절 상반절

7절 중반절

7절 하반절

8절 상반절

8절 중반절

8절 하반절

---

1)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반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거역하였다. 화해자의 길은 아담과 하와의 길을 거부하고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를 따르는 길이다. 다음 구절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점검하라.

요 14:10

요 10:37-38

요 5:19

요 12:49-50

요 8:29

____

요 6:38-40

____

2) 예수는 '자기를 비워' 종의 신분이 되셨다. 여기서 종이라는 말의 원어는 '노예'라는 말에 가깝다. 예수는 노예의 길을 택하셨다. 사탄과 죄악의 길은 '하나님 같이'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노예와 같이' 되는 것이다. 마가복음 10:42-45절을 일고 이방인의 길(사탄의 길)과 제자의 길과 예수의 길을 비교해 보라.

이방인의 길	제자의 길	예수의 길
42절 상반절	43절	45절 상반절
42절 하반절	44절	45절 중반절
		45절 하반절

당신은 지금 예수를 따르는 화해자의 길을 걷기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5가지를 적고 그룹과 함께 나누어 보라.

1.____

2.____

3.____

4.____

5.____

3) 빌 2:8절은 아래로 내려가는 예수님의 삶의 4단계를 말씀하고 있다. ①사람이 되심, ②자기를 낮추심, ③복종하는 삶을 사심, ④십자가에 죽으심. 예수님의 삶의 방향은 위로 올라가는 삶이 아니라 내려가는 삶이다. 점점 나아지는 삶이 아니라 점점 험악해지고 고통스러워지고 외로워지고 가난해지는 삶이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할 회해자의 삶이다.

다음 구절들을 읽으면서 예수께서는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그 고통의 대가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는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있으며 예수께서는 그 대가로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찾아보라.

눅 19:8-10

____

막 3:1-6

____

요 5:9-18

____

이사야 53:5

____

벧전 2:22-25

____

3. 그룹으로 나누어 오늘 우리 교회가 기적과 구원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영광의 교회가 되기 위해 어떤 화해자의 길, 섬김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지 토의하고 합심 기도하라.

3) 화해자의 사회적 참여와 봉사

기독교 영성은 세 가지 요소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 요소는 '관계성'이다. 초월적 존재이신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의 삶이 곧 영성이다. 두 번 째 요소는 감각세계를 뛰어넘는 초월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의 삶은 우리 인간에게 초월의 체험을 얻게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깨달음을 얻으며, 새로운 삶의 방향을 받으며,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을 부여 받는다. 세 번째 요소는 초월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체험되고 확장된 우리의 인식과 삶은 구체적인 역사현장에서 그 본질을 받으며 그 현장에서 행동 실천을 통해 구체화 된다. 바로 이 세 번 째 요소가 참여와 봉사의 장이 된다. 화해자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주어진 환경과 사회 속에서 실현시켜 나가려는 움직임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1. 히브리인의 사회적 희망은 가난한 자와 고난당하는 자가 없어지는 것이었다. 신 15:4-5절은 이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____

____

당신은 지금까지 주변의 가난한 자와 고난당하는 자를 향하여 어떤 태도와 입장을 지니고 있었는지를 이야기해 보라.

____

2. 하나님의 복에 대한 약속은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권고와 함께 등장한다. 신 15:11절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네 손을 펼치리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는가?

____

____

3.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분배하는 삶의 방식은 행 2-5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행 4:34절에 따르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신 15:5)는 율법의 약속이 사실상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기독교인의

삶의 스타일은 최초의 기독교인의 의식에서 깊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오늘 날의 교회가 초대교회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점은 무엇이며, 시급하게 요청되는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되는가?

---

4. 사도바울은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 몸의 각 지체로 비유하고 있다.(고전 12:12-27) 바울은 이 비유를 통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다. 첫째는 몸의 각 지체는 자기의 기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몸의 각 지체는 서로의 덕을 세우는 데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몸의 지체는 자기가 받은 기능과 사명대로 열심히 봉사하고 서로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화해자로서의 봉사와 참여'라는 또 하나의 훈련의 장을 발견하게 된다.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몸의 지체로서의 기능은 무엇이고(은사), 덕을 끼치는 화해자로서의 사명을 구체화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5. 요일 1:3-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봉사하는 모든 이에게 두 가지의 복을 주신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인가?

우리는 봉사를 단순한 봉사로 생각한다. 그러나 봉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는 기회요, 주님과 사귐을 갖는 장이다.

4) 화해자의 리더십: 창의력 개발

Carl F. H. Henry는 “좋은 생각에 의해 견고해지지 않으면 나쁜 생각들에 의해 희생되고 만다”고 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화해자로 살기 위해 시급하게 요청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창의력’이다. 과연 창의력은 누구에게 필요한 것인가?

행 6장에 보면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은 구제 문제로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이 때 사도들이 한 것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집중하고 구제를 전담할 수 있는 일곱 집사를 선출하게 된다. 그 선별 기준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이었다. 이 기준은 창의력을 갖춘 사람이라는 말과도 다를 바 없다. 창의력을 지닌 사람들이 공동체를 위기에서 건져내는 화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단지 은사를 받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창의적이라는 생각은 가장 완고하고 해로운 편견이다.

1. 자신의 창의적인 잠재력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자신을 창의적인 사람으로 보는가 아니면 창의적이지 않다고 보는가? 이유는?

____

____

2. 자신의 창의성을 평가해보기 위해 다음의 목록을 사용하라.

	예	아니오
A. 한 번 결정한 것은 좀처럼 바꾸지 않는다.	________	________
B. "즐기기보다는 일을 하자‘는 규칙을 따른다.	________	________

C. 자신에 대한 자아 존중감에 비교하면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감은 매우 적은

편이다. ________ ________

D. 애매모호하지 않고 확실한 답을 알아낼 가 능성이 없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좋아 하지 않는다. ________ ________

E.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해줄 때 그의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________ ________

F. 규칙을 따르지 않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것을 즐기는 편이다.
________ ________

G. 대부분의 질문에는 단지 하나의 올바른 답이 있다.
________ ________

H.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그들이 일이나 상황을 충분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________ ________

3. Charles Kettering은 올바로 규명된 문제는 이미 반이 해결된 문제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창의성이 아닌 것과 정확하게 창의성인 것을 구분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Howard Henricks은 창의성이 아닌 것을 이렇게 구분한다. 첫째, 창의성이란 변화를 위한 변화가 아니다. 둘째, 창의성이란 항상 유익한 것은 아니다. 셋째, 창의성이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넷째, 창의성이란 항상 독창적인 것은 아니다.

창의성에 대한 단일화 된 통일성 있는 정의는 없다. 다만 '창조하다'(create)라는 동사는 '키우다. 자라게 하다(grow)'라는 의미를 지닌 라틴어 단어에서 유래되었다. 웹스터 사전에 의하면, 이 용어는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 존재하게 하다. 새로운 형식을 입히다. 일련의 행동이나 행위를 통해...을 일으키다. 기발한 기술을 통해

…을 야기시키다. 어떤 새로운 것을 고안하다‘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1) 당신 마음에 드는 창의성에 대한 독창적인 정의를 만들어 보라.

____

2) 창의성에 대한 다음의 정의를 평가해 보라: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 혹은 기존의 것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재배치하는 것

____

4. “창의성이 과연 성경적인가?” 하는 질문은 중요하다. A.W.Tozer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신학자 Carl F. H. Henry는 “우리 시대의 지식의 폭증에도 불구하고 오늘 날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안다”고 말한다. 바로 그 차이점이 창의성 때문에 생긴다고 볼 수 있다. 창의성의 성경적 근거를 발견하기 위해 다음 성경 구절들을 살펴보라.

1) 시편 104편을 읽으라. 창조를 통해 하나님이 자신의 창의력을 드러내신 방법들을 모두 적어보라.

____

2) 시편 8편 3절에서 8절을 읽으라. 시편 104편에서 관찰한 것에 의하면, 인간으로 하여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8:6)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어떻게 다스리는 것이 창의력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

____

3) 당신 자신의 능력에 대해 생각해 보라. 어떤 면으로 당신은 당신의 창의력을 나타내는가? 당신이 소유한 이러한 창의력의 근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당신의 창의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 사실이 당신이 소유한 재능을 활용하는 방식에 끼치는 의미는 무엇인가? 당신은 그러한 재능을 어떻게 계발시킬 수 있는가?

―――

____

5. 화해자가 된다는 의미는 갈등 구조 속에서도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자가 된다는 의미이다. 창의적인 문제 해결 과정은 다섯 부분을 요구한다.

① 사실 발견 단계(Fact－finding stage): 문제를 정의하기 위한 준비로써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함.

② 문제 발견 단계(Problem－finding stage): 해결되어야 할 핵심 문제를 집어내기 위해 다루기 힘든 많은 영역들을 분석함

③ 아이디어 발견 단계(Idea－finding stage): 아이디어를 끌어내고, 그것들을 잘 연구하며, 해결로 이끌 수 있는 가능한 한 많은 실마리들을 얻음.

④ 해결책 발견 단계(Solution－finding stage): 정의된 기준에 따라 가능한 잠재적인 해결책들을 평가함.

⑤ 행동 발견 단계(Action－finding stage): 행동 계획을 개발하고 채택하며, 선택된 해결책을 이행할 방도를 강구함.

1) 위에 요약된 5단계 과정을 따라, 오랫동안 당신의 마음을 거슬리게 했던, 해결을 요하는 문제 하나를 선택하라.

• 사실 발견: 이 문제가 진짜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들은 무엇인가? 고통이 있는가? 불평이 있는가? 조가 있는가?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가? 개선했으면 하는 욕구가 있는가?

• 문제 발견: 이 문제로 인한 증상들이 무엇이며,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가? 너무 급한 결론에 도달하지 않도록 유의하라. 문제의 진정한, 근원적인 핵심이 무엇인지 당신은 어떻게 결정할 수 있겠는가?

• 아이디어 발견: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당신은 어떤 아이디어들을 산출 할 수 있는가?

• 해결책 발견: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당신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당신이 얻었던 아이디어들 중 어떤 아이디어가 근원적 문제에 대한 처방이 되는가? 어떤 아이디어들이 그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하리라 생각되는가? 어떤 아이디어들이 가장 사실에 부합되는 것 같은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이디어들이나 해결책들의 결합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가?

• 행동발견: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신이 선택한 해결책(들)을 실행에 옮기려면 어떤 단계들이 취해져야 하는가? 그 해결책이 시행되려면 시간과 스케줄, 노력, 돈, 그리고 업무의 상세한 계획과 조정에 있어서 무엇이 요구되겠는가? 당신의 해결책(들)을 실행에 옮기는데 있어서 누구와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는가?

2) 위에 요약된 과정을 그룹 구성원들과 함께 단계적으로 시행해 보라.

BIBLIOGRAPHY

1. 국내서적

강병도. *QA시스템 성경연구 시리즈.* 서울: 기독지혜사, 1986.

김세윤, *복음이란 무엇인가,.* 서울: 두란노, 2003.

______ . *주기도문강해 .* 서울: 두란노, 2002.

김희보., *구약 이스라엘사,* 서울: 총신대출판사, 1981.

라종일, 차종환, 김호, *교회의갈등 그리고 화해.* 대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2002.

박응천, *세계를 향한 복음-설교를 위한 사도행전 연구.* 서울: 한국 성서학연구소, 1997.

성종현, *신학총론.* 서울: 장로회신학대학 출판부, 1992.

신성종, *이런 교회가 성장한다.* 서울: 도서출판 하나, 1995.

서중석*. 복음서의 예수와 공동체의 형태.* 서울: 이레서원, 2007.

안병창*. 새신자 훈련총서.* 서울: 요단출판사. 2009

이성희, *미래목회 대예언.* 서울: 규장, 1998.

이형기, *본회퍼의 신학사상.* 서울: 장로회신학대학 출판부, 1991.

_______, *종교개혁신학사상 .* 서울: 장로회신학대학출판부, 1993.

원용국, *성막과 십계명.* 서울: 성광문화사, 1982.

정규남, *구약개론.*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85.

조태환. *환희와 함께가는 가정교회.* 서울:도서출판 NCD, 2009

최영기, *구역조직을 가정교회로 바꾸라.* 서울: 나침반, 2007.

_______. *가정교회를 통한 교회개척 사례와 제언.* 서울:국제 가정교회 사역원. 2009

_______. *제 60차 목회자를 위한 가정교회 세미나 교재.*가정교회 사역원, 2010

한 홍, *거인들의 발자국* . 서울: 두란노, 2000.

2. 번역서

Berkhof, Louis. *벌코프 조직신학(하)* . 이상원 역, 서울: 크리스챤 다이제스트, 1993

Bridges, Jerry. *거룩한 삶의 추구.* 편집부 역, 서울: 네비게이토 출판사, 1994.

Bruce, Frederick Fyvie. *바울신학.* 정원태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7.

Clinebell, Howard J. *목회와 지역사회* . 오성춘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4.

Covey, Stephen R. *원칙중심의 리더십.* 김경섭, 박창규 역. 서울: 김영사, 2001.

Cornelius Van Tu, *개혁신앙과 현대사상.* 이승구 역. 서울: 엠마오, 1988.

Cupitt. Don. *예수정신에 따른 기독교 개혁.* 박상선, 김준우 역, 서울: 한국기독교연구소, 2006,

Hendricks, Howard G.. *사람을 세우는 사람*, 박경범 역. 서울: 디모데, 1997.

Jones. ,D. Martyn Lloyd. *산상설교집*, 문창수 역, 서울: 정경사, 1989.

Keener, Craig S. *IVP 성경배경주석.* 정옥배 외 역. 서울: IVP, 1998.

Kleinben, H.J. *목회와 지역사회.* 오성춘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5.

Kűng, Hans. *왜 그리스도인 인가* 서울: 분도출판사, 1995.

__________, *교회.* 정지련 역. 서울: 한들출판사, 2007.

Maxwell, John C. *리더십의 법칙.* 강준민 역, 서울: 비젼과 리더십, 2003.

Miller, Darrow.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 서울: 예수전도단, 2000.

Nouwen, Henri. *상처입은 치유자.* 최원준 역, 서울: 두란노, 1999.

Tozer, Aiden Wilson. *이것이 성공이다.* 이용복 역, 서울: 규장, 2005.

Worthington Jr, Everett I. *용서와 화해.* 윤종석 역. 서울: IVP, 2006.

Yancey, Philip.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 김동완, 이주엽 역, 서울: 요단출판사, 2000.